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9 호　　5월15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제9호 (31)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1949년5월15일

내 용

평화옹호세계대회 선언서

세계 七十二개국가로부터 참집한 인민들의 대표자인 우리들 민족과 신앙 및 신념을 달리하는 남녀 우리들은 세계에 또다시 떠돌고있는 새로운전쟁의 위협을 인식하고있다。

세계적 비극이 있은후 四년이지났는데 인민들은 군비의 파멸적 경쟁으로 또다시 끌려들어가고있다。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여야할 과학은 군사목적에 봉사할것을 강요당하고있다。

세계각처에서는 주로 외국의 간섭과 그들의 무력의 직접행동으로써 발화된 전쟁의 화원이 아직도 불붙고있다。

이 위대한 평화옹호세계대회에 집합한 우리들은 우리들이 자기의 견해의 자유를 보유하였다는것과 전쟁선전은 우리들의 리지를 흐리우지 못하였다는것을 전세계에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들은 서로 다른사회제도가 공존할수있다는것을 확인하는 제렬강간에 체결된 협정을 파탄시킨자가 누구인가를 잘알고있다。

우리들은 지금누구가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있는가를 잘알고있다。

인민간에 평화유지를 지향하는 협정을 한장의 휴지로 생각하며 협의와 군비축소에 관한 모든 제의를 거부하며 자기자체를 무장하고 침략가의 역활을 하고있는자들이 누구라는것도 잘알고있다。

우리들은 원자폭탄은 방어무기가 아니라는것을 잘알고있다。

우리들은 국가간에 있어서 한쁠력을 다른 쁠력에 대치하려고하는자들의 회롱물로 되어지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파멸적역할이 증명된 군사동맹정책을 반대한다。

새로운 세계 전쟁을 초래시킬수있는 무력충돌을 항상 일으키는 식민지정책에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세계의 온갖 형리(刑吏)들이 또다시 무기를 만들어 내는 서부독일과 일본에대한 재무장정책을 폭로한다。 일부국가 그루빠들간의 고의적으로 조직된 경제적관계는 벌써 군사적 봉쇄의 성질을 띠고있다。

「랭정전쟁」 방화자들은 전쟁에대한 보통적 위협으로부터 그의 로골적 준비사업으로 넘어갔다。

평화옹호세계대회는 인민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것을 그만두고 공동위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고 결심하고있다는 사실을 널리강조하였다。

평화옹호세계대회에 자기대표를 파견한 각국인민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유·엔헌장의 찬동자인 우리들은 이헌장을 부정하고 전쟁을 초래시키는 모든 군사협정을 결대반대한다。

우리는 인민을 빈궁의 구렁에 쳐넣을 지경으로 그들에게 과중한 중하를 부담시키게되는 비상한 군사 지출의 증가를 단연히 반대한다。

우리는 원자무기와 또는 사람의 생명을 대량적으로 살해하기위한 다른 일체의 수단을 금지할것을 주창한다。

우리는 제강국의 무력을 축소함과 동시에 원자력을 평화의과업과 인류의번영에 필요하도록 사용할 목적으로 유력한 국제통제를 설정할것을 주창한다。

우리는 모든 인민들의 민족독립과 평화적협력을 위하여 자유와 평화의 근본조건으로되는 민족자결권을 위하여 분투한다。

·새침략의결을 닦으려는 목적으로 민주주의적 자유를 제한하며 점차 그를 완전히 압살하려고 하는 온갖 책동을 우리는 반대하여 총궐기한다。

우리는 사회의식을 말살시키고있는 전쟁선동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진리와 리성을 옹호하는 통일전선을 굳게 지지할것이다。

우리는 군사히스테리, 인종증오심, 인민들간의 갈등정책을 백일하에 폭로한다。

우리는 세전쟁조발을 선동하는 출판기관 서적및 영화 또는 부뷰적 활동가및 단체들을 단연히 비난하며 뽀이코트할것을 주창한다。

우리들은 세계인민의 긴밀한 협조를 지지하며 평화를 옹호하여 우리의 전력을 총집결할것이다。

경각성을 높이기로 견결한 결심을 가진 우리들은 평화옹호세계대회위원회를 설정하였다。

새로운 전쟁을 의도하고있는 모든자들은 매개책동마다 평화를 보장할 능력이있는 인민대중의 강력한 세력의 공격을 받으리라는것을 우리들은 굳게 믿는바이다。

평화를 기대하는 녀성들이여! 어머니들이여! 우리가 당신들의 자녀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가정의 안전을 보호하는것을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는것을 인식하라!

청년들이여! 대량적학살로부터 광명한 장래의 진로를 해방시키기위하여 정견 신앙의 차이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들의 뒤를 따라 단결하라!

평화옹호세계대회는 평화의 옹호가 전체인민의 위업이라는것을 선언한다。

세계六억의 남녀를 통합하고있으며 평화옹호세계대회에 대표를 파견한 사회단체들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세계의 모든 인민에게 다음과같이 호소하는바이다。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용감하고 또 용감하라!

우리는 튼튼히 집결할수있다고 서로 리해할수있었다。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위한 이 투쟁—생명을위한 투쟁에서 승리하리라는 우리들의 결의와 우리들의 의사를 표명하는바이다。

二개년 인민경제계획 실행을 위한 우리당단체들의 과업

김일성수상은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이 전체력량을 집결하여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면 우리조국에는 완전독립국가의 더욱 튼튼한 경제적 토대가 구축될 것이며 우리조국은 문화적으로 륭성될 것이며 인민대중의 물질적 문화생활은 일층 제고될 것입니다。

공화국의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함이 없이는 완전자주독립국가 건설이 불가능할것이며 장구한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인 우리조국의 경제적 문화적 락후성을 퇴치하지 못할것입니다」라고 말씀하였다。

이와같이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은 우리공화국의 경제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하고 자주독립과 민주발전을 촉진하며 전체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향상을 위한 력사적 과업으로 되는 것이다。그렇기때문에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은 공화국 전체인민들의 세기적 과업으로 되는 것이며 부강한 조국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당의 가장 영예로운 임무로 되는 것이다。공화국전체인민들은 오늘 누구를 물론하고 二개년인민경제계획실행이 자기들의 장래행복과 자손만대의 번영과 혈연적으로 련관되어 있다는것을 깊이 리해하고있다。그러므로 지난 제二차최고인민회의에서 공화국북반부의 인민경제 부흥발전을 위한 一九四九—一九五〇년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에 관한 법령이 채택되자 공화국북반부의 방방곡곡 공장 광산 기업소들에서는 광범한 증산경쟁운동이 료원의 불길처럼 전개되고 있으며 금년초두에 있어 일부 락후되었던 생산실적은 기간의 경과와함께 급격히 상승되고 있다。

례를 들어 흥남비료공장의 一·四분기생산의 성과적 초과실행을 비롯하여 곡산광산 해주세멘트 북중기

계등 중요공장 광산들은 벌써 三월二十일 이전으로 자기의 제四분기계획을 넘쳐 실행하였으며 산업부문 전체생산실적은 一월을 一〇〇으로하면 二월은 一二〇%、三월은 一七四%로 제고되였을 뿐만아니라 기계부문등은 三월에 이르러 실로 四〇〇%이상의 비약적 성장을 보이고있다。

이와같은 二개년계획실행을위한 전체인민들의 장엄한 애국적 열성을 조직적으로 추동발양시키며 이 사업에서 당원들의 모범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것은 곧 우리당 각급당단체들의 주요한 임무로 되는 것이다。

실지에있어서 오늘 인민경제 계획실행의 선두에는 어느곳 어느부문을 물론하고 우리당단체들과 당원들의 경건한 선봉적 역할을 찾아 볼수있으며 많은 우리당단체들의 탁월한 조직적인 력량은 계획보장의 거대한 담보로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계획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적 실례들은 二개년계획이 높은 경제발전의 수준에서 수립된 점과 계획실행을 위한 구체적 조건들을 아직도 일부 우리당단체들이 충분히 파악치 못하고 있는것을 말하여 주고있다。

이리하여 생산을 협조함에 있어 새로운 자기의 준비를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고 생산의 구체적 실정에 깊이 침투하여 실질적인 산 지도를 줄대신에 형식적인 사무적、성과에만 치중하고 급속한 생산발전에 따라 자기의 협조대책을 기동적으로 수립하지못하고 있는것이다。二차에걸쳐 진행된 인민경제 계획의 모든 성과는 난관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얻어진 것이며 또한 경제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애로들은 선진적 로동자 기술자들이 옳게 해결하였다는데 대한 인식을 우리의 일부 당단체는 충분히 인식치 못한것을 볼수있다。그러므로 직장내에 있어서의 해이한 경향들과 결정적투쟁을 전개하지못하고 있으며 二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심각히 연구하며 평가하지 못한데서 도리어 자기 력량을 과대평가하는 모험적 경향들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우리공화국전체인민들의 긴절한 요구에 부합되는 인민경제二개년계획의

승리적、완수를 위하여 우리당 각급당단체와 매개당원들이 당중앙위원회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되어 공화국중앙정부의 정강을 높이 받들고 굳은 신념과 높은 긴장으로서 부강한 조국건설의 위대한 이력사적 투쟁의 선두에서서 「매진할것』을 호소하였다。

각급당단체들은 지금까지의 생산행정에서 나타난 제반결점과 특히 계획생산이 아직도 시간적으로 적지않은 여유가 있다는 막연한 타산과 일시적 성과들에, 자만 자족하는 락후한 사상적 경향들을 일소하고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반드시 국가와 우리당중앙위원회가 요구하는 높은 질적 수준에서 달성하도록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이 사업에있어 각급당단체들의 특별히 관심할것은 생산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거한다면 동일한 생산계획의 보장에 있어서도 같은생산품에있어 원가의 차이와 품질상 차이를 볼수 있는 그것이다。 우리들은 항상 생산의 량적 달성에서 뿐만아니라 높은 질을 더욱 저렴한 생산원가에서 생산함으로써 국가에 더욱 많은 리익을 주도록하는 방향에서 생산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할것이며, 생산의 내용을 검토하고 행정을 분석하는 사업에 높은 주의를 돌려 아직도 부분적으로 볼수있는 일반적인 구호식격려에 그치는 지도사업에 대치하여야 할것이다。 례를들어 청진제강소에서는 작년도에있어 자기의 생산계획을 달성하였으나 생산조직과 내부정리사업들에 허다한 결점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진시당단체에서는 생산의 실질적 정형에 대하여 리해를 가지지 못한 결과 二〇여회에 걸치는 지도 및 검열사업에 있어 직장당단체들의 구체적 사업방향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강서군당 단체에서는 강선제강소의 지배인이 발표한 생산숫자에만 현혹한 결과 국가에 거대한 손실을 주는 내부의 부정사실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각급당단체들을 생산보장을 위한 자기의 협조사업을 추진함에있어 매개로동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경험과 가능한 조건들을 기초로하여 자기의 계획책임량과 질지작업을 정확히 결부시켜

예정숫자 생산을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뿐만아니라 생산조직과 로력조직에 일상적으로 관심하여 그 조직의 불합리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생산력의 랑비현상을 없새고 생산능률을 항상 높은 수준에서 보장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지난 二차에 걸친 인민경제계획실행 행정에서의 우리들의 경험은 우리가 로동의 생산능률을 제고하는 령역에서 달성하여낸 성과들이 우리의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들중의 하나로 되었음을 의심할바 없으며 결국 생산능률을 더욱 제고하는것은 앞으로의 우리 건설 투쟁에서 그 승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로동의 생산능률을 제고하는데있어 결정적 담보로되는 과학적인 생산조직과 합리적인 로력조직은 그 중요성을 더욱 가중하게 하는것이다。

생산조직과 로력조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생산설비들의 효용률을 최고도로 높이고 기계의 휴전률을 최소한도로 축소시키도록 할것이며 로동자들의 장성된 능률수준과 생산조건들을 정확히 평가하여 로력조직들이 실시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생산을 합리화하며 로동자들의 애국적 창발성을 더욱 고무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생산로동자들의 실지생산행정에서 체득한 선진적 창발성들을 널리 채용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로동자들의 창조적 창발성을 사무적 행동으로 속박하려는 일체 관료주의적 경향과 견결히 투쟁하며 새로운 창안과 고안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이를 제때에 생산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생산능률을 향상시킴에있어 또한 중요한것은 우리경제건설에서 가장 긴절한 요구로 되고있는 기술부족을 극복하고 기술수준의 질적제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력량을 동원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악독한 통치하에서 우리들은、기술을 습득할 길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으며 우리들은 우수한 기술자를 가지지못한 조건에서 우리의 경제건설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기술습득을 위한 과업은 공화국 북반부에있어 전인민적 과업으로 되는것이며 우리당

매개당원들의 고상한 당적임무로 되는것이다。그러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기술의 중대성을 옳게 파악하지못하고 기술에 대한 사업을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들이 존재하고 있는것이다。김일성수상은「전체인민들과 청년들을 교양할때에 기술의 중대성을 그들이 인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아직까지도 일부 고집한 조선기술자들 머리가운데 남아있는「일본제국주의의 기술자들이 우수하다」는 옳지못한 리론을 타파하고 우리의 로동자 기사 기수들도 선진적 과학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일본놈 이상의 능률을 발휘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주어야 하겠습니다」라고 지적하시였다。

우리당단체들은 기술향상을위한 사업이 가지는 중대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원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바 기술을 최고도로 발휘하며 더욱 연마하여 조국경제건설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도록 할것은 물론 전체 기술일군들을 그 기술에 따라 적소에 배치하도록하여 각자가 소유한 기술을 충분히 발휘하기에 유감이 없도록 할것이며 기술전습제도를 직장의 구체적정형에 따라 능률적으로 편성강화함과 함께 일부 낡은 기술자들의 보수적 관념을 타파하도록하여 새로자라나는 로동자들을 열성적으로 배워주며 기르는 사업을 더욱 성과있게 추진하도록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二개년계획을 승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한가지의 중요한 과제는 경제절약에 대한 문제이다。이상 지적한바와같이 二개년계획은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있어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총동원하는 기초에서 수립된 높은 수준의 계획인 것이며 이 계획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은 곤난과 부족점들에 능히 견디며 타개하여 나갈수있는 충분한 사상적 준비를 가져야 할것이다。이리하여 경제를 절약하고 축적을 높이는 사업에 우리당단체들은 반드시 모범을 뵈어야 할뿐만 아니라 전체인민들 속에서 경제절약을 위한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일체랑비현상을 퇴치하고 모든 여유와 가능한 조건들을 二개년계획을 협조하는、방향으로 돌리도록 하여야 할것이다。우리들은 경제절약을 위한 투쟁을 더욱 전개함에있어 다만 각생산 운수 기업소와 사무기관들에만 국한할것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 있어서 경리를 일층 합리화하여 낡은 관습에서 부터 오는、일체랑비현상을 없새도록하여 가계의 축적을 증대시키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각급당단체들은 二개년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사회단체들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방조하여야 할것이다。특히 생산직장들에서 직업동맹사업에 일상적관심을 적게 돌리며 심지어는 그 력량을 과소평가하며는 경향들과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여 직업동맹단체들로 하여금 생산의 구체적정형과 로동자들의 실제형편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할것이며 계획보장을위한、증산운동조직과 로동자들을위한 교양사업 및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위한 사업에 자체의 광범하고 조직된 력량을 성과적으로 발동시키도록 할것이다。이와같은 사업을 보장함에있어 특히 중요한것은 직업동맹사업을 다만 그 부문에서 전임된 일부일군들에게만 방임할것이 아니라 전체당원들로 하여금 사회단체생활에 적극 참가 하도록하여 군중속에서 모범적 작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현재 공화국북반부의 수백만 근로대중은 최고도로 앙양된 애국적 열성으로써 증산경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개인간의 경쟁운동은 지금에와서 전체인민적 운동으로 되고있으며 견고한 경제전선의 거대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이와같은 조건하에서 당단체들은 이 사업을 옳게 협조지도함에 정상적인 주의를 돌려야할것이며 당단체는 그 직장의 생산조건과 로력조직을 과학적으로 분석파악한 기초위에서 증산목표를 결정하도록하여 二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방향에로 군중들을 조직동원하여야 할것이다。

우리의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은 우리들이 이미 二차에걸친 계획적인 인민경제건설에서 쌓아놓은 풍부한 경험과 모든 가능한 조건과 우리의 생산이 더욱 확대발전된 조건을 근거로하여 수립된 과학적인 계획인것이다。

각급당단체들은 우리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의 정신에 튼튼히 립각하여 당단체들을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더욱 공고히하며 우리의 경제발전의 새환경과 새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며 새환경의 요구에따라 당지도사업수준을 더욱 제고하도록 할것이며 이리하여 二개년계획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고상한 당적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파탄되어가는 남조선 농촌경리와
토지를 요구하는 남조선 농민들의 투쟁

박 문 규

위대한 쏘련군대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해방된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 전체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기대속에 승리적으로 실시된 토지개혁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철폐하고 지주의 예속에서 농민들을 해방함으로써 농촌경리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였다。

오늘 토지의 영원한 주인으로 된 북반부 농민들에게는 벌써 가난과 불행과 착취와 압박은 옛날의 한쪼각의 악몽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북반부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계속 제고되고 있으며 이와 아울려 농민들의 부강민주조국 창건을 위한 애국적 열성은 날로 비등하고 있다。 국가의 올바른 시책과 농민들의 애국적 증산투쟁으로 말미암아 북반부에 있어서의 경작면적과 수확고는 년년이 증가되어 수확고에 있어서 一九四八년도에는 一九四六년도에 비하여 五三〇만석 이상의 곡물을 증수하였다。

이리하여 북반부를 식량이 부족하던 지대로부터 식량에 여유 있는 지대로 전변시켰다。 지금 바야흐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 초등의무교육 준비사업에 있어서와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예정숫자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농민들의 힘찬 투쟁에서도 북반부농민들의 고도로 앙양된 정치적 각성과 애국적 열성은 려력히 표시된다。 이와같이 공화국 북반부 농민들이 자유와 행복속에서 민주조국 창건에 헌신할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자이며 우리 조국을 일본강도배로부터 해방시켜준 위대한 쏘련군대가 우리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과 민주화를 위하여 백방으로 원조하여 주었으며 우리 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며 민족적영웅인 김일성장군의 올바른 령도하에 우리 조선인민들이 자기의 수중에 정권을 장악하고 토지개혁을 위시한 제반 민주개혁들을 승리적으로 완수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공화국 남반부 농민들은 북반부 농민들과는 전연 반대로 아직도 착취와 압박과 자유 없는 처지에서 일제시대 이상의 참담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는 조국 남반부에 진주한 첫날부터 우리 강토를 분할 식민지화하려는 그 흉악한 침략정책을 실시하였다。 정권을 조선인민의 수중에 넘겨 주기는 고사하고 해방직후 조선인민이 자기의 창의로써 조직한 각급 인민위원회를 무력으로써 강제 탄압하고 우리 인민들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친일과 민족반역자 친팟쇼 반동분자들을 등용하여 망국적인 소위 대한민국 「국회」와 리승만괴뢰「정권」을 위조하고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수많은 애국인민들을 무고히 검거、투옥、학살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농민들은 토지개혁은 고사하고 일제시대 이상의 고율소작료와 강제공출과 가렴잡세로 말미암아 굶주림과 헐벗음에 신음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와 권리라고는 한조각도 찾아볼수 없으며 오직 살인적 폭압만이 그들을 내려누르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 농민들은 북조선 농민들과 같이 자유와 행복을 찾기위하여、토지를 찾기위하여 미제국주의군대를 우리의 강토에서 철거케하고 리승만 괴뢰「정권」을 타도 분쇄하고 국토 완정과 조국의 완전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로동계급들을 선두로한 전체 인민들과 함께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웅적인 피의 구국 항쟁을 치렬하게 전개하고 있는것이다。

× × ×

일본제국주의는 금융독점자본으로서의 무제한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극도로 군사력과 봉건적 착취제도를 리용하면서 소위 「군사봉건」적 제국주의체제를 수립하였다。 이 「군사봉건」적 일본제국주의는 대륙에 대한 자기의 침략정책을 수행함에있어 조선을 그의 군사기지로 삼았으며 그러기 위하여 일찌기 레닌선생이 말씀한바와 같이 「일본은 최신의 모든 기술발명과 순아세아적 고문을 결합시킨 미문의 야수성을 가지고 조선을 「략탈」하였다。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은 무엇보다도 조선을 일본의 원료원천으로、식량원천으로 만들며 전략기지로 만드는데 있었다。

조선에 있어 반(半)봉건적 토지제도를 유지강화함은 일본제국주의의 이러한 침략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유리하였던 것이다。 반(半)봉건적 질서는 첫째로、반(半)농노적 로력농민의 기아를 댓가로 더많은 식량을 일본으로 가져갈수 있었으며 둘째로 빈농층에서 흘러나오는 반(半)노예적 저렴한 임금로동자를 착취함으로써 [illegible] 기자를 축성함에 더욱 유리하였으며 [illegible]

반동지주들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조선인민을 억압하는 그의 식민지적 통치를 가능케 하였기 때문이다。

세계 제패를 꿈꾸고 우리 조국강토를 그의 동방침략기지화하려는 미제국주의군대는 이러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방식을 조국남반부에서 그대로 계승하였다。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은 모든 산업에 있어서와 같이 농업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토지가 조선인민의 수중에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토지개혁은 모든 민주개혁과 아울러 실로 조국의 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물질적 토대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장구한 일본제국주의의 악독한 통치하에서 토지를 요구하는 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곧 독립을 위한 투쟁이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조선농민들의 세기적인 숙망을 거부하였다。미제국주의자들은 토지가 조선인민의 수중에 넘어가면 그들의 식민지화 정책이 실패될 것을 잘알고 있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충복인 국내반동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토대로되는 이 봉건적 토지제도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토지정책이 조선인민들의 절대적인 배격을 받을 것은 실로 명백한 것이다。그것은 다만 자기네의 탐욕적 리익을 위하여 미제국주의자에 복무하며 인민을 배반하고 조국을 팔아먹는 지주 대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한줌도 못되는 국내반동의 지지를 받고있을뿐이다。

「조선경제년보」 一九四八년판에 의하면 남조선 총경지면적은 二三二만여정보인데 그중에서 六二・九%는 지주가 소유하고 있다。이 지주의 호수는 五정보 이하의 소유자까지 합하여 약二〇만호인바 이것은 전농가호수의 九・七%에 불과하다。다시 말하면 전농가호수의 九・七%밖에 되지않는 기생지주들이 전경지면적의 六二・九%를 점령하고 있는데 반하여 자작농 이하 九〇・三%의 전농민들은 겨우 三七・一%의 농지밖에 가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는 남조선 반동세력의 경제적토대로 되어 있는 것이며 농촌경리발전을 조애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되어있는것이다。

주지하는바 북조선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은 중요산업국유화와 아울러 이미 국내반동의 경제적토대를 허물어 버렸으며 인민경제발전에 무한한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파멸되어 가는 남반부 농촌경리는 무엇보다도 경지 면적의 축소와 미곡수확고의 감소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一九四七년도 남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논면적은 一九三五—四四년의 十년간 평균에 비하여 二五%나 감소되었다。미곡생산고는 흉년이 계속되던 一九四〇—四四년간 평균이 一、三二六만석

이었는데 一九四五—四七년간의 三년간평균은 一、一七九만석으로 줄어들었다。농촌경리의 발전을 조애하는 반(半) 봉건적 소작제도의 결과는 실로 어려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토지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 농민들을 다소라도 기만할수 있을까 하여 一九四六년봄에 소위 「三분一」제 소작료를 발표하였다。그러나 이것은 하등의 법적 보장도 없었으며 완전히 농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허위적 정책에 불과하였다。소작료는 여전히 五활내지 심한데서는 九활이 넘는 살인적인 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매국도당들은 남조선농촌에서 다만 이러한 반봉건적 소작제도를 유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또한 가혹한 강제공출과 가렴잡세에 의하여 농촌경리를 파멸에 이르게하고 있다。

미군정청은 一九四六년도와 一九四七년도에 각각 四二九만석과 五一五만석의 미곡을 남조선농민들로부터 략탈하였다。또 一九四八년도에는 리승만 괴뢰『정권』은 소위『량곡매입법』을 채택하여 七五〇만석을 농민들로부터 략탈하기로 결정하였다。이것은 실로 一九四八년도 예상수확고의 六〇%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략탈적 강제공출은 비단 미곡에만 그칠뿐 아니라 일제시대에도 없던 하곡에까지도 가혹하게 강제되었다。하곡수집량은 一九四六년에 六一만九천석、一九四七년에 六九만九천석、一九四八년에는 八九만六천석에 달하였다。

이러한 략탈적인 「미곡수집」과 「량곡매입」은 남조선 농민들을 완전히 기아와 빈궁속으로 몰아넣었다。이 「량곡매입」의 반인민적 매국적 성질은 무엇보다도 조선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된 미곡을 우리 민족의 원수인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보내는데 있다。미제국주의는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켜 이를 그의 동방침략의 앞잡이로 사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며 리승만 매국도당들은 이러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적극 지지원조하고 있는 것이다。

식량에 여유있던 남조선에서 심각한 식량부족을 느끼게 된 원인은 실로 여기에 있다。농민들은 종곡까지도 다 빼앗기고 점점 농업생산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있다。

남조선 농촌경리는 다만 반(半) 봉건적 토지제도와 가혹한 강제공출에 의하여 파탄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또한 비료부족과 농구부족으로 인하여 위태한 지경에 빠지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는 과거에 있어 매년 五〇—六〇만톤의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었다。그런데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분할식민지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남조선에서는 우리 북반부에서 생산되

는 화학비료를 쓰지못할 형편에 있다。「조선년감」 一九四八년판에 의하면 一九四六년 七월부터 一九四七년 六월까지 一년동안에 미국으로부터 一九만톤의 비료가 수입되었다。그러나 빈농민들은 그 흉악한 고가의 비료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 호미、낫、광이、보습등을 위시하여 탈곡기、정미기、제초기등 농구생산은 一九四五년 九월부터 一九四六년 八월까지 一년동안에 四二만九천개였는데 一九四六년九월부터 一九四七년 八월까지 一년동안에는 二二九만五천개로 즉 五五%로 격감되었다。

또한 농업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으로되는 축우는 一九四四년에 八八만六천두였는데 一九四六년에는 五五만六천두로 즉六二%로 격감되었다。

미국놈들과 매국노들은 자기네의 식탁만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무원칙한 축우도살을 자행하였던 것이며 또한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해마다 많은 축우를 일본으로 보내었던 것이다。남조선신문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경상남도 한도만 하더라도 一만두를 일본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한다。

또한 미국제국주의자들과 매국노들은 농업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하여 관개사업과 치수사업에 아무러한 시 도 하지 않고 황폐하는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작년 五월二十二일 남조선에서 발행하는「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신한공사에서 관리하던 二七만정보의 농토는 농민들에게 분여는 되었다고는 하나 그 절반인 一三만三천정보는 방파제와 제방의 붕괴로 대파되어 七월의 우기전에 수리치않으면 一〇〇만석중 최소 六〇만석이 감수될 것이며 그 피해액은 六〇여억원에 달할 것이다。이 수리공사에는 六억九천만원이 소요되는바 당국의 예산액은 불과 二여원뿐으로서 수리조합련합회에서도 그 대책을 강구치 못하고 있다」

또한 금년 二월二十八일 광주(光州)발「고려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작년 여름 호남일대를 래습한 폭풍우로 말미암아 공전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도내 류실농토 복구공사 착수는 어느 세월에나 될는지 우기도 불과 한달밖에 두지 않은 요지음에 와서도 전무소식이다。…▶요지음 중앙청에서는 공사비로 겨우 五천八백五십만원의 예산을 내정하였다는데 이 공사비는 피해액 二〇여억원에 비하여 너무나 엄청난 거리가있다。」

× × ×

파멸되어가는 남조선 농촌경리는 필연적으로 남조선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와 독립을 요구하는 처렬한 구국투쟁에로 총궐기케 하지 않을수 없었

다。남조선 농민들은 해방후 三년반 동안에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침략정책과 매국노 리승만도당들의 망국적 매국행위를 뼈아프게 체험하였다。남조선 농민들은 북조선의 제반 민주개혁과 농촌경리의 빛나는 발전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인민정권과 토지개혁만이 자기네 농민들과 농촌경리를 파멸의 구렁에서 구해 주는 길임을 여실히 깨달았다。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반대하고 리승만 매국도당들을 타도 분쇄하는 길이 오직 자기 자신들을 구하며 조국을 구하는 길임을 여실히 깨달았다。그렇기때문에 남조선농민들은 전농산하에 더욱 굳게 결속되어 남조선로동계급을 선두로한 전체 애국인민들과 함께 十월인민항쟁、三·二二총파업、二·七구국투쟁、五·十단선 반대투쟁、통일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력사적인 선거투쟁、세계약소민족의 해방자이며 우리민족의 구원인 쓰딸린대원수에게 드리는 감사문에의 서명투쟁、미군즉시철거를 요구하는 十一월三十일 총파업등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반대하고 국토완정을 쟁취하기 위한 허다한 구국투쟁 대렬속에서 힘있는 부대의 하나로써 진출하였던 것이며 또한 더욱 치렬한 구국항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一九四六년 二월에 북조선 림시인민위원회가 탄생되고 김일성장군이 발표한 二十개정강에 근거하여 조선 농민들의 세기적인 숙망을 달성해 주는 력사적 토지개혁이 북조선에 실시되었을 때에 이 토지개혁은 비단 북조선농민들의 절대한 지지와 환호속에서 진행되었을뿐만 아니라 남조선 농민들에게서도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받았던 것이다。이 토지개혁은 남북조선 전체인민들에게 우리민족이 장차 나아갈바 민주발전의 길을 명시하여 주는 라침반으로 되었다。남조선 방방곡곡에서도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광범히 일어났다。

이때로부터「정권을 인민의 의사로써 조직된 인민위원회로 넘겨라!」「남조선에도 북조선과 같은 무상몰수、무상분여의 토지개혁을 즉시 실시하라」는 구호가 남조선인민들의 중심구호의 하나로 되었다。토지를 요구하는 남조선 농민들의 투쟁을 마비시길 목적으로 미군정청이 내놓은 소위「三분一」제 소작료의 기만적 본질은 완전히 폭로되고 말았다。

토지를 요구하는 남조선 농민들의 투쟁은 一九四六년 五월 서울에서 열린 제一차 쏘미공동위원회가 결렬된후 소위「하곡수집」을 반대하는 투쟁과 十월인민항쟁에서 더욱 광범하게 가강하게 전개되었다。

전체 조선인민들의 지지와 환호 속에서 열린 쏘마공동위원회를 고의적으로 파탄시킨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이해 여름에 소위「하곡수집」을 강행하

였다。 이 소위 「하곡수집」은 과거 일제시대에도 없던 것으로서 농민들의 치렬한 반대에 봉착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군정은 기아와 굶주림을 반대하는 이 농민들의 투쟁을 무력으로써 탄압하였다。 이 투쟁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남조선 각지에서 검거 투옥 학살되었으며 서울에서도 十여명의 「전농」 간부들이 놈들에게 검거 투옥되었다。

조국의 독립과 민주발전을 보장하는 모쓰크바 三상결정의 충실한 실천을 거부하고 인민을 탄압하며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옹호하여 나선 미제국주의자들의 로골화한 식민지화 정책은 드디어 十월 인민항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十월 인민항쟁은 해방후 처음보는 대규모의 구국 투쟁이었다。 十월 인민항쟁에 참가한 총인원수는 二백수십만에 달하였다。 이 투쟁에서 남조선 전체 인민들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자기의 손으로 숙청한후 정권을 자기의 손에 틀어 잡고 조국의 민주독립을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농민들은 로동자들과 함께 이 투쟁에서, 가장 용감하게 진출하였으며 반동경찰과 함께 악질지주들을 숙청함으로써 토지개혁을 지향하는 자기들의 굳은 의지를 표시하였다。

一九四七년봄 남조선 농민들의 대표기관인 「전농」에서는 이러한 광범한 농민들의 지향을 대표하여 남조선에서도 봉건적 토지 소유제도를 즉시 철폐하고 북조선과 같은 무상몰수 무상분여의 토지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토지개혁안」을 채택하였다。 아 「토지개혁안」은 조선인민들의 세기적 갈망을 남조선에서도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며 농민들은 로동계급을 선두로한 전체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철통같은 단결로써 반드시 토지개혁을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토지개혁안」은 남조선 전체 농민들의 절대한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침략자들은 이 「토지개혁안」을 전적으로 거부하였을 뿐만아니라 두번째 열린 쏘미공동위원회를 또 다시 파탄에 이르게하여 독립을 갈망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의사를 여지 없이 유린하고 「량군 즉시동시철거」에 대한 쏘련의 정당한 제의를 거부하고 야만적 테로 학살 검거 투옥으로써 민주진영을 혹독하게 탄압하여 그들을 완전히 지하로 몰아넣고 소위 「유·엔위원단」을 끌어들여 망국 五·十단선과 리승만 매국 「정권」을 조작함에 광분하였다。

이에 이르려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분할식민지화 정책과 리승만 김성수 리범석도당들의 망국적 매국행위는 아주 명백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 전체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의 앞잡

이 「유·엔위원단」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고 五·十단선을 배격하는 치렬한 구국투쟁에 총궐기하였던 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매국노들은 비행기 군함 기계화부대를 동원하는 한편 소위 국방 경비대를 위시하여 반동경찰 「향보단」 등 일체 테로단을 총동원하여 강제, 협박, 사기, 협잡으로써 五·十단선을 강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五·十단선은 남조선 인민들의 광범하고도 치렬한 투쟁에 의하여 완전히 실패하였다。 그의 매국적 반 인민적 성격은 전세계 인민 앞에 폭로되었던 것이다。

특히 五·十단선 반대투쟁에 있어 四월三일 제주도 인민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일시에 제주도내 一三개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유격전을 전개한 것은 실로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으로 하여금 그 발전에 있어 한 새로운 단계를 만들었다。 이 제주도 인민무력항쟁은 一년이 지난 오늘에도 계속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사람의 로동자, 한사람의 농민도 참가함이 없이 지주, 대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로써 구성된 소위 「대한민국국회」는 그의 소위 「헌법」 제八六조에 농민을 기만할 목적으로 마치 토지개혁이나 실시할 것같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농지는 농민에게 분여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一차회의에서 김두봉위원장이 자기보고가운데서 지적한바와 같이 「반동지주들을 대표한 「국회」가 소작제도를 철폐하는 법령을 제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것은 연목구어와 같은 어리석은 일」 이라는 것을 남조선 농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제六조에는 「전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북조선에서 이미 실시된 토지개혁의 제성과들과 농촌경리 발전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여 주었으며 남조선농민들에게도 무한한 희망과 전망과 용기를 주고있다。

매국정권이 조작된후 매국노들이 그의 상전인 미국인들과 체결한 여러가지 매국 「협약」들은 더욱 남조선인민들을 분노케 하지않을 수 없었다。 「한미림시군사협정」 「재산 및 재정이양에 관한 한미협정」 「한미경제원조협정」 등은 미군여 남조선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소위 조약으로 합법화한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을 영구히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식민지노예로 만든것이다。 이위에 매국노들은 미국인들의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위한 정책에 있

어 경제적인 조건으로 되는 소위 「량곡매입법」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자기네의 반역적 잔명을 존속하기 위하여 쏘련군대가 북조선지역에서 철거한 조건하에서 조국을 팔아먹는 「미군 남조선 계속주둔 요청안」을 채택하였다。 지금 남조선에 들어와 있는 소위 「유•엔 신조선위원단」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시와 매국노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러한 미제국주의자의 군사적 진령정책을 방조하려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러한 매국 행위는, 조국애에 불타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항 없이 수행될 수는 도저히 없었다。 매국노들은 이러한 매국행위를 강행하기 위하여 일제시대 「치안유지법」 이상의 소위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들의 군사 경찰 테로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인민들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더욱더 강화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 인민들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 직접 자기손에 무기를 들고 광범하게 치렬하게 일어서고 있다。

여기에서 남조선 본토에도 대규모의 유격전투가 조직되었다。 곧 려수 의거(義擧)를 계기로하여 진전된 지리산주변지역의 격전투를 위시하여 지금 남조선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격전투와 무력항쟁들이 곧 그것이다。 금년 三월一일부 「노력자간」 지가 보도하는바에 의하면 지금 남조선에서는 八도의 三부 七七군 二八三개면에서 치렬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

국토완정을 위한 이러한 구국 무력 항쟁은 직접 토지개혁과 밀접히 련결되어 있다。 작년十월 려수인민대회가 채택한 六개조 포고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었다。

1. 려수의 모든 정권은 려수인민위원회가 장악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정부를절대수호한다。
3. 리승만 괴뢰 단독 정권을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4. 무상몰수 무상분여의 토지개혁을 즉시 실시한다。
5. 매국 정권의 일체법령을 폐기한다。
6. 친일 악질 경찰관 및 반동 악질분자들을 철저히 숙청한다。

토지개혁이 없이는 국토 완정과 조국의 완전 통일 민주독립이 얻을수 없는 것을 잘아는 남조선 인민들은 지금 제주도를 위시하여 전남 경남 경북일대의 무장항쟁이 치렬한 지역에서는 이미 인민위원회를 부활조직하고 토지개혁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다。 이 토지개혁위원회는 인민위원회와 함께 인민의 손에 의하여 조직되어 전체인민들의 환호속에서 착착 토지개혁을 실시하고있다。

× × ×

국토완정과 토지를 요구하는 투쟁이 날로 치렬

하여 감에 따라 매국노들은 최근에 이르러 소위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상정하여 농민들을 기만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것이 분명하다。 소위 「국회」에 상정되어 토의원안으로되어 있는 「산업로농분과위원회안」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정부는 농지를 매수한다 (제五조)。 매수농지에 대한 보상액은 평년작 주요물 생산고의 三十활로서 정한다 (제七조)。 보상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융통식증권으로 소유명의자 또는 그의 선정한 대표에게 지급한다 (제八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은 十년간 균분년부 (均分年賦)로 하여 매년 생산물에 해당하는 현곡이나 대금을 정부에 납부함으로써 한다 (제一三조)」

즉 소위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원칙」을 채용하여 농민들을 영구히 채무농노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것은 작년 三월에 미군정이 조선농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전일본인토지를 불하한다고 내놓은 군정법령 제一七四호와 조금도 다름이없으며 일제시대의 「자작농 창정안」과도 조금도 다름이 없다。

작년十월에 매국노들은 소위 「량곡매입법」을 내놓을 때에 이것은 「국민의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일본군국주의 재무장화의 음모가 숨어 있었다。 오늘 또한 이 매국노들은 「농지개혁법안」은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배후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충견인 지주 대자본가들의 경제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흉악한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에는 이러한 매국노들의 기만적 술책에 넘어갈 한사람의 농민도 없다。 금년 정월 초하룻날 우리 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며 민족적 영웅인 공화국내각수상 김일성장군이 자기의 신년사 가운데서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낸 말씀을 그들은 똑똑히 명심하고 있다。

「오늘 공화국 남반부의 인민들 앞에 제기되는 임무는 전체 애국적 진보적 민주력량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하에 집결시키어 국토의 완정과 완전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하기 위한 구국투쟁을 더욱 광범히 전개함에 있습니다」

남조선 농민들은 전체 인민들과함께 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하루라도 속히 우리 조국강토에서 몰러가게 하기 위하여 또한 망국괴뢰 「정부」를 하도 분쇄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장엄한 구국투쟁을 일층 치렬하게 전개하고 있다。 국토완정과 조국의 완전독립을 쟁취하는 길이 오직 이 길뿐이며 토지개혁을 쟁취하는 길이 오직 이 길뿐임을 그들은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남반부인민들은 앞으로도 더욱 과감하게 싸울 것이며 이 투쟁은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함으로써 공화국의 물질적 토대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북반부인민들의 고상한 애국투쟁과 아울러 반드시 멀지않은 장래에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것이다。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결정 실행을 위한 평남도당단체의 투쟁

북조선로동당평남도당부 위원장 김 재 욱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하급당단체들의 九개월간 사업총결에 대하여 총화하고 당지도사업 강화에 대한 문제와 기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및 경제적 과업들의 성과적 달성을 협조 보장할데 대한 당단체들의 과업들을 토의하였다。 이 회의는 하급당 단체들이 지난 사업기간에 있어서 제二차전당대회의 결정과 당중앙위원회의 제반결정들을 기본적으로 옳게 실행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사업기간에 우리의 하급당단체들은 전체근로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당의 위신을 일층 제고시켰으며 근로인민들 속에서 거대한 신임을 쟁취하였다。 이와같이 우리가 쟁취한 성과는 거대할지라도 현하 조국에 조성된 정치적 환경속에서 우리당앞에는 더욱 거대한 과업이 있음을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지적하였다。

즉 우리당앞에는 이미 쟁취한 제성과를 확고발전시키며 수립된 공화국중앙정부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정부의 정강을 철두철미하게 받들며 미제국주의자들을 하루속히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의 단독괴뢰정부를 타도 분쇄하기 위한 결정적 투쟁에 전체 애국적 력량을 조직 동원하여 조국의 독립과 국토의 완정을 쟁취하여야할 거족적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우리앞에는 一九四九년—一九五〇년도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야할 력사적 과업이 나서고 있다。

따라서 당중앙위원회는 오늘 우리당앞에 부과된 사명과 임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당단체와 당원들의 생활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적지않게 지장을 주고있는 일부 당단체와 당일군들이 범한 오유와 결점들의 엄중성을 준렬히 비판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오유와 결점을 시급히 퇴치할 제반 대책과 당지도사업을 개선강화할데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는바 이 과업들은 당사업 발전에서 아주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에서는 당을 더욱 공고히 하기위한 사업에서 우선 당대렬의 순결성과 엄격한 규률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간부들과 전체당원들은 백전백승의 리론 맑쓰—레닌주의와 볼쉐위끼당의 혁명적 투쟁경험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당내에서 사업지도 방법을 개선하며 당단체들이 광범한 대중과 튼튼한 련결을 더욱 밀접하게 가져야 할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강조하였다。

평남도당단체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결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철두철미 집행함으로써 당단체의 활동성을 일층 개선강화하여 평남도당단체에 부과된 제반과업들을 성과있게 실행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평남도당위원회에서는 지난 二월十五일 제六차회를 소집하고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였으며 뒤이어 각시、군、구역당 위원회를 비롯하여 전체세포에서 중앙위원회 및 도당위원회의 결정실행을 위하여 광범히 토의하였다。

도당위원회를 비롯하여 금번 진행된 각시、군、구역당위원회 및 세포(초급당부)들의 회의는 우리의 하급당 단체사업을 더욱 조직적으로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며 당지도사업의 수준을 더욱 개선 향상시킴에 있어서 획기적 사업으로 되었으며 전체당원들에게 현하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우리당앞에 부과된 과업의 중대성에 대하여 더욱 철저하게 인식시키게 할수있었다。그리하여 매개당원들은 어느때보다도 당적비판의 정신과 정치적 열성이 제고되었으며 조국에 대한 헌신성과 당에대한 충실성이 높아졌다。

평남도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제五차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선 중앙위원회에서 전당앞에 제기한 중심적 과업과 그의 기본정신을 전체 하급당단체와 당원들에게 철저히 인식시키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인정하고 하급당단체들에대한 지도와 방조사업을 일층 강화하고있다。도당부는 책임간부들을 직접 중화、순천、대동군 및 기타 당단체에 파견하여 본결정의 침투정형을 검열하고 실천적 지도와 방조를 주었으며 또 계속 진행하고있다。그리하여 평남도당단체는 중앙위원회제五차회의에서 지적된 당지도사업상 제반 결점들을 시급히 시정하고 당지도사업의 수준을 일층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적지않은 발전을 가져 왔으

며 또 당면한 정치적 및 경제적 제과업들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로 우리당 앞에 부과되는 제과업들을 성과있게 실행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리당 하급당단체들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며 그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함으로써 세포의 활동을 더 풍부히 할것을 당중앙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서 제기하였는바 평남도당단체는 이 부문의 사업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군당 지도간부들이 초급당단체 사업에 대하여 더욱 높은 관심을 돌리며 하부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적극 노력하게 되었고 직접적인 지도를 강화하는 사업조직과 작풍들이 점차적으로 확립되어 가고있다。 동시에 지금까지 다수 군당부들에서 직접세포를 상대로 사업하는 대신 면당부를 상대하고 사업하던 방식을 시정하고 직접 하급당단체와 당원들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작풍이 점차 확립되어 가고있다。 그리하여 당날세포회의에는 시、군、구역당부들에서 계획적으로 당책임일군들과 열성당원들을 세포에 파견하여 방조하는 사업들을 조직하고있다。 이와같이 시군당부들에서 하급당단체들에대한 구체적지도와 방조사업을 강화한 결과에 적지않은 초급당단체의 사업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당사업과 당회의에 대한 당원들의 책임감을 제고시키며 당사업을 발전 개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당날을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당단체들은 적극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당날실시에 있어서 일부당 지도간부들과 당원들이 그의 기본방향을 옳게 인식하지못한 결과에 당날을 휴식일로 간주하며 당날을 학습일과 같이 생각하며 또는 도(道)적으로 유일하게 제정한 당날을 자기마음대로 변경하며 당날을 가능한 정도에서 지킬것이라는등 사실까지 있었다。 이러한 그릇된 견해들을 시급히 청산하기 위하여 평남도당부에서는 구체적 지시를 주어 당날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추진시킨 결과에 지금에 와서는 극소수의 세포를 제외하고는 매개세포에서 제정된 당날에 세포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세포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던 세포들에서 당날 실시후에는 제때에 회의를 가지게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세포회의에 당원들의 참가률이 제고되고있다。

둘째로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일부 당지도간부들과 당단체들이 우리당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맑쓰—레닌주의적 리론교양을 위한 당정치교양 사업을 소홀히 취급하는 엄중한 결점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각급당단체들은 당정치교양사업에 있는 일체형식적 사업작풍들과 온갖

혼잡성들을 일소하고 당교양사업의 사상적 내용을 제고시키며 당원들에게 계급적 각성과 당성을 강화시키며 당원들을 승리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충성심을 제고시키는 정신으로 교양할것을 강조하였다。

평남도당단체에서는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에서 제기된 당정치교양사업부문의 과업들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하급당단체들에 대한 강력한 지도와 방조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즉 세포학습망들을 당원들의 수준별에 의하여 철저하게 개편하며 세포학습회 지도자들의 선발과 그들의 정치리론수준을 제고시킴으로써 세포학습회의 정치사상적 내용을 충실케 하기위하여 백방의 대책을 강구하고있다。 동시에 하급당단체들의 정치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할 목적으로 직접적 지도와 방조사업을 일층 강화하고 있으며 당중앙본부에서 새로 제정된 유일제강을 하급당단체에서 철저히 집행할수 있게 하기위하여 각시군당부 선전선동부장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의 실행방침들을 토의하였으며 동시에 각시、군당 선전일군들을 위하여 단기 강습회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평남도내 당학습망 체계들이 당중앙에서 요구하는 방향에서 기본상 옳게 조직되었으며 각급당 지도간부들은 당정치교양사업부문에서 가지고 있는 엄중한 결점 즉 다수경우에 있어서 혼잡한 학습체계를 수립하고 산만한 학습회의 진행된 화수、학습회에 망라된 당원의 수효통계로써 지도하는것으로 그 사업을 평가하려던 형식적 사업의 해로운 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적관심을 더욱 높이게 되었으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었다。

셋째로 경제과업 실행부문에 있어서 평남도당단체는 자기에게 부과된 二개년인민경제계획 예정숫자의 승리적 달성을 보장하며、당적협조사업에 대한 중앙위원회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적극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과업 실행을 위한 당의 협조사업에 있어서 도당단체는 부분적 당단체들이 범하고있던 당사업과 국가 행정경리사업을 혼돈시키는 결함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정부의 결정집행과 생산계획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당사업의 정치적 내용과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보장할데 대한 중앙위원회의 기본방향에서 자기사업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며 적지않은 사업상 개선을 가져왔다。

평남도당부는 평양화학공장、사동련탄공장、삼신탄광、순천화학공장、성흥광산등 생산직장내 당단체들에 도당책임일군을 직접 파견하여 지도하고 그 경험을 도내 전반적 생산직장내 당단체들에 일반화하였으며 특히 생산계획 실행을 위한 조직 정치

사업에서의 결점들을 시정할데 대하여 지도를 주었다。

도당부에서는 전체 로동자들이 애국적 생산경쟁운동을 조직함에 있어서 사동련탄공장에서 일어난 개인맹세운동을 도내전체 생산직장에서 광범히 전개하며 각급당단체들은 당원들로 하여금 이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모범적 역할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三월十五일 현재 개인맹세운동에 참가한 로동자수는 一만여명에 달하였다。 평남도당부는 이 사업을 더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직업동맹단체들을 통하여 경쟁반을 강화하며 그들의 생산의욕을 일층높이기 위한 선전 해석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개인맹세운동에 참가한 개천탄광 봉천분항 로동자들은 · 경쟁반과 검열반을 강화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백여명에 달하는 열성당원들이 · 자기 책임량을 一五〇%로부터 二一一%까지 실행하였으며 개천탄광 기전계에 소속된 당원들은 기술전습의 질적수준을 제고시킬것을 자기들의 투쟁목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노력한 결과 많은 기능자를 양성하였다。 이리하여 개천탄광은 자기계획을 넘쳐 실행하였다。 또 안주탄광 당단체에서는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결정실행방침을 토의하면서 생산조직과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도급제 실시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가지고있던 결함들을 철저히 시정하였으며 경제파업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기술창안운동의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기술자 및 로동자들의 창의발명운동을 적극 추진시킨 결과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농촌당단체들의 기본과업으로서 농촌 경리발전에 대한 二개년인민경제계획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지방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을 적극 방조하며 광범한 농민대중속에서 국가의 결정과 시책들을 철저히 해석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의 리해관계를 국가적 리해에 결부시키도록 하며 경지면적의 확장과 수확고 향상을 위한 영농방법의 개선 농촌문화보급등 제반사업에 있어서 당원들의 창발력과 선봉적 역할을 제고시키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를 전후하여 지나간 수개월은 금년도 농산부문의 경제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로 되었다。

평남도당단체는 춘기파종준비사업을 성과있게 진행하며 조림식수사업과 관개수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보장하며 특히 공예작물의 파종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준비사업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온갖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평남도당위원회는 춘기파종 준비사업에 있어서 당면한 과업으로서 다음과같은 준비사업을 미리부터 철저히 실행할것을 도내 각급농촌당단체와 당원들에게 제기하였다。

ㄱ、자급비료를 발에는 정당十톤、논에는 十五톤이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화학비료를 제때에 교역준비 하도록 하며

ㄴ、공예작물을 적당한 토지에 재배하도록 정확하게 선전하며 특히 면화적지에는 집중적으로 재배하여 그 수확고를 높일 것이며

ㄷ、우량종자를 확보하며 농기구 수리 및 부족농기구 준비사업을 충분히하며 기설관개 수리공사를 제때에 완료하도록 협조보장할것등 문제이다。

도내 각급당단체들은 이상과 같은 당면한 제과업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시켜 룡강、강서군을 위시하여 대동、순천、중화、평원、안주등지에 一五八개소의 면화 집중재배지구를 선정하였다。 또 과거의 낡은 영농법을 버리고 새로운 선진적 영농방법으로 단위 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영농강습회를 조직하는 사업에 적극협조하였으며 특히 三월十七일부터 수도온상 및 냉상묘 재배방법에 대한 기술전습회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각급당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당원들은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수도 온상묘 실시는 五五〇여개소에 달하며 수도묘판 방풍장 설비는 六만三천여 농호에서 실시하였다。 동시에 대맥파종은 四월二十五일 현재로 一〇七·四%로 넘쳐 실행하였다。

넷째로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二차회의에서 채택된 공화국 지방주권기관 선거실시에 대한 결정은 공화국헌법에 의하여 주권기관들의 상부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일층강화하며 더욱 민주화하기 위한 거대한 국가적 정치적 의의를 가진 사업인 동、시、군、구역 인민위원회 대의원선거사업에 각급당단체와 당원들이 총동원할것을 강조하였다。 도내 각급당단체와 당원들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들어 지방주권기관 선거실시에 대한 정치적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선거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강구하였다。 도내의 각급선거위원회에는 九천여명의 로동당원들이 피선되어 열성적으로 자기사업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각급당단체들은 선거승리를 보장하며 고상한 정치적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선전사업에 가장 우수한 당선전원들을 총동원하여 각 선거구와 분구마다 선전원들을 훈련배치하며 호별방문 보고회、좌담회、강연회등 온갖 방법을 취하여 광범한 선거선전사업을 전개하였다。 선거간빠니야 기간을 통하여 우리당 선전원들은 남조선 괴뢰와 민족반역자들이 선거를 조해하려는 반동적 시도들을 폭로분쇄하며 그들의 매국적 행동과 매국괴뢰「정부」를 폭로분쇄하며 미군 즉시철거와 미제국주의자의 조선침략

도구인 소위 「유·엔 신 조선위원단」의 정체를 폭로하며 그들을 배격하는 대중적 선전사업들을 전개하였다。이와같이 하여 도、시、군、구역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사업은 우리당의 주동적 역할과 민전산하에 집결된 각정당사회단체들의 헌신적 투쟁에 고무된 전체 인민들의 고도로 앙양된 애국적 열성으로써 빛나는 승리를쟁취하였다。

× × ×

이와같이 평남도당단체에서 당중앙위원회제五차회의 결정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행정에서 여러가지 결점들이 나타났으며 아직까지 적지않은 결점들을 가지고있다。당단체의 력량은 우리당정책의 정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원들의 자각성과 열성에있다。그러나 아무리 정확한 정책과 로선이 제시되였다 할찌라도 그의 승리는 저절로 오는것이 아니라 승리를 조직하며 쟁취하여야 되는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내의 적지않은 당기관들과 당단체들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제시한 당의 정확한 로선과 결정을 집행하기위한 모든 조직사업에서 부분적 결점들을가지고있다。

첫째로 당기관의 사업은 그 시기에 당위원회앞에 제기되고있는 근본적 중심과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 할것이며 그기관의 전체일꾼들은 그 과업에 대하여 반드시 잘 알아야되며 깊이 인식하여야 될것이다。

각급당위원회 각부의 사업은 자기의 책임이 있으며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있다。그러나 그의 모든활동은 전반적 과업에 복종되어야 하며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되어야한다。

이렇게 되는때에 만이 당기관은 정치지도수준을 제고할수 있고 형식적 사업작풍에로 탈선하지않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의 일부 시、군、구역당위원회들은 우리당사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결정실행을 위한 모든 사업조직과 일상적인 지도사업에 있어서 무계획적으로 산만하게 진행되는 형편들을 볼수있었다。무엇보다도 먼저 당중앙위원회의결정을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기관 일꾼들 자신부터 그 결정의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일꾼들은 그렇지 못한 형편을 볼수있다。일부 시군당이나 구역당부 지도원들중에는 최근까지도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잘연구하지않거나 아주 불충분하게 인식하고 그들은 하급당 단체에 나아가서는 당위원회의 일반적 과업으로부터 벗어나고 다만자기부서의 국한된 범위에서 상식적으로 사업을 지도하려고한다。이러한 당일꾼들은 자기부의 위임만을 실행하면서 전체당기관의 활동에는 관심을 두자않고 당의 모든 지시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며 협소한 사무주의자로 변환되는 사실들이 적지않다。일부 당일꾼들 자신부터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에서 제기한 모든 과업들을 마치 일시적인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계속하여 실천하기위한 연구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지않은 각급당단체들에서 당중앙위원회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잘모르고 있으며 그를 실행하기위한 투쟁이 일반적으로 미약하였다。그렇기때문에 각급당기관들과 당일꾼들은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에서 제기한 과업의 주대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자체로부터 그는 더욱 연구할것이며 초급당단체와 당열성자들과의 경상적 련락을 일층 강화하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원조와 지도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당기관의 력량을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의 결정집행을 위한 사업에 집중시켜야 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당지도사업부문에서 지금까지 가지고있는 중요한 결점은 당의 결정집행을 위한 검열사업이 아직까지 미약하게 진행되며 하급당단체사업에 대하여 계통적으로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사업이 미약한 것이다。당회의에서 당단체앞에 제기되고있는 당면과업들을 실천할 적절하고 명확한 결정을 채택하는것은 당지도사업 부문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그러나 결정을 채택한 뒤에는 검열사업이 진행되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꾼들은 당회의에서 결정을 채택한 후에는 종종 그 내용을 잊어버리며 또 그 결정이 어느정도까지 집행되었는가、결정집행을 위하여 어떠한 방조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당연히 있어야할 주의를 돌리지 않고있다。또 당결정집행 여하에 대한 검열사업에서 가지고있는 결점은 일부 시군당부 및 구역당부들에서 지도원이나 열성당원들을 조직하여 하급당단체에 파견함에 있어서 그 과업의 중심적 내용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조하고 지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시키지않고 파견함으로써 사업상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실이 적지않다。그렇기 때문에 검열에 파견되는 부분적 일꾼들은 하급당단체사업에 대하여 부족점을 지적만 하면서 그것을 퇴치하기위한 지도사업과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취하지 못하게된다。이런까닭에 당위원회들은 종종 한문제에 대하여 수많은 결정을 채택하며 많은 검열원을 파견하지만 사업은 한자리에서 움지기지않는 사실들을 볼수있다。

또 일부 당기관들에서는 당일꾼들을 실지사업을 통하여 교양훈련하며 그들의 사업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부족하게 진행된다。각급당기관의 책임간부들은 검열과 지도사업을 위하여 당일꾼을 파견하면 그가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조

하였으며 사업상 개선을 가져왔는가에 대하여 반드시 담화하며 보고를 받고 그의 사업상 우점과 부족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주어야 할것이며 그가 다음에 실행할 과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할것이다. 당일군의 활동은 그가 다녀온 그 당단체의 사업이 어떻게 개선되였는가 하는것으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것이다.

둘째로 아직도 부분적 하급당단체들의 활동과 사업조직은 당적지도의 원칙을 떠나서 자기사업의 한계를 잃어버리며 행정경리사업과 당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옳게 결부시키지 못하고 혼돈하는 사실들이 존재함을 볼수있다. 일부 생산직장내 당단체일군들은 경제과업 실행을 위한 협조사업에서 행정경리 사업을 대신하지 말라고 지적한 중앙위원회의 기본정신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앞으로 행정사업을 대행하지 않기위하여서는 생산에 대한 문제는 경제일군에게 위임하면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있다. 실례를 들면 평양시내에 어떠한 건설공사장내 당단체에서는 건설공사를 보장하기위한 당원들의 선봉적 역활을 조직할데 대한 구체적 대책과 로동규률의 향상, 경제절약, 물자애호, 로력조직의 합리화와 광범한 군중들속에서의 군중정치사업 및 기타 자체 환경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문제들에 대하여 당적주의를 돌리지 않고있으며 상급당의 결정과 지시를 기계적이며 형식적으로 취급하는데 그치고있다.

또는 일부 시군 구역당 지도일꾼들이 직장내당단체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당조직사업에 대하여 세밀한 연구와 검열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직장내 당세포들이 불합리하게 조직되어 八○—九○명에 달하는 많은 당원이 한개 세포로 조직되였으며 교대별 작업에 종사하는 당원을 고려없이 같은 세포에 소속시키었기 때문에 일부 당원중에는 어느때나 당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실들을 아직까지 시정하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포가 자기역활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 당원들의 선봉적 역활이 아주 미약하다. 이러한 당일군들은 「경제적 성과와 그 공고성 및 장구성은 전체로 또는 완전히 당조직적 및 당정치적 사업의 성과여하에 달리었다」는 당적지도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못하고있다.

우리의 국가 사회기관, 생산직장, 운수기관, 농촌및 기타 당단체들의 모든 활동은 전망을 가져야하며 구체적 사업은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전반적 사업과 특히 경제적 및 문화건설사업에 대한 협조는 당의 조직 정치사업의 원칙에 결합되어야 할것이다.

셋째로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에서 중요하게 제

기된 당내민주주의적 원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부분적 당단체와 당지도간부들의 연구와 노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일부세포들이 당회의를 제때에 하지못하며 심지어 일부 면당위원회에서도 二—三개월씩 당위원회를 소집하지않고 문제해결을 위원장의 개별적 지시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향들이 최근까지도 존재함을 볼수있다. 당단체사업수준은 당내민주주의원칙이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것으로써 결론지을수 있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민주주의를 철저히 준수하며 일층강화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활동에서 당사업을 행정화하려는 경향들과 철저히 투쟁하며 집체적 토의방식을 일층 강화하고 당일군들은 항상 조직과 단체의 의사를 존중히 하며 하급당단체및 당원군중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할줄 아는 작풍을 수립하여야 할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광범한 당원들에게 당사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제고시키며 자각성과 창발성을 발휘시킬수 있는것이다.

넷째로 당정치교양사업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앙위원회 결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포학습회를 군중학습회와는 분리하였으나 학습회를 수준별로 개편할 문제들이 철저하게 실시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많은 세포학습회들은 낮은 수준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형식적인 면을 퇴치하지 못하고 룡강, 중화군내 일부 세포들에서는 일주일에 二차이상 세포학습회를 진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세포학습회의 정치사상적 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투쟁이 미약한것을 볼수있다. 오늘 우리당사업에서 당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되어 있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때문에 각급당단체와 당원들은 당정치교양사업에서 가지고있는 일체 형식적 사업작풍과 온갖 혼잡성들을 청산하고 그의 사상정치적 내용을 제고시킴으로써 당원들에게 당성을 강화하고 맑쓰—레닌주의적 선진과학적리론으로 무장시키어 승리에 대한 확신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시켜야 할것이다.

다섯째로 세포내 열성적 핵심당원 양성사업을 시, 군, 구역당 위원장들의 직접지도하에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시킬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업이 불충분하게 진행되고있다. 다수경우에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있는 열성당원 양성사업은 시군당부들에서 세포및 초급당부로부터 제출한 열성당원명단에 의하여 시기적으로 단기강습회들 조직하는데 그치고 일상적인 지도사업에서 그들을 계통적으로 연구하고 실지사업을 통하여 교

양훈련하는 사업이 미약하게 진행되고있다。 때문에 오늘 이부문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결점은 시군구역 당부들에서 자기산하의 매개세포내 세포핵심—열성당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으며 계통적으로 열성당원을 보충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례를 들면 시군당부에서 조직하는 세포열성당원을 위한 단기강습회에 참가하는 일부당원들 중에는 실지세포에서의 역활을 수행하지 못하며 또 수행할수없는 당원들이 참가하였다가는 강습회를 마치고 자기세포에 돌아가서 세포 핵심—열성당원의 역활을 수행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을 게을리하는 사실들까지 부분적으로 존재함을 볼수있다。 이러한 형편은 세포열성당원을 양성하는 사업에서 우리에게 큰 결함이 있음을 말하여 주는것이다。 때문에 각시、군、구역당 책임간부들은 가장 우수한 당열성자들로 세포핵심을 구성하고 그들의 사상정치적 리론수준을 향상시키며 당사업에 대한 경험과 방법을 가르쳐 주기위한 단기강습회들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며 실지 사업을 통하여 그들을 교양하기 위한 사업에 높은 당적주의를 돌리어야 할것이다。

× × ×

조국의 민주주의적 독립과 근로인민의 리익을위하여 복무하는 우리당은 오늘날까지의 투쟁에 있어서 거대한 성과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현하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당앞에 부과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과업을 보다 성과있게 달성하기 위하여 평남도내 각급당단체와 당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에서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기위하여 높은 당적 책임성과 당적 비판의 정신하에서 자기사업의 개선 발전을 향하여 더욱 힘찬 투쟁을 계속전개할것이다。

참 고 자 료

전후시기의 미국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위기의 성격에 관하여

이·꾸지미노브

제二차세계대전은 미국에서 생산을 확대시켰으며 생산가능성을 증대케하였다。그중에서도 무기기재와 군대장비물자의 생산이 기본적으로 증대하였다。一九二九—一九三三년의 공황 그리고 一九三七—一九三八년의 공황의 중압밑에 있던 미국경제가 여러해만에 처음으로 도달한 이러한 생산제고는 전후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할수 있으며 또한 공황없이 발전할수 있다는 갖은 종류의 환상(幻想)과 기만적인『리론』을 소생시킬 기초로 되었다。미국에 있어서는 전쟁시기에『미국의 기록적생산』『미국적 생활양식』을 찬미한 다시말하면 미국의 독점자본주의를 찬미한 굉장히 많은 문건들이 터져나왔다。만일 전쟁전 시기에 미국의 경제학자 정치가들이 一九二九—一九三三년의 공황과 그리고 생산기구의 굉장한 만성적유휴(慢性的遊休)와 대중적인 만성적실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었다고 하면 전쟁시기에 있어서는 전쟁의 제조건에 의하여 생긴 생산증대의 영향밑에서 그들은 또다시『미국만은 례외이다』는 갖은 종류의『리론』을 세상에 끄집어 내놓았다。

부르죠아경제학자들 사이에 전후의 전망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일치되고 있지않는다는 것은 물론이다。전쟁전 시기에 일어난 제사건을 잊어버리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비관적인 예측에 기울어지고 있으며 이리하여『위험한 재전환기(再轉換期)』에는 모든 방면에 세밀한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비지네스·멘(사업가)』들에게 권고하였다。이와 반대로 전시 생산의『기록』에 머리가 몽롱해진 사람들은 전후 시기에 있어서 미국이『번영』하리라는것과 공황없이 발전하리라는것을 예언하였다。이점에 있어서 一九四六년에 발행된 하롤드·로브의 저서『전쟁없는 완전한 생산』이라는 책이름이 아

수 특경적이다。이 저서의 기본적인 주제는 전쟁후에 있어서도 미국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공황과 파탄이 없이 상승선을 좇아서 발전되어 나가리라는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다。미국자본주의의 기타의 많은 대변자들도 이와 똑같은 립장에 서있는데 이에 있어서 그들의 다수는『국가의 조절』에다가 혹은 다른말로 말하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발전에다가 기대를 걸고있다。

역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학자들도 전후 자본주의나라들에 있어서 불피코 생산이 제고되리라는 명제를 옹호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발표물에 관하여 회상하지않을수 없게 된다。여기에 우선 학사원 회원 봐르가의 이름을 들지않으면 안된다。

보통『전시수요(戰時需要)』의 격심한 감축을 의미하는 전쟁으로부터 평화에로의 이행은 자라난 생산능력과 대중의 지불능력있는 수요와의 사이의 모순의 첨예화를 낳게할 것이며 또한 불피코 그것은 생산의 저락을 가져오며 경제적 혼란을 가져올것이라는 것이 맑쓰주의의 견지로보아 미국이 전쟁시기에 생산이 제고되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오직 하나의 정당한 결론으로 될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사원 회원 봐르가는 미국과 기타의 수개국의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전후에 즉시 불가피적으로 생산이 제고되리라고 예언하였다。一九四五년초에 세계경제 및 세계정치연구소에서한 보고에서 봐르가는『전쟁시기에 생산기구가 그대로 보존되었거나 또는 확장된 나라들에 있어서는 전후에 三—四년동안 경기의 상승을 기대할수있다』(『세계경제 및 세계정치』지 一九四五년 제二—三합병호 八○페지)라고 주장하였다。학사원회원 봐르가는 그 다음에 이 견해를『제二차세계대전의 총결에 있어서의 미국경제의 제변화』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발전시켰다。이 저서의 二六九페지에서 봐르가는 손상당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개선된 생산기구를 가진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는 전쟁이 끝난후에 향상의 국면(向上의局面)을 체험할것이다라고 썼다。학사원 회원 봐르가는 자기가 예언함에 있어 부르죠아지의 어용학자들에 의하여 기를 쓰고 광고한 소위『축적된 수요(蓄積된需要)』리론에서 출발하고있다。이 리론은 결국 말하자면 자본주의나라들의 근로자들은 전쟁시기에 돈벌이를 잘하였으며 공급이 수요보다 뒤떨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임금을 완전히 소비 못하였다는 결론이 된다。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임금을 저금소에 저축하였다는것이다。봐르가의 표현에 의하면 전후에 이『축적된 수요』는 불가피적으로『계절적으로 상품시장으로 달겨들것이며』또한 그것은『많든 적든간에 공급보다도 시장에대한 수요가 오랫동안 초과하리

라누데서 자기의 표현을 발견하게」될것이라는것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향상의 기초가 되리라는 것이다。

「축적된 수요」라는 개념은 르·메멜쏜의 제론문에서 철저하게 전개되었다。그는「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시기에 있어서의 위기와 주기(週期)」(「세계경제 및 세계정치」지 一九四七년 제十一호) 라는 론문에서 다음과같이 쓰고있다。즉 전쟁시기에 있어서는 심지어 미국과같은 그러한 나라들에 있어서도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뒤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며「축적된 수요」가 그 표현으로되는「생산부족」이 생긴다고한다。이리하여 전쟁시기에 마치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더 이상의 빈곤이 생기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풍족하게 된다는 것이며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이 날카롭게되는 전제조건이 조성되는것이 아니라 전후의 생산제고의 전제조건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축적된 수요」라는 대변자적「리론」이 맑쓰주의와 하등의 공통점이 없다는것은 더 이상 장황(張皇)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다。이「리론」은 평화시기에 있어서나 전쟁시기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법칙인 자본주의제도하에 있어서의 로동계급의 절대적 및 상대적빈곤의 법칙과 상극으로 모순되는 것이다。「축적된 수요」라는 리론은 현실과는 상극으로 모순되고있다。만일 제二차 세계대전시기에 미국주민들한테 어느정도의 재물이 저축되었다고 한다면 이 재물의 대부분은 바로 가장 부요한 상층주민의 수중에 집중되었던 것이다。절대적 대다수의 근로자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들한테는「마가진 오브 웰·스트리트」의 평론가인 크라우스의 인정하는대로「저금이라고는 전연 없거나 혹은 극히 적다。」이 극소의 저금도 실업자의 증대와 임금의 인하 그리고 인프레이슌의 영향을 받아 전쟁이 끝나자 경기를 높이는데 실제적인 영향도 주지못하고 급속히 없어지고 말았다。

× × ×

현실은 미국의 부르죠아적 경제학자와 그들과 장단을 맞춘 학사원 회원 바로가의 교만스러운 예언을 무자비하게 비웃었다。

전쟁의 완료는 어떠한 새로운 향상이라든가 새로운「번영」을 갖다주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도리어 미국 영국 카나다 및 기타의 여러나라에 있어서 생산의 급격한 저락을 가져온것은 당연한 일이다。즈다노브동지는 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 제二十九주년기념 보고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전후에「경제적 및 정치적 대 위기와 결부되어있다。자본주의나라들에 있어서의 전쟁으로부터의 평화시기에로의 이행은 시장의 격심한 갈

축과 생산수준의 저락과 기업소의 폐쇄와 실업의 증대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다。이점에있어서 미국에 있어서의 경제적 바로메터는 아직 전쟁이 끝나기전에 벌써 떨어지기 시작하였다。쏘베트군대가 히틀러의 대군을 서쪽으로 내쫓아버리자마자 미국 카나다 영국에 있어서의 공업생산의 그라프곡선은 아래를 향하여 기어내려갔다。미국의 부르죠아경제학자 및 정치가들이 미국생산의 기록들과「자유」경제의 우월성 다시말하면 자본주의적경제의 우월성에 관하여 아직도 떠들어대며 학사원 회원 바로가가 전후의 미국경제의 향상이라는 자기의 예언을 조작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제는 벌써 언덕길을 내려가고있었다。독일 및 일본과의 전쟁의 완료는 이미 개시되고있던 생산저락을 더 한층 충동하였다。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인용하는 숫자를 보기만해도 충분하다。

미국의 공업생산의 경과 (1939년=100)

명 칭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공업전체	115	149	183	219	216	186	156
가공공업	116	154	194	237	231	197	162
장기사용상품	128	184	256	330	324	251	176
단기사용상품	106	130	145	161	157	18[illegible]	150
흑색야금(강철제련)	127	157	163	168	170	151	122
기계제조	131	212	327	426	422	330	231
운수수단생산	141	238	450	714	698	473	※214
섬유	102	136	140	137	13[illegible]	130	144
식료	105	118	124	134	141	140	139

※ 1946년 9월 초순

이리하여 미국의 생산은 이미 一九四三년에 그 최대한에 달하였었다。그후에는 생산은 저락하였다。이에있어서 一九四六년의 생산지라은 一九二九ㅡ一九三三년의 공황만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공황려사상에 일찌기 보지못하던 그러한 규모에 달하였다。一九四六년의 미국공업의 전체 생산고는 一九四三년에 비교하여 二九% 저하하였고 가공공업 생산고는 三二%、장기사용상품 생산부문 생산고는 四七%、기계제조생산고는 四六%、운수수단 생산고는 七%로 저락하였다。기계제조생산의 수개부문과 운수수단생산은 더 대폭적으로 그 생산고가 저락하였다。례를 들면 一九四六년의 합섬생산고는 一九四三년에 비교하여 거의 二十배나 저락하였고 공작기계조립(組立)(공작기계의 준공ㅡ竣工)생산고는 四배나 저락하였다。만일 매개 부문을 전시의 최고점과 一九四六년의 최저점과 비교한다면 생산의 저하수준은 더한층 떨어질것이다。례를 들면 一九四六년二월의 미국가공공업의 생산수준을 一九四三년十一월의 전시의 최고점과 비교한다면 三八% 저하하였고 상기의 기간에 장기사용품생산은 六三% 저하하였으며 운수수단생산부문의 생산고는 같은 기간에 七五%나 저하하였다。

이에 있어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으로서 가장 심각하게 타격당한 부문의 생산저하가 일용품생산부문을 그대로 두지아니하였다는것을 강조하는것이 중요하다。일용상품도 포함한 단기사용상품생산부문의 一九四六년의 생산고는 一九四三년에 비교하여 七% 저하하였다。그중에 춤의 소매가 一八% 저하하였다。악명 높은 「축적된 수요」는 아무 도움을 주지못하였다。

독일 및 일본과의 전쟁의 완료는 미국에서 기업소의 대량적폐쇄、로동자의 해고、수많은 소농장의 령락、실업의 증대를 야기하였다。一九四五년八월에 아쓰시에이테드·프레쓰의 특파원은 공업상태에 관한 특별론문에서 공장의 대량적폐쇄와 로동자의 해고에 관하여 보도하였다。미국의 가공공업에 종사하는 로동자 및 사무원의 수는 一九四三년에 一、七四〇만명이었던것이 一九四六년에 가서는 一、四一〇만명으로 감소하였다。아주 적게 계산된 관제통계에 의하여도 一九四六년에는 완전실업자의 수가 一二三〇만명이었으며 반(半)실업자는 五四〇만명에 달하였다。독점자본가들은 실업자의 증대를 임금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리용하기에 등한히 하지아니하였다。로동자들은 할수없이 파업을 일으키지 않을수 없었다。一九四五년과 一九四六년은 미국에 있어서의 대규모의 파업운동으로써 특징지어졌다。一九四五년에 미국에는 四、七五〇건의 파

업이 있었고 이 파업에 三四七만명의 로동자가 참가하였으며 一九四六년에는 四、九八五건의 파업이 있었으며 이 파업에는 四六〇만명의 로동자가 참가하였다。

이러한 조건밑에서는 「축적된 수요」란 빈말로밖에 남지않았다。이미 一九四六년에 미국의 저금소들에 있는 예금은 一九四四년에 비교하여 거의 三배나 감소하였다。이번에는 인프레이슌이 서금의 구매력을 대폭적으로 저하시켰다。「축적된 수요」는 어떠한 향상을 확보하지못하였을뿐 아니라 워즈네쎈스끼동지가 지적하는바와같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결과의 자본주의적 점유방식과의 사이의 모순이 장성하여가는 정세하에서」 발생하는 전후 미국에 있어서의 불가피적인 생산저하를 예방할수 없었다。세계경제연구소에서 전에 일하고 있었던 수명의 일군들은 미국과 기타 나라들에서 一九四四—一九四六년에 생긴 비정상적인 생산저하를 생산에 있어서의 약간의 크지아니한 고장(故障)의 형태로 표시하려고 시도하였다。그들은 이 고장을 「재전환(再轉換)」이라고 다시말하면 군수품생산에서 대중필수상품 생산에로의 기업소의 단순한 전환이라고 설명하고있다。그러나 전쟁으로부터 평화에로의 자본주의경제의 이행은 결코 단순한 「재전환」이 아니다。다시말하면 다만 그것이 개개의 기업소의 기술상의 조직개편이 아닐뿐 아니라 「전시수요(戰時需要)」에 있어서 팽창된 자본주의적 생산이 시장의 새조건에 자연발생적으로 순응하려는 복잡하고 곤난한 과정인 것이다。부르죠아경제학자들은 「재전환」이라는 술어(術語)를 가지고 미국의 전후경제발전의 위기의 성격을 은폐하려고 노력하고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一九四四—一九四六년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저락은 보통적인 경기변동(景氣變動)의 한계를 훨씬 넘고있다。이에 관해서는 비상히 심각한 생산의 저락、그 장기성(長期性)、그 광범한 성격이 말하고있다。

학자원회원 빠르가와 그 추종자들은 전쟁시기에 있어서는 마치 위기의 전제조건이 성숙될수 없다는듯이 주장하고있다。이 견해의 대표자의 견해에 의하면 위기의 전제조건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전후의、새로운 「정상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는것이다。이러한 주장의 기초로 되는것은 전쟁이란 마치 자본주의경제와는 관계없는 떨어진 그 무엇이라는 개념이다。그러나 쓰딸린동지가 지적하고있는 바와 갈이 「전쟁은 자본주의나라들에 있어서 로동계급에 대한 착취와 마찬가지로 필연적이며 법칙적인 상태인 것이다」。현대의 세계대전쟁은 독점자본주의의 기반(基盤)위에 서있는 세계의 경제적 및 정치

적 력향의 발전으 합법칙적인 결과인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전쟁과 전쟁시기를 자본주의경제체계에 있어서(특히 말하자면 전쟁이 자본주의의 필요품으로 들어간때인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시기에 있어서) 어떠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관찰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함은 물론이다。

전쟁의 영향은 전쟁이 자본주의적회전을 변형시킨다는데에, 그 「정상적」인 경과를 변경시키는데에 나타난다。 례를들면 전쟁은 위기를 완화할수 있으며 군수품 주문에 의하여 경기의 소생과 향상을 야기시킬수있다。 바로 그러한 사태가 一九一四년에 있었다。 이때에 시작되고 있었던 위기는 완화되고 그 다음에 군수품 주문의 영향밑으로 「빨려들어갔다」。 그러한 사태가 一九三九년에도 있었다。 이때에 미국 영국 및 기타의 나라들에 있어서의 경제위기는 전쟁의 영향밑으로 빨려들어가고 소생과 향상으로 넘어갔다。 워즈네쎈스끼동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러나 전쟁시기에 미국에서 도달한 자본주의적축적, 로동생산성, 생산기술의 높은 수준은 자본주의에 고유한 모순을 첨예화하며 파괴적인 경제공황과 만성적실업의 기초를 맨들어낸다」

전쟁은 생산력부분의 막대한파괴의 결과로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을 일시적으로 억제한다。 전쟁은 생산력과 생산제관계 사이의 모순이 특별히 심각하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생산력부분의 파괴의 가장 날카롭고 가장 심각한 형태이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면서 전쟁은 동시에 이 모순의 새로운 첨예화, 새로운 폭발, 새로운 위기에 필요한 기초를 쌓아올린다。

전쟁은 일련의 나라들에서 늘어가는 「전시수요」를 그 기초로하는 자본주의의 생산가능성의 장성을 촉진시킨다。 동시에 전쟁은 자본주의나라들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더한층의 빈곤 즉 소비에대한 수요(需要)의 감축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제도하에서의 로동계급의 상대적 및 절대적 빈곤법칙은 전쟁시기에 첨예화된 형태로 작용한다。 전쟁의 완화와 「전시수요」의 심각한 감축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자본주의의 증대된 생산가능성을 지불능력이 감축된 대중의 수요와 대립시키며 이리하여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의 격렬한 첨예화를 폭로한다。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법칙은 전쟁시기에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작용한다。 만일 어떤 나라들의 경제가 전쟁의 영향밑에 손해를 받아 수년이나 때로는 十년이나 과거로 밀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 전선(戰線)에서 멀리떨어진 곳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 즉 미국 카나다와같은 나라들에 있어서는 전쟁은 도리어 생산의 제고와 생산가능성

의 장성에로 이끈다。 전쟁시기에 미국에 있어서의 경제발전은 직접적으로 생산과 소비사이의 그리고 소비에 대한 대중의 감축된 수요와 엄청나는 「전시수요」위에서 증대된 생산가능성 사이의 모순이 더한층 첨예화할 기초를 구축하였다。

× × ×

미국의 독점자본주의는 생산의 더한층의 저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국의 로동계급 및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 그들의 생활수준의 저하, 그리고 군국화(軍國化)와 군사비 지출의 증가, 또한 기타의 자본주의 나라들의 근로자들에대한 착취에 의하여 첨예화된 미국경제의 모순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경련적(痙攣的)인 노력을 다하고있다。

미국에서 로동계급의 착취를 강화하고 있다는 명확한 표시로 되는것은 한편으로는 미국독점자들의 리윤의 증대와 다른편으로는 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임금의 저락이다。 전쟁시기에 리윤이 (세금지불전) 최고수준에 달한 것은 一九四四년이었으니 이때의 리윤은 一九四〇년의 약 九三억딸라에 대하여 二五七억딸라의 거액에 달하였다。 一九四五—一九四六년에 약간의 동요가 있은후 미국 독점자본가의 리윤은 위를 향하여 기어올라가 一九四七년에는 약 三백억딸라로 되어 一九四四년의 수준을 초과하였다。 이에있어서 생산이 전시수준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저락하고있는 조건하에서 리윤이 전시의 최고점보다 증대되고 있다는 사태에 주의하여야 할것이다。 미국독점자본가들은 로동계급의 생활수준에 광범한 공격을 전개하였다。 가공공업에 있어서의 로동자 및 사무원의 수는 一九四六년에는 一九四三년에 비하여 八〇•七%로 감소되었으며 지불한 임금총액은 六七•三%로 축소되였다。 다시말하면 실업자가 증가하였을뿐 아니라 취업로동자의 평균임금이 몹시 저하하였다。 인프레이슌과 가격동귀의 결과로 실질임금은 더욱 저하하였다。

미국의 근로자들에대한 략탈은 실업자의 증대, 임금인하, 물가등귀의 장성의 로선에 의해서 뿐아니라 세금의 압력에 의하여 나사못을 조이며 팽창된 군사예산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군수공업을 처리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장려금 및 증여품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로동자 및 사무원의 호주머니에서 짜아내는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고있다。

미국의 전쟁시기에 있어서의 막대한 군사비 지출은 높은 갑작경기의 기초이었다。 이 군사비지출은 전쟁완료시에 그 근거를 상실하고 이리하여 군사예산은 중심이 없어졌다。 만일 군사예산이 전쟁전시기의 수준에 까지 돌아선다면 다시말하면 미국공업의 동원해제 그 「첨예한」이 완전히 된다고 한다면 一九四四—一九四六년시기와 생산저하는

전률할만한 규모에 달하였을 것이다。그러나 독점자본가들의 지배적 분자들은 미국의 정책을 새전쟁의 준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이것이 전후시기의 막대한 군사예산의 규모를 결정한 것이다。一九四七—一九四八년의 미국군사예산은 一一○억딸라로 되었으며 이것은 전쟁전의 군사비지출액의 十一배를 넘었다。一九四八—一九四九년의 미국 군사예산은 총액 一五二억딸라로 계획되고 있으며 이것은 전쟁전의 군사예산의 十五배를 넘는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예산에는 군사적목적을 위한 지출을 캄프라쥬하는 허다한 조항이 있다。「미국의 군국화」라는 소책자의 필자들은 무력 및 이에 직접 관계되는 조직에대한 지출이 一九四七년에는 총예산의 五四%가 되며 一九四八년에는 六六·三%가 된다고 계산하고있다。

이리하여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은 군사예산의 저하를 위기적 모멘트에 멈추게 하였으며 군사예산을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그러나 막대한 군사예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막대한 무력의 유지와 막대한 군수품주문의 유지를 의미하며 그것은 대군수공업의 유지를 의미한다。이러한 사정은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이 공업생산의 저락을 약간 막아낼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은 미국경제의 가장 첨예화한 모순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발견하려고 국외시장에대한 미칠듯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은 국외시장에 있어서의 미국의 주요한 두 경쟁자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떨어져나간 조건하에서 그리고 구라파의 나라들 특히 영국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약화된 조건하에서 그와 반면에 미국자체가 경제적 군사적 제관계에 있어서 강화된 조건하에서 진행되고있었다。이 모든것은 미국이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대외시장에서 그중에도 구라파에서 가장 중요한 립장을 차지하겠금 하였다。

월·스트리트의 사업가들의 메리케트한 표현에 의한다면 미국은 전쟁시기에 「민주주의 병창고」라는 자기의 지위를 새로운 판매시장에 침투하기 위하여 리용하였다。이점에 있어서 차관(借款)이 커다란 역활을 놀았다。미국의 一九四四년도의 수출은 차관(借款)을 포함하여 一九三九년의 三一억딸라(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하여)에대하여 一四一억딸라에 달하였다。전쟁의 완료와 차관설정의 철폐는 一九四六년도의 수출을 九五억딸라에까지 저락시켰다。만일 공포심에 쫓기는 독점자본의 두목들이 새로운 판매시장과 투자를 위한 미친듯한 투쟁을 전개하지아니하였다면 저락은 보다더 컸을 것이다。바로 이해에 팽창주의적인 「트루맨교서」와 「마샬안」이 발표되었던것이다。이 결과로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은 대외무역의 저락을 막아냈을뿐 아니라 그것을 증대시키기까지 하였다。미국의 一九四七년의 수출은 약 一五○억딸라였는데 그것은 一九四四년의 전쟁시기의 최고액을 초과하는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의 전체무역중에서 一九三八년에는 겨우 一三·五%밖에 이루지 못하였던 미국의 몫은 一九四六년에는 三○·五%로 一九四七년에는 三二·六%로 증대하였다。영국의 독점자본가들의 수출을 강화시키기위한 막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一九四七년도의 세계무역에 있어서의 영국의 몫은 一九三八년의 수준(一○·三%)에 머물고있었다。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은 독일과 일본의 탈락후에 세계무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리득을 획득하였다。그런때 전쟁전에 있어서의 면직물(綿織物)의 중요한 수출국은 영국과 일본이었다。一九三七—一九三八년에 영국은 一六억평방야드(平方碼)의 면직물을 수출하였으며 일본은 二四억평방야드를 수출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미국은 겨우 二억七천八백만 평방야드밖에 수출하지 못하였다。一九四七년에는 미국이 면직물의 중요한 수출국으로되어 一四억평방야드의 면직물이 수출되었다。영국의 수출은 六억三천一백만 평방야드로 일본의 수출은 三억九천四백만평방야드로 떨어졌다。흑색금속(黑色金屬)수출부문에 있어서 이와 똑같은 형편을 볼수 있다。一九三八년에 一二七만三천톤의 금속을 수출한 독일은 전쟁전에 있어서 구라파나라들에 대한 흑색금속의 주요한 수출국이었다。一九四七년에 미국은 구라파에로의 흑색금속 수출에 있어서 제一위로 진출하여 독일의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기타의 수출국을 강력히 압박하였다。이와 꼭 마찬가지로 미국은 시장으로부터 다른 석탄수출국을, 우선 독일, 영국을 몰아냈다。미국은 一九四七년에 一九三八년의 一천二백만톤에 대하여 八천만톤을 수출하였으며 영국은 三천七백만톤에 대하여 六백만톤을 그리고 독일은 三천만톤에 대하여 약二천一백만톤을 수출하였다。(「대외무역」지 一九四八년 제五호 一七페지。제七호 八—一六페지에서)

미국의 이러한 종류의 수출의 증대는 정상적이 아니다。이러한 증대는 다른나라들의 근로자의 희생에 의하여 자국의 과잉생산의 외국에대한 수출에의하여 미국경제와 가장 첨예화된 모순에서 빠져나가기위한 미국독점부르쥬아지들의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이러한 수출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마샬안」이다。「마샬안」은 구라파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의 경제적 독재이며 그것은 미국시장에서 판로를 찾지못한 상품들을 강제적으로 팔아먹자는 수탈인 것이다。「마샬안」은 미국독점자본가들에 대해서

그톨의 대외무역에대한 국가융자(國家融資)의 수단이며 국가에 의하여 보장된 미국의 과잉생산품 대외수출의 수단인 것이다。

몰로또브동지는 사회주의十월혁명 제三十一주년 기념보고에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구라파에서 「마샬안」을 둘러싸고 일어난 대소동은 만인이 다 아는바이다。 이 계획은 구라파 경제의 전후부흥을 위한 구원사업이라고 선전되고있다。 만일 영국 및 불란서의 어떤 정치가들의 말을 들어본다면 그들은 「마샬안」에 의한 미국의 크레지트가 없다면 마치 구라파 나라들의 경제적 부흥을 보장할수가 없다는듯이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크레지트계획에 의하여 금년에 구라파 자본가들의 포케트로 들어간 미국의 딸라는 구라파의 자본주의 나라들의 공업을 진정으로 향상시키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의 크레지트는 미국과 경쟁하고있는 구라파국가들의 공업을 부흥시키고 향상시킬사명을 맡은것이 아니라 구라파에 있어서 미국상품의 보다 광범한 판로를 확보하기위한 그리고 구라파 인민들의 리익자체는 고려하지않고 구라파국가들을 미국의 지배적인 독점자본가들의 경제적 및 정치적예속으로 내세우기 위한 사명을 맡아가지고 있기때문에 구라파의 자본주의 국가들의 진정한 공업향상을 시킬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수출은 최근에 미국의 「원조」의 대상으로 내세운 나라들의 시장을 미국의 스톡크상품을 가지고 충만시키며 지방기업소의 폐쇄 실업자의 증대를 초래하였다。 미국인의 침투는 전후 회복치 못한 구라파 및 기타의 나라들의 경제부흥에 지장을 주고있을뿐 아니라 도리어 후퇴시키고있다。

미국의 「원조」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하는 뚜렷한 실례는 국민당통치하의 중국의 경제이다。 미국독점자본가들은 전후에 중국시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위치를 자기수중에 장악하였다。 一九四七년에 중국의 수입(輸入)전체의 五二%가 미국의 몫으로 떨어졌다。 중국에 있어서의 미국상품의 범람(氾濫)은 중국경제에 파괴적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중국내부의 생산의 저락、지방의 공장 제조소의 폐쇄、실업자의 증대를 초래하였다。 전중국공업협회(全中國工業協會)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이 항복한 때로부터 一九四六년十월一일에 걸쳐서 사천(泗川)、운남(雲南)、귀주(貴州)、산서(山西)、감숙(甘肅)、청해(青海)、녕하(寧夏)、신강(新疆)의 제성(諸省)에서는 총수 五八九개소의 공업기업소중 四四五개소가 폐쇄되었으며 六○만 이상의 로동자들이 직업을 박탈당하였다。 국민당통치하의 기타의 지방들에서도 이와마찬가지의 광경을 볼수있다。 례를들면 한구(漢口)에서는 一九四六년

十월에 이르러 중국담배공장의 九○%가 폐쇄되었으며 중국면직물공장의 七五%가 폐쇄되었다。 광동에서는 一九四六년二월부터 八월에 걸쳐 九九개소의 중국권연(卷煙)공장중에서 七六개소가 폐쇄되었다。 광동에는 미국의 비행대와 함선에 공급되고있던 「트루멘」이란 상표가 붙은 권연이 범람하고있는데 이것은 물론 통례에 의하여 조금도 관세가 붙지 아니한 것이다。 미국의 경쟁의 압력밑에서 중국의 생산은 조락(凋落)하게 되었다。 一九四七년의 중국의 차(茶)생산은 겨우 六천톤밖에 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은 一九三三—一九三七년의 평균생산량의 一八%밖에 되지않으며 동유(藤油)생산은 절반으로 감소되었고 솜의 채집은 전쟁전 수준의 三五%로、전력(電力)생산은 五一二%로 감소되었다。 전쟁전생산에 비하여 一九四六년의 중국에 있어서의 석탄채굴은 四五%、불프람은 二二%、석(錫)은 一五%밖에 되지아니하였다。

지방생산의 고갈(涸渴)、조업중(操業中)의 공장의 폐쇄、실업자의 증대에 있어서 「마샬안」의 「은덕(恩德)」있는 영향을 받고있는 구라파 나라들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광경을 볼수있다。 다아는바와같이 미국독점자본가들은 아태리의 시장에서 현재 주인노릇을 하고있다。 그결과로 一九四七년에 제고되었다는 이태리의 공업생산이 一九三八년의 수준에 비하여 七三%로 떨어졌으며 一九四七년十一월에는 六五%로 떨어졌다。 실업자의 수는 一九四八년一월에 이르러 二백만명으로 늘었다。 一九四八년중에 실업자수는 계속적으로 증대하였으며 이리하여 九월에는 三백만명이 되었다。 전이태리로동련맹 민족회의에서 채택된 이태리의 경제적상태에 관한 결정서에는 다음과같이 씌어있다。 「경제적 및 사회적 령역(領域)에 날카로운 위기가 발전하고있다。 ……현재의 위기는 주로 생산고의 감축、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실업자、적자예산(赤字豫算)의 증가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불안、수입초과(輸入超過)과산과 수형접수거부(手形接受拒否)가……증대하여가는 것으로써 특징지어지고있다」。

백이의(白耳義)의 경제가 막대한 곤난을 경험하고있다。 서서(瑞西)의 신문 「노이에·츄르헤르·짜이퉁」지는 九월八일호에서 백이의의 경제가 이미 수개월동안에 위기속에 처하여있다는것을 지적하였다。 례를 들면 백이의의 석탄공업은 미국의 석탄수출의 중압밑에서 여지없이 조락아니할수 없게되었다。 백이의에 있어서의 석탄채굴은 전쟁전수준의 七四%밖에 안된다。 탄광의 三분지二는 석탄채굴의 부족으로 인하여 결손을 보고있다。 구라파와 아프리카의 석탄시장은 미국의 독점자본가들

에게 점령당하였다。 백이의에서있어서의 실업자의 총수는 증대하여 八월에는 一五만명으로 되고있다。

하사원 회원 봐르가와 그 동의자들은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상태 사이의 련결을 보지않는다。르·멘델쏜은「영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경제문제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또는 과잉생산의 정기적 위기의 전제조건이 급속히 성숙하고있는 미국의 경제상태와 생산부족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고있는 구라파대륙의 나라들의 경제상태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세계경제 및 세계정치」지 一九四七년 제五호 二페지의 부기—附記)라고 부르짖고있다。

르·멘델쏜이「구라파적 생산부족」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구라파의 자본주의나라들에 있어서의 생산수준의 저탁은 자본주의적 경제기구의 모순의 명확한 표현이며 또한 그것은 미국자본주의의 경제적 팽창과 서구라파 나라들의 근로자들의 빈곤화와 밀접히 련결되고있다。이러한 현상은 현재 영국잡지「에코노미스트」의 한 편집원인 브·월드까지도 인정하고있다。이 녀자는 얼마전에 발행된「서부는 막다른 골목에 부닥쳐있다」라는 특이한 제목이 붙은 자기의 저서에서 서구라파의 자본주의나라들은「현재 심각한 경제적 쇠퇴에 처하여있다」고 솔직히 쓰고있다。물론 브·월드는 구라파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지배하고있는 경제적붕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못하고있다。그러나 세계자본주의경제의 분석에 있어서 밑도 끝도없는 아무것도 련결시키지 못하고있는 우리나라의 수명의 경제학자들 례를들면 멘델쏜과같은 경제학자가 브·월드가 하고있는것쯤도 못하고 있는것은 유감한 일이다。그에게는 구라파의「생산부족」이 十국의 과잉생산과 조금도 련결되어 있지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있어서는 구라파의「생산부족」과 미국의 과잉생산이라는 이 현상들은 밀접히 련결되고있다。구라파의「생산부족」—그것은 현재에 있어서 두말할것없이 전쟁의 결과인 것이다。구라파의 자본주의나라들에 있어서의 경제의 쇠퇴 즉「구라파의 생산부족」은 미국 과잉생산의 반대의 측면이며 그 결과인 것이다。

× × ×

학사원 회원 봐르가의 개념은 전후의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상태에 관한 전광경을 옳지못하게 표시하고있다。이 개념은 전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참으로 심각한 모순을 엄폐하며 자본주의세계의 현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주지못한다。

학사원 회원 봐르가와 그 동의자들은 미국경제가「전쟁후의 향상」또는「전쟁후의 갑작경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확신시키려고하고 있다。르·멘델쏜은 이「갑작경기」를「생산수단에 대해서나 소비재에 대해서나 수요가 높다。가격과 리윤은 올라간다。이것은 재고품의 축적을、자극하며 또한 수요를 더한층 많게한다」(「세계경제및 세계정치」지 一九四七년제十一호一五八페지)고 정·의화하고있다。

이 장황한 말가운데 올바른것은 오직 한가지뿐이니 즉 전쟁후에 상품가격과 미국독점자본가들의 리윤이 올라가고있다는 그것이다。그러나 이 사태는 상품에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조금도 도움을 주지못하고 반대로 그것은 대중의 지불능력있는 수요를 감소시켜버렸다。 전후에 미국자본주의가 하등의 번영도 하등의 향상도 달성하지못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미국의 생산은 전후에 어떠한 향상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반대로 一九四三년의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저락하였다。一九四三년이후 五년이 경과하였고 전쟁이 완료한 후 三년이상이 지나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생산은 一九四三년의 八〇%에 비등한 수준에서 一九四七년에 있어서나 一九四八년에 있어서나 동일점에 답보하고있다。대다수의 생산부문의 생산고는 보다 더 낮은수준에 서있다。례를들면 一九四七년의 화학공업의 생산고는 一九四三년의 수준와 六五%밖에 되지아니하였고 기계조립(機械組立)생산고는 六五%、공작기계생산(준공)은 전부해서 一九四二년에 도달한 전시 최고수준의 二二·六% 밖에 되지아니 하였다。이와같이 이 부문들과 기타의 많은 부문에 있어서도 현재 고정자본의 막대한 만성적 유휴가 현존하고있다。

독점자본가들에 의하여 전개된 미국로동계급의 생활수준에대한 공격(임금인하 실업자의 중대 인프레이슌)은 대중의 지불능력있는 수요의 저하를 가져오고있다。

몰로또브동지는 사회주의 十월혁명제三十一주년기념보고에서 미국로동자들의 임금은 물가등귀에 비하여 몹시 뒤떨어져있다는것、또한 그것은 로동계급의 상태의 현저한 악화를 의미하다는것을 지적하였다。관제통계에 의하면 완전실업자수는 二백만명을 조금 초과하고 있다고하나 완전실업자의 질지숫자는 적어도 이 숫자의 三배로 되어있는 것이다。그런데 한주일동안에 몇날밖에 일하지못하는 반실업자의 수는 관제통계에 의하더라도 八백만이상에 달하고 있는것이다。이 모든것은 필연적으로 로동계급의 구매능력의 저하로、국내시장의 협소화로 이끌고있다。이러한것은 벌써 소매상업의 전환에 나타나고있다。례를들면 미국으로부터의 최근의 보도는 전국에 퍼져있는 백화점의 매상고가 一九

四八년十一월에는 一九四七년十一월에 비하여 저하되었다는것을 말하고있다。

타방으로는 미국자본의 대외팽창은 결국에가서 미국의 국외시장의 협소를 초래하고있다。「마샬안」—이것은 전쟁후의 황폐한 나라들에 직면하여 전후에 내세운 월・스트리트의 비지네스・멘들의 발명인것이다。이 나라들의「구매능력」은 지금까지는 미국의 크레지트에 의하여 유지되고있다。이것에 관하여는 이 나라들의 수입초과가 증명하고있다。一九四六년과 一九四七년의 수출입관계는 다음과 같다。

(단위는 백만딸라)

국명	1946년 수입	1946년 수출	1947년 수입	1947년 수출
영국	5,230	3,877	7,202	4,852
불란서	2,566	852	2,911	1,788
이태리	994	287	1,900	778
베르기—룩셈부르고	1,19	677	1,932	1,405
화란	817	306	1,606	702
중국	746	152	756	219
미국	4,818	9,502	5,739	14,475

이 표는 구라파 자본주의나라들의 수입초과 그리고 크레지트설정의 무역에 의하여 달성된 미국의 수출초과의 명확한 표현을 보여주고있다。그러나 구라파나라들에대한 재정적예속은 이 나라들이 부채와 리자를 지불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그런데 이것은 불피적으로 구라파의 나라들이 수출을 강행하며 수입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다른말로 말하면 크레지트에 의한 무역자체는 불피적으로 시장획득을 위한 투쟁의 첨예화와 미국의 국외시장의 축소를 가져온다。

다른나라들에 대한 미국자본의 침투는 불피적으로 이 나라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와 그들의 생활수준의 저하, 주민의 구매능력의 축감을 의미한다。「마샬안화한」이태리가 그 명확한 실례로 될수있다。이 나라에 있어서의 실업자의 막대한 증대와 아울러 취업로동자의 임금의 저하가 일어나고있다。주민에대한 빵배급량이 극단히 저하되었다。배급으로 주는 빵과 마까로니의 가격은 一九四八년 八월一일부터 五〇% 올랐으며 기타의 식료품은 四〇% 올랐다。방세(房貰)는 一九四五년이후 二五〇%내지 一、〇〇〇% 올랐다。이 모든결과로 전쟁전에 있어서도 구라파에서 가장 낮다고 보아오면 이태리주민의 구매능력은 五〇%로 저하되었다。신문「모멘트」가 치적한 바와같이 현

개의 이태리주민의 생활수준은「인도주민의 생활수준을 넘지않는다」

계다가 구라파의 자본주의 나라들의 근로자들이 군사예산의 증대와 미국에대한 부채 및 리자지불의 필요와 결부된 세금부담의 압박을 더욱 더욱 받게되었다는 사실을 첨부할 필요가있다。쓰딸린동지는 제一四차당대회의 보고에서 구라파가 그당시 미국의 재정적 채무노예로 되고 말았다는것을 강조하면서 구라파의 미국에대한 부채 및 리자지불은 구라파 나라들의 주민의 세금부담의 증대, 근로자의 징태의 악화를 초래하였다는것을 지적하였다。미국자본에 의한 구라파의 노예화와 이에 관련된 구라파 나라들의 근로자의 상태의 악화는 제二차세계대전후에있어서 제一차세계대전후에있어서보다 더한층 광범한 범위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것은 현재 이미 세계시장형편에 나타나고있다。전세계의 수출액은 전후 一九四七년중기에 그 최고점에 달하였으며 그 후에는 감소되기 시작하였다。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이 一九四八년중 九개월동안에 一九四七년동기의 一백九억四천一백만딸라에대하여 九四억一천三백만딸라로 되었다는것 즉 一四%가 떨어졌다는것은 특징적이다。앙리・크로드는 주간잡지「액쑌」에서 이 감소는「일방으로는 세계에대한 공급(供給)과 타방으로는 상품에대한 수요(需要) 차이에 자라나고있는 균형의 파괴를 증명하고 있다。그런데 미국인들은 구라파에대한 크레지트의 공여(供與)에 의하여 이 균형을 무리하게도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있다。세계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균형의 파괴는 제국주의체제의 나라들에서 세계경제공황의 개시를 표시하는 공업활동의 극심한 저락을 가져오고야 말것이다」라고 썼다。

구라파의 나라들과 기타의 나라들에대한「마샬안화」와 미국독점자본에의 예속화는 일정한 정치적결과도 가져온다。다른나라들에 대한 미국자본의 침투는 인민들의 격분을 일으키고 있으며 자유와 독립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적극화 시키고있다。

이 투쟁은 그 발전에 있어서 제국주의적 착취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또한 이 투쟁은 자본주의나라들의 보다 심각한 새로운 경제공황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要因)인 것이다。

이러하여「전시수요」의 요인이 남는다。그러나 다아는바와같이 평화시기와 조건하에서는 군사예산 군대 군수품을 무한량하게 증가시키지는 못한다。쓰딸린동지는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제一八차당대회에서의 보고에서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를 위한 전쟁준비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이 전쟁준비가 침략국가들에 있어서의 공황의 도래를 약간 뒤로 물릴수 있다는것 그러나 다만 뒤로 물릴수만 있

는것이자 공황을 예방할수는 없다는것을 지적하였다。「왜냐하면 전시경제의 궤도(軌道)로 한나라의 경제를 전이(轉移)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산업에 일면적인 군사적방향을 부여하는것이며 주민의 수요와는 관련이없는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생산을 갖은 방법으로 확장하여 주민의 필수품생산을 특히 이 필수품의 시장판매를 백방으로 제한하는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이것은 주민의 수요를 축소시키며 나라를 경제공황에 직면시킨다」(「레닌주의의 제문제」 제十一판 五六七페지)

이리하여 미국의 전쟁후 경제상태를 훑터볼때 전후의 미국의 경제발전을 새로운「번영」이라고 표현한다든가 미국자본주의를 분식(粉飾)한다든가 또한 미국자본주의를 생산의 무정부상태、공황、실업과는 무관계하다는것으로 표현하라는 온갖 종류의 시도가 불명예스럽게 파탄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미국의 전후의 경제발전은 자본주의의 공황과 파탄단에 의해서만 진행된다고하는 맑쓰주의 적명제를 또한번 확증한다。

몰로또브동지는 사회주의十월혁명 제三十一주년에 관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적지아니한 부(富)와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되고 자연부원과 기타의 많은것을 가지고있는 자본주의 나라들이 있다。그러나 자기시대를 다살은 자본주의의 제도자체는 즉 이 제도의 사유재산의 무정부성、그 사회적 및 정치적 적대와 공황을 겸유한 자본주의제도자체는 전기의 나라들을 불안정과 파탄적인 붕괴 정기적동요와 혁명적진동(震動)으로 몰아넣고있다」

(「볼쉐위끼」 一九四八년 二三호에서)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

아 · 라 · 뻰

분배방법은 생산 방법으로써 결정된다고 맑쓰—레닌주의는 가르치었다。「분배 그 자체는 생산 결과만을 분배할수있는 까닭에 대상의 관계에서만 생산의 산물일뿐 아니라 생산에 참가하는 일정한 방법은 특별한 분배형태—각자가 분배에 참가하는 형태를 결정하는 까닭에 형태 관계에서도 생산의 산물인것이다」(「맑쓰 엥겔쓰 전집」 제十二권 제一분책 一八五페지)

생산품의 분배방법은 사회적 생산의 성격과 그 발전의 력사적 계단에 의존하여 변경되는것이다。그러나 이것은 분배가 생산의 소극적 결과이며 그는 생산자체의 발전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그와 반대로 분배는 사회적 생산에 의존하여 발전하면서 동시에 생산발전은 촉진시키거나 혹은 지체시키면서 생산에 반작용을 하고있다。

생산 수단에대한 사적소유와 인간에의한 인간의 착취에 기초한 자본주의 제도내에서는 분배가 로동자의 로동으로 창조된 사회적 생산품의 다부분을 잉여가치의 형태로써 령유하는 착취계급의 리해관계에서 진행되는것이다。자본주의 발전의 정도에따라 착취계급의 부(富)와 국민소득에서의 그들이 차지하는 량이 더욱 증가되고있다。례를들면 미국에서는 一%밖에 안되는 소유자가 전체 국민부의 五九%를 령유하고있다。一九三九년도에 미국의 전체 가족의 一○%에게 전 국민 소득의 四○%가 배당되었던것이다。자본가들의 부유화와 국민소득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량이 제고되는 사실은 제二차세계대전 시기와 그의 종말 이후에 더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一九三九년에 미국 독점가들의 리윤이 六四억딸라였다면、전쟁의 최성시에는 매년 二四○억딸라를 초과하였고 一九四七년에는 그것이 근 三백억딸라에 달하였던것이다。이것은 독점의 리윤이 근 五배로 장성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수준과 인민 경제에서 로동계급에게 차려지는 몫은 계통적으로 저하하고 있다。미국 국민소득에서 근로자의 비중은 七八·六%가 되는데 국민소득에서 그들에게

차려지는 량은 四四·四%이다。이에따라서 가장 수입이 낮은 二七%의 가족에게는 전체 국민 소득의 八%이하가 차려진다。영국에서는 국가의 총주민중에서 근로자의 비중은 八八·二%인데 국민소득에서 그들에게 차려지는 량은 四○·八%이다。一九四八년 상반기에 불란서 자본가들의 리윤은 불란서 국민 소득의 四三%이었고 로동자와 사무원의 로임은 다만 국민 소득의 三九%이었다。미국에서는 로동자의 압도적 다수가 최저생활비까지도 받지못하고있다。三분지一로 축소된 공적 자료에만 의하여도 그곳에서 실업자수는 二백만여명이되며 一주일간을 완전히 일하지못하는 반(半) 실업자수는 근 一천만명이된다。자본주의 제국가에서 실업이 장성되며 동시에 소농민 경제가 파산되고있다。

이 사실은 자본주의 제국가에서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의 빈궁화가 더 강화된다는것을 표시하고있다。로동계급의 절대적 및 상대적 빈궁화는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의 법칙이다。

쏘련에서는 전혀 다른 상태에있다。사회주의 제도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농촌에서의 빈궁화를 청산하였다。사회주의적 생산 방법은 력사에서 처음으로 근로대중에게 부요하고 문명한 생활의 가능성을 주었다。사회주의 법칙은 인민의 물질적복리를 계통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쏘련에서의 인민수입은 로동자와 농민의 물질적 복리의 개선과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을 확대하는 리해관계에서 분배되고있다。

쏘련에서 로동자와 사무원의 로임폰드는 一九三二년에 비하여 一九四○년에는 근 五배로 증가하였다。다만 제二차五개년 계획기간에만도 대공업의 로동자와 사무원의 로임폰드는 二·五배로 증가되었고 기본식료품에대한 로동자의 매인당 수용(需用)은 二—三배로 증가되었다。전후 五개년계획에 의하면 인민경제에서 로동자와 사무원의 로임폰드는 一九四○년의 一、六二○억루블리에 대하여 一九五○년에는 二、五二三억루블리에까지 제고되는바 매년 평균로임은 一九四○년에 비하여 四八%가 증가된다。

꼴호즈 농민의 물질적 복리상태가 계통적으로 장성하고있다。꼴호즈원의 현금수입은 一九三二년에 비하여 一九三八년에 四배로 증가되었다。꼴호즈원 매호에대한 평균 알곡 분배는 一九三二년의 三六·六뿌드(一뿌드는 十六키로=역자)로부터 一九三九년에 一○六·二뿌드에까지 증가되었다。전후시기에 꼴호즈 농민의 현금 현물 수입은 부단적으로 장성되고있다。

× × ×

쏘련에서 사회적 생산품의 분배는 다음과같이 실시된다。즉 그의 한부분은 로동과정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재생산하며 다른 한부분은 새로 창조한 즉 순전히 년 생산품으로된다。이제 이 후자의 부분은 이렇게 분배된다。즉 그의 一부분은 근로자의 개인 수요를 만족시키는데로 분배되며 (로임과 꼴호즈에서 로동일공 보수) 다른 一부분(잉여생산품)은 축적폰드와 공동소비폰드에로 들어간다。

자본주의 조건에서는 새로 조성한 一년 생산품은 착취계급의 복리 증가와 도시와 농촌의 근로대중에대한 착취계급의 정권을 견고히하는 리해관계에서 분배되고있다。사회주의하에서는 새로 창조된 생산품은 오직 근로자의 리해관계에서 분배되고있다。즉 이 생산품의 다부분은 근로자들의 개인적 및 공동적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분배되며 이 생산품의 다른 一부분은 생산 확대에 분배된다。사회주의 조건에서 생산 확대는 인민 복리에대한 부단적 향상을 보장하고있다。이런까닭에 쏘베트인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사회의 물질적 부를 증가하며 쏘베트 국가의 경제적 위력을 견고히 하는데 혈연적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년년이 축적하지않고는 발전될수없으며 그는 축적하기위하여 반드시 잉여생산품을 계통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이다。쏘련에서 잉여생산품은 소유자 계급에게로 가는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로 가며 전체 사회의 수요를 만족시키는데로 지향하고있다。잉여생산품은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과 쏘베트 국가의 군사지출과 관리기관、문화—계몽기관、보건기관 유지와 로동기능을 가지지못한 사회성원에게대한 물질적 원조등등의 목적에 리용된다。쏘베트 사회에서 잉여생산품은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과 쏘련공민의 성장하는 사회적 및 개인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기초로되었다。

맑쓰는 「고타강령 비판」에 「완전한」 혹은 「삭감하지아니한」 로동 산물이란 라쌀의 스로강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맑쓰는 사회주의사회의 정상적 직능과 발전을 위하여 총사회적 생산품에서 첫째 소비된 생산수단 복구에대한 지출, 둘째 확대 재생산을위한 보충적 부분, 셋째 예비 혹은 보험 폰드를 반드시 감하여야 된다는것을 표시하였다。총사회적 생산품의 제二부분은 소비 수단으로된다。그런데 개인 분배에까지 문제가 이르기전에 그에서 첫째 관리에대한 총비용, 둘째 수요를 공동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것 (학교, 구락부, 병원 등등 유지비), 셋째 로동기능이 없는자에대한 폰드를 감하여야한다。

총 사회적 생산품에서 국방에 요구되는 부분을

반드시 감하여야된다。 맑쓰는 이 공제(控除)를 예견할수없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생산품 분배 공식을 사회주의 혁명이 전세계에서나 혹은 다수 중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동시적 승리가 가능하다는 명제로부터 출발시켰던 까닭이다。

사회주의 조건에서 사회적 요구를 유지하는 그 전부는 근로자의 리익에서 리용되며 그들의 개인수요와 사회주의 사회 전부의 복리조건의 가일층 장성에 협조하는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인분배폰드에로 가는 사회적 생산품의 량은 생산력 발전의 달성된 수준과 사회주의 건설의 각계단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과업으로서 결정된다。

쏘련에서 인민 수입의 다부분은 개인적 및 사회적 수요에로 들어간다。 례를들면 전후 五개년계획의 말에 이르러 개인적 및 사회적 수요폰드는 인민 수입의 七三%가 될것이며 축적폰드는 二一%가 될것이며 국가예비는 六%가 될것이다。

× × ×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력 발전과 사회적 부의 장성은 근로자의 물질 생활형편 개선의 기초로 되고있다。 쏘베트 사람들은 로동생산성의 부단적 제고와 사회적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써 자기의 생활수준을 제고한다。

사회주의와 로동은 분리될수없는 것이라고 쓰딸린은 가르치었다。 사회주의는 로동에 의하여 존재한다。 사회주의는 로동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고있다。 각개 사회제도는 인간을 로동에로 충동하는 자기의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있다。 직접 강제하에서 노예와 농노가 로동하였고 자본주의에서는 아사(餓死)의 위협하에서 로동자가 자기의 로동력을 판매하고있다。

사회주의 제도는 력사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국가를 위하여 로동할 가능성을 보장하였으며 로동에 대한 사회주의적 생산발전에 대한 사회적 리해관계를 환기시켰다。 로동에 대한 새로운 관계는 로동에 대한 열정과 로동자, 농민, 인테리의 창조적 발의의 장성에서와 사회주의 경쟁의 위력한 발전에서 자기의 명백한 표현을 찾아본다。 쏘베트 인간은 사회적 국가적 리익을 모든 다른것보다 더 높이 세운다。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로동에 대한 사회적 자극은 개인적 자극과 결부되고있다。 사회주의만이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한 로동하는 사람의 진실한 물질적 리해관계를 처음으로 보장하였다。 쏘련의 근로자들은 자기 로동의 댓가를 그의 량과 질에 완전히 해당하게 받는다。 쏘련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말라」라는 원칙이 실시되고있다。 「이 보

통적이요 보편적이며 명료한 진리에 사회주의의 기초와 그 력량의 무진장한 원천과 그의 종결적 승리의 근절할수없는 담보가있는 것이다」라고 레닌은 제시하였다。 (전집 二三권 二六페지)

쏘련에서는 「각자로부터는 그의 기능에 의하여 각자에게는 그의 로동에 의하여」란 사회주의 원칙이 실현되고있다。 이것은 쏘련 사회생활의 지도적 원칙이며 사회주의의 중요한 경제법칙이다。 이 원칙은 근로자의 개인적 및 사회적 리해관계를 올바로 결부시키며 자기 로동의 결과에대한 각개 로동자의 물질적 리해관계를 조성하며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자본주의에서 로동계급은 생산수단과 도구를 상실하였으며 그는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게되었으며 자본주의적 노예의 멍에를 메게되었다。

사회주의에서 로동계급은 생산도구와 수단을 상실치 않았을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는 전체 인민과 더부러 생산수단과 도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있다。 이 결과에 쏘련에서 로동력은 상품—매매의 대상으로 되지않는다。 사회주의 제도는 실업과 공황과 로동계급의 파산과 농촌에서의 빈궁을 청산하였다。 이 제도는 기능에 의하여 로동하고 로동에 의하여 생산품을 받을수있는 가능을 각자에게 주었다。 쏘련에서는 재산상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개인적 기능과 각자의 개인적 로동만이 사회에서 각자의 지위를 결정한다。 사회주의는 자기의 기능을 백방으로 발전시키며 리용할 가능을 근로자들에게 주고있다。 쏘련에서 로동은 로동기능을 가진 각개 공민의 의무와 영예로 된다는것이 쓰딸린적 헌법에 기록되었다。 이 로동할 의무는 사회주의의 조건에서 로동에대한 그의 량과 질에 해당한 로동보수에대한 권리와 부단적으로 련결되였는바 이것은 자본주의 제도의 조건에서는 없으며 있을수도 없는것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더 많이 더 우수하게 일하는자와 로동생산성을 제고하는자를 상당히 표창하며 이것으로써 사회주의적 생산을 협조하고있다。

레닌과 쓰딸린은 사회주의의 분배 원칙의 막대한 의의를 중요시하였다。 브·이·레닌은 생산 발전에서 개인적 물질적 리해관계가 놀고있는 그 막대한 역할을 여러번 지적하였던것이다。 쓰딸린동지는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에 기초하여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의 다방면적이요 심오한 연구를 하였으며 자기 로동의 결과에대한 물질적 리해관계는 사람들을 전진시키며 사회적 로동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기술적 향상과 생산기술 소유에대한 지향을 강화한다는것을 표시하면서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의 의의를 공개하

였다。 쓰딸린 동자의 저서들에는 사회주의 가업소들에서의 로동조직과 로동보수의 기본 원칙이 강구되었고 로임과 꼴호즈 로동일공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분석되어있다。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은 소부르죠아적 평균제와의 무자비한 투쟁에서 확립되었다。 쁘로쯔끼파、지노비예브파、부하린파 기타 인민의 원쑤들은 소부르죠아적 평균제를 분배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것으로써 우리 인민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며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파탄하려고 시도하였다。 당은 인민의 원쑤를 격파하고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의 견고발전에대한 불가피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제一차 五개년 계획 기간에 소부르죠아적 평균제는 공장과 제조소에서 코뮨을 조직하는데서 표현되었다。 이런 코뮨에서는 숙련로동자 및 미숙련로동자가 자기의 로임을 한데 들여놓고 그것을 똑같이 분배하였다。 꼴호즈 건설의 시초에 매호에 매인구에 대하여 개인수요 폰드로되는 수입을 평균적으로 분배하는것이 전파되었던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좌경적 소부르죠아적 견해를 적발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소부르죠아적 평균제라는 것은 맑쓰주의와 아무러한 공통성도 없는것이며 사회주의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온다고 제시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제十七차 쓰련공산당(볼쉐위끼) 대회에서 진술한 결산보고연설에서 수요와 개인생활 분야에서 평균제는 원시적 금욕자(禁慾者)들에게 합당한것이지 맑쓰주의적으로 조직된 사회주의 사회에 합당한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꼴호즈에서의 평균제가 주고있는 그 유해성을 특히 지적하였다。 만일 좌경적 견해가 승리하였다면 우리당이 맑쓰주의의 당으로 되지못하였을 것이요 꼴호즈운동은 파탄되었을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평등에대한 맑쓰—레닌적 리해(理解)를 모범적으로 표명하였다。「맑쓰주의는 평등이라는 것을 개인수용 및 생활 방면의 평균제로 리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들의 타파로 리해한다。 즉 (가) 자본가들이 전복되고 수탈된후에 모든 근로자들이 착취에서 한결같이 해방되는것、(나)생산수단이 전사회의 소유로 넘어간뒤에 그에대한 사유제가 모든 사람에게있어서 동일하게 폐지되는것(사회주의 사회)、(다)모두다 자기의 기능에 의하여 로동하는 동일한 의무와 그에대하여 모든 근로자들은 자기의 수요에 의하여 받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되는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이에있어서 맑쓰주의는 사람의 취미와 수용은 사회주의의 시기에 있어서도 공산주의의 시기에 있어서도 질로나 또는 량으로나 한결같이 고른법은 없으며 또한 그럴수 없으리라

는데서 출발하는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곧 평등에 대한 맑쓰주의적 리해인 것이다。

다른 아무러한 평등도 맑쓰주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레닌주의의 제문제」 四七〇페지)

레닌—쓰딸린당과 쏘베트 국가는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철저히 실시하면서 소부르죠아적 평균제의 각종 표현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하였으며 로임조직에서와 꼴호즈에서의 로동보수에서 각종 의곡과 투쟁하였다。

× × ×

사회주의 국가는 로동기준을 설정하며 로동보수를 조절하는것으로 각개 사회성원의 로동한도와 수요의 한도에대한 통계 통제를 조직하고있다。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은 사회성원간에 생산품의 분배와 로동분배의 중요한 조절기로 되는것이다。「공산주의의「최고」양태가 돌아올때까지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의 편으로부터 국가의 편으로부터 로동의 한도와 수용의 한도에대한 엄격한 통제를요구하고있다…」(「레닌전집」 제二一권 四三七페지)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실현할 가능성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자본주의 내에서는 생산품의 분배는 로동에 의하여 실현될수없다。 그것은 그곳에서는 생산수단과 도구에대한 사적소유가 지배하고있는 까닭이다。 그와반대로 쏘련에서는 생산수단에대한 사회주의적 공동소유가 지배하고있다。 쏘련에서는 모든 기본적이요 결정적인 생산 수단 즉 토지、공장、제조소、교통 등등이 쏘베트 국가에 속하고있다。 꼴호즈와 협동조합 기업소의 재산은 협동조합—꼴호즈의 소유로 되고있다。 이 二개 소유형태는 一九三六년에 벌써 국내 전체 생산 폰드의 九八·七%로 되었던 것이다。 생산 수단에대한 공동소유의 지배는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실현할수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조성하고있다。 맑쓰가 제시한 바와같이 사회주의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로동에 의한것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받을수없으며 다른 면으로 각자의 소유는 개인 수요품외에는 있을수 없는것이다。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은 생산력 발전수준과 사회의 처리에로 들어오는 물질적 복리의 량에 조건부되었다。 공산주의의 제一양태에서는 생산력 발전은 모든 수용품의 풍족을 보장할수있는 그런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못하였으므로 사회는 인간의 요구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들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수용품을 분배하는것이다。

사회주의에서 로동은 수용의 척도로、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으며 그는 아직 인간의 선차

적 생활상 요구로 되지못하였다。 이런까닭에 자기의 로동의 결과에 대한 각개 일군의 개인적 물질적 리해관계는 사회주의의 생산 발전의 위력한 운동력과 중대 조건으로 되는것이다。 로동이 생활 수단으로부터 필수품으로, 선차적 생활상 요구로, 사회에대한 자원적 로동에로 전화하지 못한때까지는 생산품은 오직 로동에 의하지않고서는 달리는 분배될수없는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아직 국영기업소에서와 꼴호즈에서의 로동간에 차이가 있으며 숙련 로동과 미숙련 로동과 정신적 로동과 육체 로동간에 차이가있는 것이다。 이 차이점은 동일로동시간의 단위내에서 부분적 일군들이 생산품의 각이한 수량을 생산하게 하는것이다。 이런고로 그들이 소비한 로동은 사회 필수로동과 동일하지 않는것이다。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은 각이한 로동종류를 유일한 지수—가치—로 만들 필요성으로 조건부되며 로동의 질량에 해당하게 화폐형태로써 로동자와 사무원의 로동을 보수할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변혁된 형태로 작용하는 가치 법칙은 계획하는 쏘베트국가에 의하여 로동결과에대한 물질적 리해관계를 제고하며 복잡성과 경중성과 인민경제적의의 등등에 의하여 차별적 로동보수를 설정하는것으로서 로동을 자극시키는 도구로써 리용되고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제一양태이며 그는 자본주의를 교대하여 오는고로 사회주의에는 로동과 사회적 소유에대한 부분적 공민들의 비사회주의적 관계와 개인민의 리해관계에대한 무시와 국가에는 적게 주고 국가로부터는 더많이 받으려는 경향등의 자본주의 잔재가 아직 존재하고있다。 볼쉐위끼당과 쏘베트국가는 이 자본주의 잔재와 결정적 투쟁을 하고있다。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철저히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적 규률과 로동조직을 견고히하는 중요 수단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 원칙에대한 여하한 위반이든지 그것은 우리 인민경제에 손해를 가져오는것인바 그것은 로동에대한 자극을 약화하며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속도를 지체시키는 까닭이다。

공산주의의 고급양태에 있어서는 「각자로부터는 그의 기능에 의하여 각자에게는 그의 요구에 의하여」라는 원칙을 실현할것이다。 생산력은 최고 번영에 도달할것이며 로동은 선차적·생활상 요구로 전환될것이요 정신적로동과 육체로동간의 대립성이 소멸될것이요 인간의 의식에서 자본주의 잔재가 청산될것이다。 생산력의 거대한 장성의 결과에 달성된 수용품의 풍족은 사회 성원의 요구에 해당하게 수용품을 분배할것을 사회에 용허하는것이다。 우리가 공산주의의 고급양태에 도달할때까지는로

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반드시 백방으로견고발전할것이다。 이원칙은 사회적 리해관계와 개인적 리해관계의 가장 훌륭한 결부를 보자하면서 사회주의사회 발전과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 점차적으로 이행하는 리해관계에 가장 적합한것이다。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보수원칙의 의의는 그가 사람을 더많이 더 훌륭히 일하라고 고무시키며 로동생산성을 부단적으로 제고하고 생산을 개선하며 자기의 기술자격과 문화—기술수준을 향상하는데 있는것이다。 사회 전부와 각개 근로자는 이것으로부터 리득을 보는것이다。

질과 량에 의한 로동보수는 로동방법을 개선하며 자기의 로동일을 충실히하며 조업휴지(操業休止)를 용허하지 않으며 시설과 도구를 훌륭히 리용하도록 각개 일군을 자극한다。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보수원칙은 로동에대한 사회주의적 관계로 교양함에 협조한다。 그것은 량심적이요 높은 생산적인 로동에 대하여 로동자를 높은 보상으로 표창하는까닭이다。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보상원칙은 사회주의 경쟁과 쓰따하노브운동을 전개함에 도움을 주며 인간의 의식에서 자본주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도움을 준다。

로동에의한 생산품의 분배법칙에는 「동등한 로동에대한 동등한 보수가 해당한바 동등한 로동이란 것은 로동의 시간과 질이 포함된 것이다」(느·워즈네쎈쓰까)

사회주의 국가에만이 「동등한 로동에대한 동등한 보수」원칙이 실현될수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는 전혀 다른 원칙이 지배하고있다。 거기에서는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 일군은 부동일한 보수를 받는것이다。 례를들면 자본주의에서 녀성의 로임은 남성의 로임보다 대단히 적다。 즉 영국에서 녀성의 로임은 남성의 로임의 五○—五五%가된다。 뉴질랜드와 일본에서는 녀성들이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 남성들보다 절반시나 적게받는다。 백인종과 흑인종의 로동보수에 있어서 막대한 차별이 존재하는것이다。 례를들면 미국의 二六개 대도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흑인은 동일한 로동을한 백인보다 三분지一 혹은 七분지一의 봉급을 받았다。 청년과 미성년들도 법적으로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 성인로동자보다 적은 보수를 받는것이다。

쏘련에서 동일한 로동에대한 동일한 보수는 녀성의 경제적 해방과 녀성과 청년을 생산에 광범하게 끌어들이는일을 용이케 하는것이다。 이것은 一九四○년도에 쏘련에서 로동자와 사무원들중에서 녀성의 비중이 三八%가된다는 사실이 잘 증명하여 준다。

「각자로부터는 그의 기능에 의하여 각자에게는 그의 로동에 의하여」란 사회주의적 원칙은 사회주

의적 확대재생산 과정에서와 쏘베트 사회주의의 제도의 가일층 견고 발전에서 큰 역활을 하고있다。 그 원칙은 생산력의 민속한 발전과 사회주의 경제의 가일층 번영과 근로자들의 물질 복리조건의 향상을 촉진시키는것이다。 이 원칙이 더 훌륭히 실현될수록 우리국가에서 공산주의 건설 과업이 더 성공적으로 실행될것이다。 이런까닭에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반드시 백방으로 견고히하며 철저히 실현하며 로동보수에서 평균제를 결정적으로 근절할 것이다。

× × ×

로동의 질과 량에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은 쏘련의 모든 국가 및 협동조합 기업소에서 실현되는바 그러나 국가기업소에서와 꼴호즈에서의 그 실현이 각이한 것이다。 국가 기업소와 기관의 로동자와 사무원은 자기의 로동에 대하여 로임 즉 도급제, 시간제, 상금제 등등의 로임을 받는다。 꼴호즈에서는 로동일공에 의하여 로동보수가 실시된다。

로임은 사회주의 기업소의 로동자와 사무원이 허비한 로동의 질과 량에 해당하게 개인적 직접 수용에 대하여 지불되는 인민수입의 一부분 혹은 새로 조성한 가치의 一부분인 것이다。 인민수입의 이 부분은 쏘베트 국가가 계획적으로 설정하고 조절하는 로동자와 사무원의 개인적 수요폰드의 화폐적 표현으로 되는것이다。

사회주의에서의 로임은 부르죠아 사회에서의 로임보다 근본적으로 차이가있다。 자본주의 조건에서 로동력은 시장에서 관계되는 상품이다。 로임은 그들에게 있어서 로동력의 가치와 가격의 의곡된 형태로된다。 부르죠아 사회에서 외형상으로는 로임이 로동에 대한 보수처럼 출현한다。 자본주의에서 로임은 착취를 은폐하며 불상용적 적대적 적의적 계급—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간의 진실한 관계를 캄풀라지한다。 이 외에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계급의 로임은 극히 불안정하다。 공황기에 주기적으로 증가되는 고정적 실업군이 존재하는것은 로임수준을 인하한다。

사회주의에서 로동력은 상품이 아닌고로 결국 가치도 가지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로임은 시장의 자연 발생적 법칙으로써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쏘베트 국가는 생산력의 장성과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꾸준히 제고할 과업에 해당하게 로임량을 결정한다。 쏘련에서는 실업과 빈궁이 제외되었고 로동자와 사무원의 수효는 부단적으로 성장하며 로임과 근로자의 문화 및 생활 요구에 대한 국가 지출이 증가하고있다。 그런데 로임 장성과 대중의 물질적 복리상태 개선과 동시에 반드시 로동생산성이 민속히 제고되여야 하는바 그렇게함으로써 사회주의

사회에 필요한 잉여생산품을 보장할 것이다。

쏘련에서 로동 계급의 수입은 화폐 로임으로써만 그치는것이 아니다。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은 화폐 로임외에도 병환과 휴가시의 국가 보조금, 지배인 폰드에서 받는 금액, 무료 교육과 무료 치료, 다산모에 대한 보조금 등등을 받는다。 이 모든 종류의 국가 원조는 로동자의 로임을 보충적으로 三八%를 증가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과 달라서 쏘련에서의 로동계급의 실제 수입 혹은 사회적 생산품의 분배에서 그의 분량은 화폐 로임으로써만 국한되지 않는다。 쏘련 로동계급의 생활 수준과 례를들면 자본주의 영국 혹은 미국 로동계급의 생활수준을 다만 화폐 로임량에 의하여서만 비교하여보려는 시도는 전혀 무식하다는것 보다 바로 비방이될 것이다」(느·워즈네쎈쓰끼 「조국 전쟁 시기에 있어서의 쏘련의 전시 경제」 제一一八페지)

쏘련에서의 실질 로임은 수요품에대한 견실한 국가소매가격과 또한 공공시설 및 교통 리용에대한 세률을 인하하는것으로써 보장되였다。 례를들면 쏘베트 로동자가 주택과 교통에 지출하는 로임의 분량은 미국 로동자가 이 목적에 저축하는 그 분량보다 五분지一 내지 六분지一이 된다。

쏘련에서 로임량은 생산분야와 인민경제에서 부분적 기업소의 중요성에 따라 설정되고있다。 로임수준에 의하면 석탄, 제철, 원유 등등산업이 앞서나가고 있다。

로임량을 설정할때 숙련로동과 미숙련로동간에있는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다。 숙련로동은 가장 고상한 질의 로동이요 다대한 가치를 조성하는 까닭에 그는 더 높이 보수된다。 一九三一년 六월二十三일 경제일꾼 협의회의 석상에서 진술한 보고연설에서 쓰딸린 동지는 사회주의에서는 로동자의 기술자력을 상당히 제고시키도록 로임조직을 할것이라고 지시하였다。 「흑색금속업에서의 운반부의 삯전이 소제부가 받는것과 동일하게 되는것을 용허할수가 없는 것이다。 철도운수업에서의 기관수가 꼬삐스또가 받는정도만큼 받는것을 용허할수가 없는것이다。 숙련로동과 미숙련로동과의 사이의 차이는 지어 사회주의 제도에서도 지어 계급들을 없새버린 후에도 존재할 것이요 다만 공산주의 하에서만 이 차이가 없어질터이라고 그러므로 「로임」은 지어 사회주의 하에서도 수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로동에 따라서 지불되어야 할것이라고 맑쓰와레닌은 말하였다」(「레닌주의의 제문제」 제三三五페지)

이 쓰딸린 동지의 교시는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의 가일층 창조적 발전과 구체화로 되었던 것이다。 아는바와같이 맑쓰는 복잡한 로동에

대한 가장 고상한 보수의 필요를 부정하였다。그는 이렇게 썼다。「개인 생산자들의 사회에서는 미래 숙련로동자 훈육에 대한 지출은 개인 혹은 그의 가정이 담당하는고로 개인에게 선차적으로 숙련 로동력의 가장 높은 가격이 차려진다。즉 숙달한 노예는 가장 고가로 판매되며 숙달한 로동자는 가장 높은 로임을 받는것이다。사회주의적으로 조직된 사회에서는 이 지출을 사회가 담당하는고로 복잡한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많은 결과 즉 가치가 사회에게 차려진다。일군자신은 보충적 보수를 바랄수 없는것이다」(「반듀링그론」一九四八년판 一八九폐지)

이 명제는 사회주의 사회의 실천으로써 부정되었다。숙련 로동과 미숙련로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는 로동자의 기술자격 향상과 그들의 문화—기술 향상에 대한 자극을 조성하지 아니하며 그것은 쏘베트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지체시키면서 그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다。이런까닭에 숙련로동과 미숙련로동에 있어서 반드시 차별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쏘련에서 로임 수준은 인민경제 부야에서의 중요성과 일군들의 숙련성으로만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그들 로동의 경중성으로도 결정되는 것이다。례를들면 지하로동과 뜨거운 작업과 또는 건강에 유해한 직장에서 로동하는자들은 보통 조건에서 로동하는 자들보다 더 높은 로임을 받는것이다。전후 五개년계획은 가장 곤난한 로동—석탄、제철、원유산업 분야에서의 더 높은 로임을 예견하였다。채탄부의 요구와 그들의 헌신적 로동에 관한 고상한 평가에 대한 레닌—쓰딸린당의 명확한 고려의 표현은「지하로동자、탄광부、탄광산업 및 탄광건설의 지도적 일군과 기술일군들의 우수한분자、광산과 탄광건축의 지도자 및 훌륭한 사업과 년공(年功)에 대하여 메다르로써 표창함에 대한」一九四七년 九월 十일부 쏘련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정령과 「지하 로동자와 채탄업과 탄광 건축의 지도자 및 기사—기수 일군들에게 대한 우선권과 면제에 관한」쏘련 내각의 결정인 것이다。

가장 어려운 로동에 대한 높은 보상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실업의 영향하에서 어려운 로동을 하는 로동자들의 로임수준은 보통 마지막 자리중의 하나를 차지하고있다。

쏘련에서 로동자의 로동보수에 대한 기본 형태는 도급제 로임인것이다。사회주의하에서의 도급제 로임형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도급제와는 근본적 차이가있다。자본주의제도 조건에서의 도급제는 로동자의 착취—그들의 로동의 집약성의 제고와 로임

인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사회주의적 생산방법하에서는 도급제 로임은 로동생산성의 제고와 로임 장성과 근로자의 물질형편을 개선하는 중요한 공간으로되는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보수 원칙을 실시하는 우수한 수단중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쏘련에서 도급제 로임은 직접 무제한의 도급제와 또한 루진 도급제 상금제 및 청부제도의 형태로써 적용된다。가장 보급된 형태는 전체 생산품을 동일한 도급평가에 의하여 지불하는 직접적인 무제한한 개인적 도급제이다。루진도급제 내에서는 작업량 이상으로 생산한 매개 생산품은 정량 범위내의 것보다 더 높은 평가에 의하여 보상된다。루진 도급제 보수는 로동생산성 제고와 생산증가에 대한 로동자들의 개인적 물질적 리해관계를 강화한다。

우리 국가에서 로동보수의 기본 형태중 하나는 또한 시간적 로동보수인 것이다。로동의 성격에 의하여 생산 기준을 정할수없는 그런 로동을하는 로동자들은 시간적 로동보수를 받는것이다。시간적 임금을 받는자들의 물질적 리해관계를 제고할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의 지표에 대하여 로동자가 받는 상금제를 적용한다。(례를들면 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한것、연료、전력 등등을 보충적으로 경제한것 등이다)

지도일꾼과 기사—기수들의 상금제임금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쏘련에서 로임을 올바로 조절하는 기초는 임금률 제도인바 그의 구성부분은 임률—자격표、임률 등급표 및 임률월급이다。임금률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작업의 복잡성과 생산조건에 의하여 모든 작업 종류를 분류하며 각종 자격과 직업과 그루빠의 로동자들에게 차별적 로임을 규정하며 로동자와 직접계산하는 조건을 결정한다。

로임에대한 올바른 조직의 중요조건은 기술적 기준인 것이다。기술적 기준이 없이는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할수 없는 것이라고 쓰딸린 동지는가르치였다。「기술적 기준—이것은 생산에서 로동계급의 선진 분자들의 주위에 광범한 로동대중을 조직하는 거대한 조절을 하는 력량이다」(이·쓰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五〇二폐지) 기술적 기준은 락후하는 일꾼을 선구자와 수준에로 끌어올릴 가능을 주는 것이다。

생산 기준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이 기준은 로동자가 일정한 시간(교대 시간)을 거쳐서 실행하여야할 세부(細部)혹은 작업의 량을 결정한다。생산 기준에 기초하여 각개 작업에대한 도급의 평가를 작성한다。쏘베트 기업소들에서는 달성

한 기술과 생산조직의 수준에 해당하며 로동생산성의 가일층 제고에 자극할수 있도록 생산기준을 설정하는것이다。 퇴폐되고 저하된 생산기준은 로동생산성의 제고에 자극을 주지못하며 사회주의적 로동보수 원칙을 불피코 위반케하며 로임을 초과지불케하는것이다。

선진 로동자들의 성과들을 훌륭히 리용하며 로동생산성을 제고하며 로동보수를 개선할 목적으로 기업소들에서 생산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생산에 선진적 진보적 기준을 도입한다。 전후五개년계획의 三년간에 쏘련 기업소들에서 낡은 생산 기준을 재검토하며 생산의 가장 앞선 평균표준을 기준으로 도입하는 막대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새로운 선진적 기준을 도입하는것은 생산 수단을 훌륭하게 리용하며 로동 생산성과 로임을 제고하기위한 투쟁에서 중대 요인중의 하나로 된다。

× × ×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의, 위대한 생활적력량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위한 쏘베트인민의 투쟁경험에서 증명되었다。 전전 쓰딸린적 제五개년계획의 시기에있어서 로동에의한 보수는 사회적 로동생산성을 제고하며 사회주의적 집적의 속도를 촉진하며 쏘베트인민의 물질적 복리상태를 제고하는 중대한 공간중의 하나이었던 것이다。

위대한 조국전쟁의 시기에 있어서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보수원칙은 전선 생산의 장성과 전선의 요구를 부단적으로 보장하는것에 협조하였던 것이다。 전시에 있어서 생산에 로력 새인재들의 류입과 전시생산을 증가할 과업은 로동보수제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공업과 운수업에서 루진도급제와 로동자들의 로동에대한 시간적—상금보수제와 기사—기수 일군들에게 대한 상금제를 철저히 실행하며 생산과제를 실행하며 초과실행함에 대하여 로동자들에게 첨부적 물질적 표창을 한데서 표현되었다。 로동자들의 로임에서는 상금의 분량이 一九四○년도의 四·五%로부터 一九四四년의 八%에까지 제고되었으며 기사—기수일군들의 로임에서는 그 기간에 十一%로부터 二八%까지 제고되었다。

전시에 채탄 채유 산업과 흑색 및 유색금속업과 군기공업과 철도에서 로임이 제고되었던 것이다。 전쏘련적 전체공업에서 로동자들의 매월 평균 화폐 로임이 一九四○년도의 三七五루블리로부터 一九四四년도의 五七三루블리까지 제고되었다면 흑색금속업에서는 그것이 六九七루블리까지 제고되었고 채탄업에서는 七二九루블리에까지 제고되었던 것이다。 특히 채탄 및 제철업에서 기사—기수일군들의 평균로임이 더 많이 제고되었던 것이다。 그는 전쏘련적으로 증가하여 一九四○년도의 七六八루블리로 부터 一

九四四년도의 一、二○九루블리에까지 제고되었고 채탄업에서는 一、五○二루블리에까지 제철업에서는 一、七二五루블리에까지 제고되었던 것이다。 전시에 전채기업소들에서 로임은 현물적 표창형태로써 보장(補强)되었다。 (로동자들의 부분적 부문에 대하여 더높은 식료품 배급기준을 정한것과 생산기준량을 초과달성하는 자에게 대하여 배급을 개선한것)

전시에있어서 로임률이 제고되었으며 농기뜨락똘 배급소 일군들에대한 표창제를 실시하였으며 농작물 수확계획을 초과 실행한데대한 첨부 보상제를 설정하였던 것이다。 이 모든 시책은 로동조직을 개선하며 로동생산성을 재고하며 전선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게 하였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 당과 정부는 인민경제 발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생산분야에서의 로임수준을 제고할 목적으로 로임문제에관한 제결의를 채택하였다。 정부는 우랄, 씨비리아, 극동의 특수한 조건을 타산하면서 이 중요한 국가의 공업구역들의 공장과 전축에서 일하는 로동자 및 기사—기수일군들의 로임을 二○%로 제고할데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전후 五개년계획에 있어서 로동보수제도를 개선하는 제 중대 시책이 실시되고있다。 이것은 즉 루진 도급제 보수를 개선하는것, 생산과제를 실행하며 초과실행한데 대한 로동자와 사무원의 임금에서 상금의 분량을 증가하는것, 끌호즈 수입분배에서 로동일공의 역할을 견고히하며 재고하는것, 끌호즈에서 개인적 및 그루빠적 도급제를 확대하며 농작물의 수확과 목축의 증산을 제고한데대한 첨부보상제를 광범히 적용하는 것등이다。

로임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생산계획을 실행하며 초과실행한 기업소의 지배인과 기사—기수일군들에게 표창할데 관한 一九四六년 八월 二十九일부 쏘련 내각의 결의는 중대한 역할을 놀았다。 이 결의는 계획의 질량적 지표실행에 큰 자극을 준 표창제도를 실시케하였다。 그에 따라서 국가계획을 품별에 의하여 실행하며 생산품의 원가를 저하하는 조건에서만이 상금을 수여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표창은 생산품의 완전한 수량과 로동하며 축소와 재료、원료、화폐기금 절약을위한 투쟁에서 중요 수단으로 되고 있다。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의 제고와 가일층 발전에서 중대의의는 一九四七년 十二월에 실시한 화폐개혁과 배급제 폐지에 있어었던것이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 三十주년에 보고 연설에서 므·므·몰로또브 동지는 루블리의 구매력 농은 二배로 제고되었고 로동자와 사무원의 실제임금은 一九四七년에 비하여 二배이상으로 제고되었다고 지적하

였다。 농촌 주민들의 화폐수입도 대단히 제고되었다。 당과 정부가 쏘베트 루블리를 확고히하며 쏘베트상업을 발전시키는 시책을 취한 결과에 화폐임금의 역활이 제고되었으며 로동 생산성을 제고하며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며 생산기능을 향상하며 선진 쓰따하노브로동방법을 리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물질적 리해관계를 보다더 강화하였던 것이다。

× × ×

꼴호즈에서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보수원칙은 로동일공에 의한 수입분배로 실현된다。 로동일공—이것은 꼴호즈 제도의 승리의 결과에 조성된 전혀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표현하는 오직 꼴호즈 제도에만 특유한 경제적 범주이다。

로동일공은 꼴호즈에서 로동의 기준이요 소비의 기준이다。 측정하는 단위로서의 로동일공의 도움을 받아 각종 로동을 계산하며 조합의 공동경제에 각개 꼴호즈원이 참가할 기준을 결정한다。 꼴호즈원의 로동은 얼꾼의 기술자격과 로동의 복잡성과 경중성에 따라 또는 조합의 중요성에 의하여 로동일공으로 평가된다。 이와 동시에 로동일공은 개인수용의 목적에로 배당되는 조합 수입의 一부분의 분배에서 각개 꼴호즈원이 참가하는 분량으로 결정된다。

조합의 공동경제의 리해관계와 집단로동의 생산률의 제고는 농업 알쩰리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보수원칙을 더 훌륭히 실현할 목적으로 로동일을 백방으로 가일층 견고할것을 요구한다。 전후五개년 계획에관한 법령은 꼴호즈 수입분배에서 로동일공의 역활을 견고히하며 제고하며 수확고의 제고와 가축양육과 그의 증산을 제고한데 대한 첨부보상을 광범히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

로동일공과 로임간에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二개 형태—국가적(전인민적) 및 꼴호즈—협동조합—의 차이점으로부터 출발하는 차이점이있다。

국영 기업소에서 생산된 생산품은 전체 사회주의 사회의 관리에로 들어간다。 그런까닭에 로임은 그 기업소의 수입에 직접 관계된것이 아니다。 로임은 임률재와 생산기준의 도움을 받아 국가 기관이 설정하고 조절한 미리 결정된 량이다。 꼴호즈의 생산품은 그 알쩰리에 속하는것이다。 농업 알쩰리는 국가의무를 실행하고 규약에의한 공동폰드를 조성한후에 꼴호즈원이 작업한 로동일공수에 의하여 그들간에 수입을 분배하는것이다。 꼴호즈원의 수입은 미리 결정된 량으로 될수없다。 그것은 각개 꼴호즈가 받는 공동수입의 량과 꼴호즈원이 작업한 로동일공수에 직접 의존된 까닭이다。 일정한 작업을 실행함에 요구되는 열공수와 로동일공으로 작업을 평가하는것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것

이 아니라 농업알쩰리 집행부에 의하여 결정된후 국가가 권고하는 표준적 생산기준과 로동일공에서의 작업 평가에 기초하여 꼴호즈원 총회에서 비준된다。

국영 기업소에서와 꼴호즈에서의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의 실현방법이 상이한것은 로동자의 임금은 화폐형태를 가졌고 꼴호즈원들의 수입은 현물 및 현금이 로동일공에 의하여 분배되는데 있는것이다。 그외에도 로동일공에 의하여 받은 생산품의 일부분과 개인 부업에서 받은 생산품의 一부분을 꼴호즈원은 꼴호즈시장에서 실현하는까닭이다。

로동일공에의한 수입의 분배는 꼴호즈에서의 로동조직의 중요원칙이다。 그는 꼴호즈원들의 로동 생산성 제고에서 물질적 리해관계를 조성하며 소부르죠아적 평균제에 대하여 공격을 하는것이다。 그런데 꼴호즈건설의 경험은 로동의 결과를 타산하지않고 작업한 로동일공수에 의하여서만 분배되는 때에는 로동일공에 의한 수입분배는 평균제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다는것을 표시하였다。 생산 반과 조에서, 달성한 수확을 계산하지 않고 로동일공에 의하여서만 수입을 분배한 종전의 실천은 다수경우에 있어서 선구자—정직하게 로동한 꼴호즈원은 태만하게 로동한 꼴호즈원에 비하여 불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던 것이다。

一九四一년에 채택된 쏘련 인민위원 쏘베트와 쏘련 공산당(볼쉐위끼)중앙위원회의 결의는 농작물 수확 제고와 가축의 양육과 그의 증산성을 제고함에 대한 꼴호즈원들의 첨부 보상제를 설정하였다。 첨부 로동보수는 로동과 수용의 척도로서의 로동일공의 가일층 발전을 의미하는것이다。 이 첨부 보상제는 로동일공에의한 보수제도에, 모순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와반대로 로동일공의 견고와 그의 역활의 제고를 조장하는것이다。 그것은 첨부 보상은 꼴호즈원이 작업한 로동일공의 질과 량에 완전히 해당하게 꼴호즈원에게 분배되는 까닭이다。 첨부 보상을 실시한 결과에 로동일공은 지출한 로동의 질과 그의 최후 결과를 가장 완전히 표현하게 되었다。

「전후기에 있어서의 농업 향상에관한 제시책」에 대한 쏘련 공산당(볼쉐위끼)중앙 위원회의 一九四七년 二월 총회의 결의와「꼴호즈에서의 로동조직개선、로동생산성의 제고、로동보수의 정리에관한 제시책」에 대한 一九四八년 四월 十九일 쏘련 내각의 결의는 로동보수에 있는 결점을 청산하며 각개 꼴호즈원의 로동에대한 가치있는 보수를 보장하는 농작업과 목축업에서의 새 로동보수 질서를 설정하였다。 지금은 첨부 보상뿐 아니라 꼴호즈원의 기본 로동보수도 로동의 최후 결과에 의존된것이다。 전원에서 로동하는 꼴호즈원의 로동보수는 생산반이 거둔 수확을 계산하여 실시하며 생산반내

에서는 생산조가 거둔 수확을 계산하는바 비교적 높은 수확을 거둔 생산반과 생산조에 속하는 꼴호즈원들은 그에 해당되는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게되는것이요 비교적 낮은 수확을 거둔 생산반과 생산조에 속하는 꼴호즈원들은 비교적 적은 보수를 받게되는 것이다。목축업에서 일하는 꼴호즈원들의 로동보수는 착유량(搾乳量)、전모량(剪毛量)、유축(乳畜)양육、가축의 체중(体重)의 증가와 역축(役畜)및 생산가축을 살지운 정도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이다。거둔 수확과 공동 축산 상태와 화폐수입에 직접 의존하여 꼴호즈위원장、생산반장、목축부장의 로동보수도 결정된다。

로동 조직과 보수에대한 새 질서는 로동일공의 지출을 계획하며 통제할것을 예견하였다。정부는 일년 생산 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안을 작성함과 동시에 각 경제 분야와 각개 작물혹은 동종류의 작물 그루빠—생산반 및 생산조에 대하여 가축의 종류에 대하여—와 목축부에 대하여 로동일공의 지출 계획을 작성하라고 꼴호즈의 집행부에 제의하였다。로동일공의 지출은 반드시 작성된 계획에 엄격히 해당되게 할것이며 로동일공을 초과지출한 각개 사실은 심섬한 검열과 토의 대상으로 반드시 되어야 할것이다。쓸데없는 관리 및 종업원의 직책을 축소하며 꼴호즈 경제의 범위와 복잡성에 의하여 정률을 설정하라고 꼴호즈들에 제의하였다 이 시책들은 꼴호즈일공 랑비와 투쟁하며 전체 꼴호즈원이 로동과 수입분배에 참가한것을 통계 통제하는 척도로서의 로동일공을 더욱 견고히하는 수단으로 리용한것이다。

꼴호즈에서의 로동조직과 로동보수의 중대과업은 도급제를 인입하는것이다。도급제 로동보수는 로동의 질과 량에의한、사회주의적 보수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훌륭한 형태이다。도급제는 로동생산성의 제고와 꼴호즈와 꼴호즈원들의 현물 현금 수입을 증가하며 꼴호즈를 가일층 조직—경제적으로 견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생산반과 생산조에서의 전체 농작업은 규칙적으로 개인적 또는 소그루빠적 도급제에 기초하여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개인적 도급제는 가장 자극적인 로동보수 형태인바 그는 각개 꼴호즈원의 로동을 따로 개인적으로 통계하는 조건하에서만이 적용되는것이다。소그루빠(생산조)적 도급제는 생산조의 공동 작업이 전체 그의 성원에게 평균으로 분배되는 로동보수제도를 말하는것이다。소그루빠적 도급제는 생산조전에 의하여 꼴호즈원의 개인 작업을 통계할수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경험은 개인적 소그루빠적 도급제를 철저히 실시하는것은 로동조직에서 오합지중적 작업、책임회피와 평균제를 청산한다는것을 표시하였다。

도급제 로동보수를 성공적으로 인입하기 위하여 생산기준과 로동평가를 반드시 정확히 설정할것이다。로동일공으로된 생산기준과 로동평가는 각개 꼴호즈원의 매일 과제의 범위를 정할수 있게하며 생산에서와 수입 분배에서 꼴호즈원이 참가하는 분량을 결정할수 있게하는 것이다。농업알쩰리의 규약에 의하면、생산기준은、선진적이요 량심적인 꼴호즈원이 달성한 로동생산성의 수준에 해당하게 설정되는것이며 로동 평가는 각개 작업의 성격、복잡성、경중성、중요성에 따라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까지 꼴호즈들에 존재하던 생산기준은 이 규약적 요구에 보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다수 꼴호즈들에서는 로동일공에서 락후된 생산기준과 로동평가가 작용하였던 것이다。그것은 로동생산성이 달성한 수준보다 대단히 락후하였던 것이다。

쏘베트 정부는 로동조직과 보수에서 결점을 청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산기준과 로동일공에서의 유일한 평가를 꼴호즈에 제의하였다。이에 해당하게 꼴호즈들은 실시되고있는 생산기준과 로동평가를 재검토하였으며 자기 경제의 특징과 선진 꼴호즈원들이 달성한 로동 생산성의 수준을 타산하면서 새 기준을 설정하였다。동시에 로동일공에서의 로동평가도 재검토하였던 것이다。七등급률 대신에 九등급률을 채택하였는바 제一등급의 로동보수는 ○·五 로동일공、제九등급의로동보수는 二·五로동일공을 정하였다。로동평가를 개정한것은 중요 로동에는 비교적 높우 보수와 二차적인 로동에는 낮은 보수를 보장하였다。

꼴호즈에서의 로동보수 조직을 개선하는 이 모든 시책은 꼴호즈 수입분배에서의 부족점을 퇴치할 가능을 주었으며 로동과 수용의 척도로서의 로동일공을 더 견고히 할것과 꼴호즈원들의 물질 복리상태를 제고하며 꼴호즈 제도를 견고히 할것을 보장한다。

당과 정부가 실시한 시책의 결과에 꼴호즈에서 로동조직이 훨씬 개선되었으며 로동 규률이 제고되었으며 꼴호즈원들 중에서 사회주의 경쟁이 더 널리 전개되었다。포월지예의 다수 지방에서의 기후상 조건이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一九四八년도의 쏘련 전부의 알곡작물의 총수확은 七○억 뿌드(一뿌드는 十六 키로=역자)를 초과하였는바 전전一九四○년의 수준을 조금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매헥딸의 화곡 작물의 평균 수확은 전전 수준을 초과한것이다。가축두수가 대단히 증가하였고 축산의 증산률이 증가하였다。

× × ×

전후시기에 쏘베트 국가앞에 나선 위대한 과업은 당、쏘베트、직맹、경제조직으로부터 『각자로부터는 그의 기능에 의하여 각자에게는 그의 로동에 의하여』란 사회주의적 원칙을 백방으로 견고히하며 사회주의적 로동규률을 견고히하며 로동자와 꼴호즈원들의 창조적 열성을 더 전개할것을 요구한다。

로동에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철저히 실서하며 이 사회주의 기본원칙에 해당하게 로동보수를 올바르게 조직하는것은 우리 국가에서의 생산력의 가일층 장성과 생산품의 풍족을 조성하며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불가피한 조건으로 된다(『볼쉐위끼』지 一九四九년제三호)

미국독점가들과 일본독점가들의 협작

므·루끼야노바

전후 세계의 중심문제중의 하나로 되고있는 것은 일본에대한 문제이다。일본의 침략은 인류에게 막대한 희생을 가져왔기 때문에 세계의 인민들은 일본이 평화를 애호하는 민주주의적 국가로 되는때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그러나 미국은 국제적협력의 원칙에서 리탈하고 포츠담선언도 위반하고 있으며 일본의 무력을 격멸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가한 국가들을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행동하면서 실제적으로 침략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일본을 재생시키고있다。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전세계, 의 근로자들에게 큰 불안을 일으키고있다。

일본에서 미국이 실시하고있는 정책은 세계패권에대한, 특히 중국 인도네시야 및 기타 극동제국들을 경제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는 미제국주의의 야망과 긴밀하게 련결되어있다。『어제까지의 침략자들이였던 독일과 일본의 자본주의적 거물들은 북미합중국에 의하여 구라파와 아세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도구로 되는 새로운 역활을 하도록 준비되고 있는것이다』라고 一九四七년 九월말 개최되였던 수개국 공산당 대표자대회의 선언서에는 씌여 있다。(『一九四七년 九월말 파란에서 수개국공산당 대표자들의 보도회의』一九四八년판 七페지)

그 선언서에는 또한 제二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미국이 취하고있던 로선 즉 시장들에서 독일과 일본의 경쟁자들을 쫓아내고 자기의 우세한 지위를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을 추구하던 그러한 길을 현재 미국의 정책은 계속하고 있다는데 대하여서도 지적하고있다。

미국의 독점자본은 수십년 동안에걸쳐 일본의 독점자본들을 극동의 지배를 위한 자기들의 투쟁에 있어서 보다 젊은 동맹자로 리용하려고 시도

하여왔다。이러한 첫시도는 벌써 十九세기말에 있었는바 그때 미국은 제국주의국가들간에 아직 종국적으로 분활되지않고있는 세계의 많지않은 지역중의 일부이였던 중국에 대하여 처음으로 자기의 강요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문호개방주의(門戶開放主義)』를 선포하면서 미제국주의는 중국에 있어서 자기들의 지반을 전취하며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을 다른 렬강들을 반대하는 도구로 전변시키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그당시 미국은 로씨야를 중국에서의 자기들의 리해관계에대한 큰 위협으로 보고 있었으며 극동을 적극적으로 침략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장애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미국은 일본의 무력이 화북, 만주 및 조선에서 자기들이 지배적지위를 획득하는 길을 닦아주는것으로 기대하면서 로씨야에 대하여 침략적인 전쟁을 준비하고있던 일본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주었던 것이다。로일전쟁시기에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지지하였다는것은 다아는 사실이다。그때 이미 미국의 대자본은 일본의 기업들을 자기에게 예속시키며 그들에 대한 금융적 지배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일본의 자본주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계획에 얽매이고마는 그러한 역활에 순응하려고 하지않았다。 시초에 미국의 지지를 받지않으면 안될 곤난한 시기에 있어서 일본 자본이 북부중국과 조선에서 지반을 획득함을 미국인들이 방해하지않았으므로 그후에 이르러 일본제국주의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식민지적 략탈의 결과에서 국내의 상태를 공고케하고 중국에대한 자기의 침략 야망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경제적력량, 주요하게는 군사적 력량이 강화됨에 따라 두개의 제국주의강도인 일본과 미국 사이의 경쟁은 심하여갔다。이러한 투쟁은 제一차 세계대전시에 특히 심하여졌던 것이다。一九一五년 一월에 일본은 중국에 대하여 유명한 二十一개조의 요구를 제출하였었고 전쟁이 끝나자 일본은 중국을 자기의 보호하에 넣으려는 투쟁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자들간에 충돌이 폭발될 위험이 격화되고있던 그시기에 있어서 이것을 방지한 요소중의 하나는 로씨야에 있어서의 위대한 十월사회주의혁명의 승리이였으니 여기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는 한쌍의 주요한 적(敵)으로 되었던 것이다。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쏘베트국가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단결하려고 시도하였다。물론·이것으로써 일본과 미국간의 투쟁이 폐지된것을 의미하는것은 전혀 아니였다。 제一차세계대전의 결과로

부유하여졌고 강화된 미국자본은 자기의 경쟁자인 일본을 일층 완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하였다。드디어 미국은 일본에 대하여 전쟁의 주요한 로획물들의 수득을 거절할것과 다른 제국주의 렬강들과 공동적으로 중국인민과 또한 중국의 풍부한 부원을 착취하는데 동의하라고 강요하였던 것이다。

자본주의의 일반적위기의 시기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간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던 것이다。자본주의 세계내부의 자체모순과 병행하여 자본주의세계전체와 세계의 일부에 수립된 사회주의간에도 모순이 발생하였다。이 모순은 쓰딸린이 지적한 바와같이『자본주의의 모든 모순들을 뿌리까지 들춰놓으며 그 모순들을 한뭉치에 모아놓고 그리하여 그것을 자본주의적 제도 자체의 생사문제로 변환시키고있다。그러므로 매양 자본주의적 모순들이 첨예화되기 시작하는 때마다 부르죠아지는 자기의 시선을 쏘련의 편으로 돌린다。즉 쏘련을 희생시켜서 자본주의의 이런 모순이나 혹은 저런 모순들을 해결할수 없을까라고 한다』(쓰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평양판 제二권 三一〇페지)이러한 정세는 일본과 미국간의 관계의 발전에도 완전하게 적합한다。일미간의 모순이 첨예화하며 극동의 시장에대한 대립을 배제해버리려는 경향과 병행하여 일본과 미국간에는 호상간에 협력하며 그리고 쏘련을 반대하는 공동적 활동에 대한 협약과 쏘베트동맹을 회생함으로써 일미간의 모순을 해결할데대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향이 언제나 있었다。

미국의 금융자본은 쏘련을 반대하는 공동적인 투쟁을 위하여 그리고 아세야제국의 민족해방운동을 진압하기위한 극동의 헌병으로 일본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애를 써왔다。아・스다노브는 一九四七년 九월말에 개최되었던 수개국공산당 보도회의 석상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에서 지적하기를「세계 특히 영、미、불의 반동적 제국주의분자들은 독일과 일본……에 첫 차례로 히틀러독일에 대하여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그 기대란것은 첫째로 쏘련을 격멸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쏘련을 쇠약하게하며 쏘련의 영향을 배제하는데 있어서 독일이 가장 유력하다는것이며 둘째로 독일자체내에서와 히틀러침략의 대상이되는 모든 국가들의 혁명적 로동운동과 민주운동을 격멸함으로써 자본주의 일반적위기를 강화시킬 능력을 독일이 가졌다는것이었다。」(동상 二一四페지) 과연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二차세계대전 전야에 중국에서 일본에게 양보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극동에 있어서의 이러한、「문헨」식 정책은 미국과 영국이 중국에서、특히 일본이 쏘련을 침공하기위한 전략기지로 보고있던 만주에서 일본이 자기의 세력범위를 가지는 권리를 승인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였다。一九三一년에 만주를 점령하였으며 一九三七년에는 화북에 침입한 일본의 침략행동에 대하여 미국의 통치배들은 이것을 조지하기위한 하등의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미국의 지도적정책은「중국에서의 일본의 수요와 리해관계를 리해한다」라는 여론을 일으키는 것이었다。미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극동의 시장들을 착취하는데 있어서 자기에게 적당한 몫(分)을 보장하여 줄것만을 일본에 대하여 충동하는데 열중하고 있었다。일본이 미국에 대한 전쟁을 개시한 그때에 있어서까지도 미국의 독점 자본가들은 침략적 일본제국주의를 소멸하는데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서의 일본을 배제하는것을 갈망하고 있었다。전쟁시기에 월가(街)는 일본을 완전하게 격멸함을 반대하여 나서고있었고 일본에대한 평화조건을「관대」하게 할것을 호소하였다。미국독점자본이 특권적으로 주인노릇을 하고있는 일본은 극동에서의 헌병으로서、「아세야의 산업공장」으로서、세계패권을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투쟁에 있어서의 아주 큰 의의를 가지고있다。

제二차세계대전의 종결로 쏘련의 국제적의의와 위신은 한량없이 장성하였다。식민지 및 예속국가들에서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의 장성은 식민지체계의 위기를 첨예화하게 하였고 제국주의의 후방을 위협 하였다。쏘련 및 전세계의 민주주의 운동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자처하고 있으며 국제적 반동의 성색으로 되고있고 세계제패의 목적을 세우고있는 미국은「제二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다음날에 바로 쏘련과 세계의 민주주의에 적대되는 전선을 복구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동상 二一一페지) 제국주의일본을 부활시키는것은 반민주주의적 세력을 규합하는 미국정책의 조직적인 일부분이다。미제국주의는 쏘련을 반대하는 전략기지로써 민족적 독립을 말살하며 인민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데 있어서의 도구로서 아세야의 제국들을 경제적으로 노예화하는 도구로서 일본을 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전쟁전에 미국의 자본가들은 극동의 시장들을 착취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자본가들과 협력하여 적지않은 리익을 짜내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있다。물론 그 협력이라는 것은 리윤의 분활을 위한 제국주의적 략탈에 있어서 지도적역활을 하기위하여 일본과 미국의 독점자본가들 사이의 맹정한 경쟁밑에 진행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강탈자들에게 모두 리익을 주었다。대외무역、크게

지트、콩독적 카르텔의 체정 및 산업기업소득에 대한 트가ㅣ이와같은 것이 있으며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이 협작을 실현하는 주요한 형태이었다。미독점자본가들은 이러한 협작을 더욱 많은 리익을 획득할수있는 조건위에서 계속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다。일부이 전패한 결과로 그들은 자기들의 숙망을 실현하였고 예속적 조건위에서 협동할것을 일본의 자본가들에게 강요하였다。그들은 일본의 산업 금융 및 대외무역등을 완전하게 예속시키기위한 지반을 닦고있다。

× × ×

제一차로부터 제二차에 이르는 세계대전 기간중에있어 일본에대한 미국자본의 수출은 주로 차관(借款) 및 산업에대한 투자의 형태로 실시되었다。미국의 투자는 일본의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의 강화를 촉진하였다。미국의 은행들은 막대한 액수의 장기(長期) 크레지트를 두말할것없이 자기들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일본에게 대차하였던 것이다。진재(震災)이후 一九二四년에 일본은 六분五리리자부(六分五厘利子付)로 총액 三억九〇만원의 딸라차관을「부흥목적」으로 대부받았던 것이다。이 차관은 쿤·레브와 모르간 그리고 나쇼날·시티 은행들에 의하여 조달되었다。一九三〇년에 일본은 총액 一억四천二백四〇만원에 달하는 제二차의 딸라차관을 五분五리리자부(五分五厘利子付)로 받았다。(영문「일본 년감」一九三三년판 三〇三폐지) 모르간은 일본의 재벌 특히 미쯔이(三井)와 가장 긴밀한 재정적 련결을 설정하고 있었다。一九二四―一九三一년간만 하여도 일본의 재벌들은 二억八천四백만원에 달하는 각종의 차관을 모르간으로부터 대부받았다。「오리엔딸·애코노미스트」지(一九四六·七·一三)의 자료에 의하면 一九四〇년에 일본의 외국차관 총액은 약 二十억원에 달하고 있었는바 그중 정부가 차관받은것은 十四억원이었으며 시(市)가 차관받은것은 약 二억五천만원이었고 민간회사들이 차관받은것은 三억五천만원이었다。一九四〇년에 일본에대한 미국의 장기차관은 약 七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일본의 대산업자본가들은 미국의 딸라에 의하여 군사적 목적을 가진 새롭고 중요한 산업부문들 즉 아류미늄、마구네슘、항공기(航空機)등 산업들을 창설하였었고 금속과 화학공업 및 기타공업을 확장하였던 것이다。

현재에있어 모르간은 일본의 주권(株券) 및 채권(債券)을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소유하고있는 재벌이다。나쇼날·시티 은행은 일본문제에 새로이 나타난 큰 리해관계자이다。이 은행의 큰 주주(株主)로되고 있는 것이 또한 모르간이며 칼포니

아의 대은행가인 지아닌도 그외 주요한 주주이다。

제二차세계대전까지의 일본산업에대한 외국의 투자는 비교적 크지 않았다。일본의 자본가들은 일본 로동자들에 대한 자기들의「독점」을 열심히 고수하고 있었으며 모든 힘을 다하여 외국의 자본이 일본에 들어옴을 반대하고 있었다。그러나 외국자본의 류입(流入)을 속박하고있는 조건하에서도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은 전쟁전에 벌써 약간의 부문에 걸쳐 일본경제에 침입하고 있었다。일본상공성(商工省)의 불완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一九三一년에 일본에는 혹은 적게 혹은 많은 정도로 외국자본이 투자되고있는 八十六개의 상업 및 산업회사가 있었다。그외 투자별 국가를 보면 三十大개에는 미국자본이、二十一개에는 영국자본이、十七개에는 독일자본이 그리고 그외는 다른 국가들의 자본이 투자되고 있었다。미국 상무성(商務省)에서는 일본에 대한 산업 자본으로서의 미국의 투자총액이 一九四〇년에있어 약 三억딸라에 달하는것으로 보고 있었다。이러한 자본의 다부분、즉 一억七천八백십만 딸라는 일본의 회사들에 투자되고 있었으며 미국회사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지배되고있는 기업소들에대한 투자는 六천백五십만딸라로 산정되고 있었다。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미국자본의 일본산업에 대한 투자는 일층 많았던 것이다。왜냐하면 미국 또는 일본의 공식자료들은 모두 일미자본이 가지는 호상관계의 복잡한 체계와 특허적(特許的) 관계 및 기타등 또는 일본에서의 미국독점의 세력범위가 대단하게 확장되고 있던것을 반영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자본은 주로 원유증류산업 특히 고오꾸당가뻰정(高오꾸당價揮發油)、전기기계제작、공작기계제작、아류미늄、자동차、화학공업등 군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제一차세계대전후에 특히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던 산업부문들에 투자되고 있었다。맥아더사령부는 전쟁전에 존재하고 있던 미국의 대자본들과 일본의 중공업간에 밀접하게 련결된 리해관계를 증명하여주는 약간의 일본산업에 대한 자료를 공포하였다。그 자료들에 의하면 미쯔비시(三菱)콘체른은 미국의 유력한 회사들인 웨스틴가우스、다이두오겔、스탄다―드·오일 및 아쏘시에이트·오일회사들과 긴밀하게 결탁하고 있었으며 미쯔이(三井)콘체른은 미국의 전기트러스트인 제네랄·예레끄트리크와 오찌스기중기(起重機)회사 및 기타들과 협동하고 있었고 스미또모(住友)콘체른은 미국 및 카나다의 아류미늄 트러스트인 인터나쇼날·스탄다―드·에레끄트리크와 미국의 큰 화학공업회사들 및 미국의 유력한 독점자본인 국제전신전화회사등등과 결합되고 있었다。

미국독점자본이 일본산업에 류입한 약간의 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스탄다ㅡ드・오일・오브・뉴・제쟈와 결탁되고있는 다이두・오델회사는 미쯔비시석유회사의 주권의 절반 즉 二백십만딸라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이 금액은 고오꾸당가휘발유 생산에 투자되고 있었다。미국 아류미늄회사 (메론)는 스미또모 아류미늄회사의 주권의 三十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었고 국제전신전화회사 (모르간)의 산하회사인 인터나쇼날・스탄다ㅡ드・에레끄트리크회사는 스미또모전기화학회사의 주권 二十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회사의 중역 (重役)의 四분의 一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국제전신전화회사는 웨스틴 가우스 (메론)회사와 같이 스미또모금속회사들과 자철강 (磁鐵鋼)에 대한 특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미국독점자본과 일본독점자본들과는 전기기계생산부문에서 특히 밀접하게 결탁되고 있었다。제네랄・에레끄트리크 (모르간)회사는 미쯔이 재벌에 속하고 있으며 일본의 기계제작공장중에서 가장 력사가 깊은 시바우라 (芝浦)공장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었다。제네랄・에레끄트리크회사는 이 공장주권의 四十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었고 이와같은 시실은 시바우라 공장으로 하여금 미국 트러스트의 의사에 의하여 움직이게 하였던 것이다。

一九四〇ㅡ一九四一년간 시바우라공장의 지도부에는 부지배인을 포함한 四명의 제네랄・에레끄트리크의 대표가 참가하고 있었다。웨스틴가우스회사는 또한 일본의 다른 주요한 전기회사들과 카르텔적 (특허적) 련결을 설정하고 있었다。

끼르골을 수반으로하는 미국상원의 위원회가 립증하는바에 의하면 미국의 유력한 연 (鉛)회사인 나쇼날・리드회사는 일본의 화학공업 (찌다늄 및 기타를 생산하는)에 막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一九三七년 이후 일본에 창설된 찌다늄 공업주식회사에는 일본의 주요한 화학콘체룬인 고구산고교 (國産工業)가 그 회사주권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었고 나쇼날・리드의 산하회사인 찌탄캄빠니는 一七・五퍼센트、이・그・파벤인두스트리트 역시 一七・五퍼센트 그리고 불란서의 한회사가 一五퍼센트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나쇼날・리드회사는 이・그・파벤인두스트라르의 주권을 매점 (買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제에 있어서 찌다늄공업회사 전체주권의 三五퍼센트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할수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이외에도 미국의 화학공업회사인 립비ㅡ오엔스ㅡ포드는 일본에서 두번째로 큰 회사인 스미또모초자 (硝子)회사의 주주 (株主)이였으며 자기의 대표를 통하여 그 회사를 관리하는데 참가하

고 있었다。또한 아메리카 리노늄회사는 동경리노늄회사・(야마구찌와 리해관계를 가지는)및 기타와 협동하고 있었다。일본의 자동차공업은 미국의 대재벌인 포ㅡ드와 듀뽄이 그의 큰 주주의 하나로 되고있는 제네랄・모ㅡ터스에 의하여 오랫동안 지배받고 있었다。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은 또한 일본의 재봉가 (싱가)생산、승강기생산、사진부속품생산、영화산업 및 기타생산에도 투자하고 있었다。

미국의 독점자본은 일본산업에대한 투자에서 매우 높은 리윤을 획득하고 있었다。전쟁전에 있어서 미쯔비시전기기계공장들은 그 공장에 투자한 미국인 자본주들에게 리윤의 二〇퍼센트를 배당하고 있었고 제네랄・에레끄트리크는 동경시바우라공장에 대한 자기의 투자에서 二七퍼센트의 리윤을 얻고 있었으며 스탄다ㅡ드・오일 회사는 일본에서의 휘발유공급을 독점하고 일본의 원유정제 (精製) 산업 및 기타에 참가함으로써 막대한 리윤을 획득하고 있었다。일본의 중공업 특히 군사공업에대한 미국자본의 투자는 이와같이 미국과 일본의 독점자본에게 극히 유익한 사업이었다。무기를 생산하며 이를 발사 (發射)하게 일본제국주의를 도와주면서 미국의 대자본가들은 막대한 리득을 얻고 있었고 일본의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을 악화하고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많은 리익을 보고있었던 것이다。

제二차세계대전의 총결후 미국의 대자본들은 미국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점령하고있다는 사실을 리용하여 일본산업에 있어서의 자기들의 지배적지위를 공고하게 하려고 힘쓰고있다。로동자들의 임금이 아주 낮으며 착취률이 매우 높은 일본은 미국자본가들을 위한 대단히 유리한 또 하나의 활동무대로 되고있다。

미국독점자본가들의 의도는 경쟁자들의 재생이 자기들에게는 위협하지않게 하면서 일본의 독점자본가들을 자기들의 목적에 적합하게 예속시키며 리용하려는 것이다。제네랄・에레끄트리크의 대리인들은 시바우라공장들에 다시 나타나 그들의 재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자본은 와까야마 (和歌山)에있는 닛싼 (日産)화학회사공장들의 주권을 절반이나 매수하였고 마쯔오 (松尾)석탄회사、미쯔비시 금속회사、일본금속회사 및 기타의 많은 회사들은 다시금 미국의 투자대상으로 되고있다。그러나 이것은 아직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미국정부의 공식적 대표자들과 거대한 미국독점자본들의 대리인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미국자본의 침투에대한 조건들과 전도를 연구하며 일본경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빈번하게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미국제국주의자들은 일본경제를 미국자본에게 완

전히 계속시킬 원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미국 국방부 차관인 드레이버와 쓰트라이크 및 특별안 협의자들로써 구성되고 있는 사절의 제안은 일본에 있어서의 미국의 대외정책 즉 일본의 군사적 잠세력을 재생시키는 정책의 기초로 되었다。이것과 모든 수단을 다하여 대일강화조약의 체결을 지연시키며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점령을 오랫동안 끌어 보려는 미국 통치배들의 야망과는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자본은 카이로와 포츠담선언에서 이미 예견되어있는 일본의 민주주의화를 결정적으로 거부하고있다。일본에서 미국점령당국이 실시하고있는 정책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강화하며 국가기관들에 있어서 독점자본가와 군벌들의 지위를 공고히하며 일본을 극동에서의 미국의 군사기지로 또한 미국 자본의 유리한 투자지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적산업의 잠세력을 부흥할것을 기도하면서 미국의 자본가들은 일본중공업에 대하여 투자함에 착수하고있다。군사적행동으로 인하여 낡아졌고 또는 상하여진 많은 금속기업소들은 미국의 투자에 의하여 부흥되며 확장될것이 예측되고 있다。위에서 말한 사절의 계산에 의하면 一九五三년에 이르러 일본은 四백五십만톤의 선철생산물과 강철 八백五십만톤 그리고 一천二십만톤의 압연강을 생산할수있는 금속공업력을 가지게될 것이다。(「자 아이론 앤드 콜 트레이드스 레뷰」지 一九四八년 제六권 十一페지) 미국인들에 의하여 계획되고있는 금속생산능력은 일본의 평화적 경제의 요구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화학공업분야에서 미국의 사절은 류산(硫酸) 공장들의 능력을 완전하게 사용하는데로 인도하고 있다。미국사절의 보고서에는 기계제작에 대해서 일본의 모든 기계제작、공작기계 및 베아링그제작 공장들이 반드시 부흥되어야 한다는것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반동배들은 일본군국주의의 키초인 군사적산업을 높은 수준에까지 부흥할것을 기도하고있다。

일본의 군사적산업의 잠세력을 재생시키려는 의향과 일본으로 부터의 배상금을 축소시키려는 미국 반동배들의 두번째의 요구와는 긴밀하게 련결되어있다。파괴하게 되어있고 또는 배상목록에 들어있는 기업소들의 총가격은 미국 사절단에 의하여 약 四분지一로 즉十四억딸라로부터 四억五천七백만딸라로 감소되었다。(「뉴욕 타임스」一九四八년 三월 三일) 이러한 요구는 일본이 배상에 있어서 그의 침략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국가들로 부터의 법적요구들을 만족시키어야 한다는것이 규정되어있는 포츠담선언에 매우 위반되는 것이다。

미국점령당국은 군사적 산업부문에 직접관계있는 기업소들을 파괴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말로써는 선언하고 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파괴하거나 배상의 대상으로 이양할데 대하여 아무러한 대책도 쓰지않고있다。더우기 一九四七년에 맥아더는 배상목록에서 四十五개의 나까지마(中島) 비행기공장과 히노(日野) 공작기계제작공장을 포함한 백二十五개의 군사적공장들을 삭제하는 명령을 내리었다。一九四八년초에 맥아더의 지시에 의하여 소위 비집중화(재벌해체)로부터 면제함과 결부하여 큰 재벌들에 속하고있는 많은 공장들의 파괴가 정지되었다。

일본의 큰군사요항들—요꼬스가(横須賀)、사세호(佐世保)、구레(吳) 및 기타는 파괴되지 않았다。도리어 이곳들에서는 미국기술에 의하여 확장하며 신축하는 거대한 사업이 진행되고있다。많은 비행장들과 방공(防空)설비 및 기타가 보존되어있을 뿐만아니라 그것을 새로이 건축하고있다。

이리하여 전후일본의 산업발전에대한 미국팽창주의자들의 계획은 일본을 새로운 전쟁에로 인도하며 자기들의 침략목적에 복무시키려는 과업에 종속되고있다。물론 미국의 현재지도자들의 이러한 정책은 원동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하게 하려는 고려에서 나온것이 아니다。반대로 그는 극동에서 미국의 지배를 설정하기위한 투쟁에서의 자기들의 병기창을 일본에다 확보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야망에서 나온 것이다。이러한 정책은 일본에대한 태도에 있어서 특히 그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의 쏘련의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쏘배트정부는—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 三十一주년보고에서 몰로또브는 지적하였다—일본에서 군사적 산업들을 완전하게 금지하고 이곳 군사산업의 복구를 용허하지 않기위하여 적당한 국체적 통제설정을 주장하고있다。그러나 그와 동시에 쏘배트정부는 독일이나 일본에서의 평화산업을 말살시키지、말아야 할것을 인정하고있다。독일이나 일본인민에게 평화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그들의 산업이 그들에게 줄수있는 모든것으로 자급자족할수 있는 가능성을 주어야 할것이다」(브·므·몰로또브「위대한 十월사회주의혁명三十一주년보고」一九四八년판 二十三—二十四페지)

일본을 다시금 침략국가로 되지않게 하는데 가장 큰 리해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에 의하여 적당한 통제를 설정함으로써 일본인민들의 물질적행복의 향상을 촉진하며 일본의 경제적자주를 강화하는 그의 평화적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업은 충분하게 해결될 것이다。

일본산업에대한 파렴한 투자를 준비하면서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일본경제에대한 자기들의 지배를 조애하는 모든 장애를 없이하기에 노력하고있다。그들은 일본에 대하여 자기들의 투자가 몰수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줄것, 라익배당금과 리윤을 수출하는데 적당한 자유를 보장하여줄것, 그들을 위하여 높은 리윤을 확보할수있는 특전적(特典的) 세금을 설정할것, 투자에 의하여 기업소들을 관리할수있는 권리를 미국에게 허가할것등을 요구하고있다。월가(街)의 주인들은 일본이 이상과같은 보장들을 립법화할것을 강요하고있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미국에서보다 훨씬높은 리윤을 낼수있는 식민지적 착취방법을 일본에서 유지하는데 특히 관심을 돌리고있다。一九四八년초에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드레이버 사절단은 「정부의 감독에 복종하여야 되도록 직업동맹의 활동을 제한할데대한」 허다하고 가혹한 방법들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였다。이러한 「권고」는 예기한 바와같이 일본독점자본가들의 대단한 찬동을 받았다。드레이버는 또한 언명하기를 일본에 대한 미국자본의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는 일본정부가 과업운동을 진압하는데 단호한 방법들과 프로레타리아트의 생활수준을 낮게 유지하는데 튼튼한 방침을 취하면 일본이 「진정(鎭靜)」될 것이라고 하였다。미국장관(將官)의 이와같은 과렴치한 성명은 로동운동을 진압하며 일본의 프로레타리아트 및 모든 근로자들에대한 식민지적 착취를 견고하게하도록 일본의 재벌들을 더 일층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월가의 기도를 증명한다。

일본의 경제를 완전하게 예속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대자본가들은 재벌들을 원조하는것이 필요하다。재벌들과 미국정부의 조력에 의하여 일본에 계속존재하고있는 반동적 군주정체를 원조함으로써 미국 독점자본가들은 오로지 일본의 인민대중을 복종시키도록 억압하며 그들에게 미국과 일본의 자본 즉 이중적(二重的) 착취의 멍에를 씌우는것을 희망하고있다。그러므로 미국사람들은 포츠담에서 엄숙하게 부담한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면서 일본의 정치 및 경제생활의 민주주의화를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있는것이다。

일본의 독점자본을 청산하는것은 일본을 민주화하며 비군국주의화하는 중요한 조전중의 하나이다。일본의 경제 및 정치생활의 지도로부터 재벌을 배제함이 없이는 국가의 진정한 민주화는 불가능하다。「항복후의 일본에 대한 정책의 기초인」극동위원회의 결의에는 일본의 콘체른인 재벌들을 해체할것이 제안되고있다。그러나 미국점령당국은 재벌청산에관한 이 결의를 실제에 있어서 수행하지 않고있다。재벌「청산」에대한 이야기가 진행되

고있는 동안에 미국과 일본의 독점가들간에서는 협정을 체결하고있다。재벌을 해체하기 위하여 창설된 소위 청산위원회는 큰 콘체른들의 주권 (株券)을 그의 주주(株主)들로부터 몰수함으로써 재벌을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을 획득하였고 미국자본의 모든 요구를 실행하도록 재벌들을 강제하고있다。몰수한 주권을 일본의 취인소(取引所)에서 신속하게 공개적으로 매각한다는 약속은 집행하지않았다。이러한 주권의 일부는 미국독점자본가들의 마음대로 어느시기에있어 그나머지 부분을 월가의 금고에 수용(收容)하는 조건에서 과거의 소유자들에게 반환될수있을 것이다。카르텔의 해체에대한 법률도 또한 하등의 결과도 나타내지 못하였다。일본재벌들의 경제적 지위는 동요되지 않고있다。三二五개의 큰 회사들중에서 二二七개는 「기술상사정」에 의하여 또는 다른 영구적인 구실밑에 해체할것으로부터 이미 면제되었다。

재벌들은 여전하게 기업소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적력량은 손상되지 않았고 종전과 같이 일본의 큰 은행들을 장악하고있다。그들은 일본의 무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던 자본으로부터의 수입 례를들면 전시공채(戰時公債)의 리식(利息)까지도 소득할것을 보장받고있다。그들은 여전하게 일본의 정권을 자기들의 리익에 리용함을 계속하고있다。(많은 대신들과 이전의 수상 「아시다(蘆田)」까지도 포함한) 일본정권기관의 허다한 고관들이 「쇼와전공(昭和電工)」회사로부터 뢰물을 받았다고 문책(問責)을 받게된것과 관련한 일본의 통치배들이 매수되고 있으며 지배받고 있었다는것을 폭로한 추문(醜聞) 사건은 아직까지도 정권기관의 상층부는 재벌들에 의하여 부양(扶養) 받고 있으며 그들의 주구라는것을 증명하였다。

일본의 독점자본가들은 미국의 점령정책을 지지찬동하는데 자기들이 구조(救助)되는 길이 있다고 인정한다。그들은 현재에 있어서 미국의 지시에 순종하는것은 그들이 미국의 후원을 보장받을수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것을 리해하고있다。미국독점자본을 조력함으로써 재벌들은 포츠담선언에 규정되어있는 그들의 운명을 피하여 보려고 하고있다。그러므로 일본독점자본가들은 미국의 팽창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미국사람들과 협작할 자기들의 각오를 백방으로 선언하고있다。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마이니찌(每日)신문(一九四八·五·三〇)이 일본의 유명한 대 금융가들의 제의 즉 일본을 미국경제체계에 포함시키며 엥(圓)의 가치를 딸라에 고착시키고 「심리적 리유에 따라」 일본의 엥(圓)을 「일본딸라」라고 개칭하자고 하였다

고 보도한것은 특경적이다。일본금융자본의 두개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강령에는 미국자본을 일본산업에 흡수할데대한 문제가 중심적문제의 하나를 차지하고있다。

× × ×

미국독점자본가들은 일본경제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있는 일본의 대외무역에 대한 지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있다。이는바와같이 일본이 원래 소유하는 원료자원이라는것은 아주 제한되어있으며 일본의 군사 전략적자원은 부족하다。전쟁전 일본의 산업은 주로 원료를 수입하여 움직이고 있었고 그밖에도 기계 공작기계 및 기타 산업설비품과 중공업제품들을 수입하고 있었다。일본은 미국상품의 큰 판매시장이었다。

『록우다』의 자료에 의하면 一九三六년에 미국의 수출에서 일본은 다만 카나다와 영국에 다음가는 제三위를 점하고 있었다。일본에대한 미국의 수출이 전아세아에대한 그의 수출의 절반을 점하고 있었고 또는 남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수출과 동등하였다는것을 말하면 충분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면화의 가장 큰 수요자이었으며 미국면화는 일본의 수입종목중의 가장 주요한 것이었다。一九三二년부터 一九三九년에 이르는 동안 일본은 매년 미국면화 총수출의 四분의一、어떤해에는 三분의一까지도 구입하고 있었다。일본에서 미국면화의 수업은 큰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미쯔이재벌이 지도적역할을 하고 있었다。미국의 면화는 일본에서 면화제품으로 제조되어 동아세아의 시장들에 수출되고 있었다。일본재벌들은 자기들의 방적공장에서 반봉건적 방법으로 로동자들을 착취하여 막대한 리득을 얻고있었고 이 공장들에 미국자본의 참가는 전혀 거절되고 있었다。일본이 전패한 지금에 있어서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이 방면에서 과분한 리윤을 강요하고 있다。미국자본가들은 일본에서의 자기들의 면화시장을 백방으로 부흥하며 확장하고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자본가들은 면화를 일본에 판매하는데서 얻는 리익만으로서는 이미 만족하지 않는다。그러므로 그들은 일본의 방적공장들에대한 미국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일본자본가들에게 강요하고있으며 이렇게함으로써 면화가공에 있어서의 많은 리윤의 배당을 확보하고있다。

요지음 미국에서 네개의 큰 은행들로써 (그중에는 나쇼날·시티은행과 체이즈·나쇼날은행도 들어있다) 은행단(銀行團)이 창설되었다。이 은행단은 미국무역은행의 조력을 받아 일본이 (사실은 일·미 합작자본가들이) 미국면화를 구입하는 자금을 차관 주었는바 그 조건은 그 자금으로 구입한

면화로 제조된 방직물의 六〇퍼센트는 외국시장 주로 중국과 조선에서 판매되어야한다는 것이다。여기에서 미국 독점자본가들은 이중의 리득 즉 면화를 판매하는데서와 일본로동자들의 눅은 로동으로 생산된 방직물을 판매하는데서의 리득을 얻고있다。이와같이하여 미국자본은 일본의 방직공업을 예속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미국팽창은 위에 말한바와같이 방적공업에만 그치지않는다。미국독점자본가들은 일본의 기타산업부문에 대하여서도 과거의 투자를 확장하며 또는 새로운 자본을 투자하려고 기도한다。자동차 및 화학공업、전기기계、인조견사(人造絹糸) 및 기타 주로 수출품을 생산하는 적지않은 산업부문들이 또한 미국트러스트의 영향하에 들어가고있다。

미국독점자본은 일본독점자본에게 수출품을 생산하는 산업부문에서와 원료와 그리고 군사—전략적물자를 공급하는데 있어서의 유리한 지위를 양보하라고 강요하고있다。

제二차세계대전전에 이미 미국독점자본은 미국정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군사전략적원료를 공급함으로써 일본에대하여 큰 방조를 주었다。일본에대한 이러한 공급은 그들에게 많은 리득을 주었다。

일본 독점자본가들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막대한 군사전략적원료、산업설비품、탄약 및 기타 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자들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의 대부분은 외국 특히 미국에서 구입한 것이었다。一九三二—一九四一년동안에 일본은 매년 미국으로부터 철 및 강철의 파물(破物)을 그 전체수입량의 九〇퍼센트、四五퍼센트의 철 및 강철 반제품、四五퍼센트의 연(鉛)、九〇퍼센트의 동(銅)、一八퍼센트의 아루미늄 그리고 六五퍼센트의 원유 및 원유제품을 수입하고있었다。

일본에대한 전쟁용 물자의 공급은 미국의 거대한 독점적 상사(商社)들이 실행하였다。이리하여 일본에서의 총휘발유조달량의 절반이상은 록크훼라의 석유트러스트인 스탄다—드·오일·오브·뉴—저씨가 공급하였고 파철(破鐵)과 흑색금속공급에 대하여서는 미국강철수출회사、베드레헴 강철수출회사、레쓰뿌부리크 강철회사등과같은 유력한 미국의 회사들이 들어있는 미국강철수출동업조합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있었다。이러한 카르텔들은 모르간、메론 및 끄리브렌드등 미국의 유력한 세개의 금융과두(寡頭)집단에 의하여 관리되고있다。일본의 군사적콘체른들은 아루미늄을 메론이 지배하는 큰 아루미늄트러스트인 아메리카 아루미늄 캄빠니(아르코아)로부터 구입하고있었는데 이 회사는 一九三〇년 츄리츠히 협정에 의하여 일본시장에서의 아루미늄 총 교역액의 五二퍼센트에 달하는 공급권을

가지고있었다(『카르젤의 활동』 뉴욕 一九四七년 판 二五四페지)이 협정은 제二차대전의 초기까지 즉 그때 이미 일본은 현저하게 자기의 아루미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지고있었다。

미국의 일본에대한 전쟁물자수출은 부단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일본이 진주만(眞珠灣)을 공격한 바로전에 있어서도 미국의 대일 총수출의 대부분은 전쟁물자가 점하고있었다。미국잡지 『안나르스』(一九四一년五월)에서의 자료에 의하면 一九四〇년까지에 미국의 일본에대한 원유、금속、금속가공용 공작기계 등등의 수출은 그의 대일 총수출량의 三분의二이상에 달하고있었다。그러나 一九三六년에 있어서는 그것이 三분의一에도 달하지못하고 있었던것이다。미국출판물은 보도하기를 一九三七—一九四〇년간에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주로 전쟁물자의 댓가로 六억九천三백만 딸라에 달하는 거액을 금(金)으로 지불 받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중요성을 가지는 물품들의 수출은 일본제국주의로 하여금 침략을 폭발시키도록 도와주었고 일본 독점가들로 하여금 군사적산업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었으며 일본 군대가 전쟁수행에 있어서의 새로운 장비들로 무장하도록 장비하였던것이다。세계의 자유애호인민들의 리해관계에 손해를 주고 미국의 민족적 리해관계에 해독을 끼치면서 미국 독점자본들은 일본 침략자에게 전쟁물자를 공급함으로써 계속 부하여졌던것이다。

미국독점자본가들은 지금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유의 원천을 버리기를 원하지않는다。다년간 일본재벌들과 결탁되고있는 미국의 트러스트와 은행들의 리해관계를 대표하는 트례이버사절단이 一九四八년초에 일본을 방문한 이후로부터 일본에대한 전략적원료의 반입이 점차적으로 회복되고있다。일본에 대한 미국의 원유와 휘발유의 수출이 증가하고있으며 화란령인도로부터 아루미늄산업을위한 철반토(鐵礬土)를 매년 一〇만톤 수입할것이 이미 허가되었고 일본은 막대한 파철(破鐵) 및 기타의 저장을 양도받고있다。

미국독점자본은 또한 일본상품을、미국에 수입하는데서도 많은 리익을 보고있었다。일본생사(生糸)의 수출은 완전히 미국에 향하고있었다。일본생사수출총액의 九四퍼센트는 미쯔이콘체룬의 산하회사이며 자기의 지사를 미국에 가지고있던 미쯔이물산(三井物產)을 비롯하여 七개의 큰 일본회사들의 수중에 있었다。一九四〇년에 미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총구입량의 약 三분의二는 생사이었으며 그것은 미국산업의 수요를 약八〇퍼센트 충족시키고 있었다。이와같이 일본의 중요한 수출품의 대상국이 일방적이였다는것은 일본의 모든 수출을 미국에게 극단하게 예속시키는 원인으로 되었던것이다。

전쟁전 몇해동안에 일본상품의 미국에대한 수출은 증대하였었다。미국의 전체수입에 있어서의 일본상품이 점하던 비중관계를 보면 一九三七—一九四〇년동안에 일본직조물은 미국이 수입하는 총직조물의 평균 五〇퍼센트이상을 점하고있었고 표백직물(漂白織物)은 六五퍼센트이상、베르벳트는 九九·九퍼센트、식기류(食器類)는 四五—六五퍼센트에 달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 수입하는 약간의 어류생산품과 약품(장뇌—樟腦、박하—薄荷등)은 전혀 일본에서 수입되고있었다。미국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백방의 정책을 쓰면서도 일본상품에 대하여서는 그를 상당하게 수입함을 허용하고있었다。미국에대한 수출에서의 수입(收入)은 일본의 막대한 군사비용을 크게 보상하여주었던것이다。

일본과의 미국의 무역은 전혀 일방적인 성질을 가지고있었다。일본에대한 미국의 수출은 일본으로부터의 그의 수입보다 매우 초과하고있었다。미국과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일본무역바란스의 소극성은 일본의 경제를 미국에게 예속시키게 하였던것이다。전쟁종결후 미국독점자본은 이와같은 방면에서 일본을 예속시키는것을 강화하고있다。이리하여 제二차세계대전까지에 일본의 수입중에서 미국상품이 점하는 비률이 三〇·九퍼센트이였다면 一九四七년에 있어서는 八八·四퍼센트로 증장하였다。다른말로 말하면 일본의 수입은 사실상 미국사람들에 의하여 독점되고있다。이와동시에 일본의 수출중에서 미국에 대한것은 二三·六퍼센트로부터 전후에 이르러 一六·九퍼센트로 축소되었다。

현재 미국독점자본들은 일본의 대외무역에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많은 리익을 획득하려고 하고있다。일면으로서는 그들은 미국의 산업생산품과 경쟁할수없는 그러한 일본의 상품들을 이전과같이 미국에 수입하기위한 방법을 취하고있다。례를들면 미국에서의 인조견사의 생산과 결부되어있는 일본의 견사수출은 대단하게 축소하고있는바 이와같은 것은 일본의 아주 중요한 산업부문에대하여 심한 타격을 주는것이다。다른면에 있어서 미국독점자본가들은 동부아세아 제국가의 시장에대한 일본의 수출을 백방으로 확장하고 있다。여기에있어서 미국의 정책은 일본의 평화적산업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관심하지않는것이다。그들이 추구하는것은 리윤뿐이다。일본의 수출에대한 통제를 실시하면서 미국독점자본들은 미국상품들과 경쟁하지않는 일본상품들을 원동의 시장들에 보내고있다。그 수출품종목중

에는 일본의 주민자신에게 소요되는 생활필수품이 허다하게 들어있다。 미국에서 작성되었으며 이미 맥아더사령부에 의하여 실시되고있는 계획에 의하면 최근 三—四년동안에 일본의 수출을 一九四七년에 비하여 七배로 증가시킬것이 예견되어있는바 그것은 一九三〇—一九三四년동안에 있어서의 일본수출의 년평균가격의 七〇퍼센트에 해당한것이다。 여기에만 관련하여서도 일본의 시장은 매년 四억내지 五억딸라의 원료를 추가적으로 수요하는바 이는 곧 일본시장에서 미국상품의 판매를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것이다。

일본의 산업은 이미 주로 미국원료에 의하여 작업하고있다。 그의 가격은 매우 고가(高價)한것이다。 미국에 의하여 독점되고있는 모든 종류의 상품들의 운반비는 그 상품의 가격을 초과하고있다는것을 례로 들면 충분할것이다。 여기에서 일본의 재벌들이 받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일본정부가 도시 및 농촌의 근로주민들에대한 세금을 높임으로써 그를 충분하게 보장하여 주고있다。

미국독점자본들은 상품판매에 있어서 많은 곤난을 체험하고있으며 외국시장들에의한 미국의 의존성은 매우 높아졌다。 지금 미국의 출판물과 또한 일본의 출판물들은 워싱톤의 지시에 의하여 『아세아를 위한』 특별한 『마—샬안』 작성에대한 문제를 론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로동자들의 안가한 로동에 의하여 미국원료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상품들도 리윤할것이 고려되고있다。 극동위원회를 무시하고 미국 국무성에 의하여 一九四八년, 十二월十일에 작성된 『일본경제 안정』 계획은 일본로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더욱 인하할것과, 수출용 산업생산품을 증가시킬것을 예견하고있다。 동시에 일본내에 있어서의 산업생산품 소비는 엄격하게 합리화되어야하며 모든 산업생산품은 미국에대한 일본의· 부채와 일본산업에 자본을 투자한 미국자본가들의 리익금에 충당할 화폐를 확보할 목적으로 외국시장에 수출되어야할것이다。 이와같이 미국자본가들은 일본의 계약당사자(契約當事者)들을 리용하여 아세아의 시장들을 종속시키려고하고있다。 토착(土着) 산업생산품과의 경쟁을 피하게하기위하여 미국독점자본가들은 동남아세아제국에서의 산업발전을 억제하려고 하고있으며 이들국가에서의 정상적인 경제발전에대한 장애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고있다。 일본경제에서 미국자본이 지배적지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일본자본이 이 국가들의 인민을 착취한 리윤의 대부분은 두말할것없이 미국독점가들의 수중에 들어가고만다。

× × ×

전후 일본정부의 모든 지배자들은 일본 및 미국 독점자본에게 복무하는 도구이였다。 가다야마 『사회

당』 내각과, 아시다 『자유당』 내각의 성원들은 일본 독점자본의 충실하고도 보수를 받고있는 주구들이라는것이 폭로되였던것이다。 그들의 정강은 일본의 재벌들이 그들의 미국인 형제인 월가의 대자본들과 부하적(部下的) 지위에서 협력하려는 각오를 명백하게 반영하고있었다。 이러한 정책을 一九四八년十월에 정권을 장악한 자유민주당당수 요시다의 극 반동적인 내각이 더욱 가혹한 방법으로써 적용하였다。

一천억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점령비를 포함하는 전쟁후의 모든 부담을 일본의 근로자들에게 특히 로동계급에게 전가하면서 미국자본으로 일본을 노예화하는 정책 즉 방문하여온 월가의 특사들에게 유리하도록 일본을 편성하는 계획이 확고하게 실행되고있다。 이러한 정책은 일본에서 계속적인 경제적파탄과 로동자들에대한 착취의 강화와 광범한 근로대중들이 미증유의 빈궁에 빠지도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一九四七년과 一九四八년에있어서 일본의 경제는 매우 문란(紊亂)한 상태에 처하여있었다。 제二차 세계대전중에 다소 피해를 받은 산업생산도구들이나마 충분하게 리용되지않고있다。 특히 근로대중의 물질적행복을 좌우하는 평화산업의 생산은 매우 뒤떨어지고있다。 산업의 총생산량은 전쟁전 수준의 절반에도 달하지 못하고있다。 (『오리엔탈·에코노미스트』 一九四八·六·二六) 일본 농촌경제의 쇠퇴는 강화되고있다。

미국의 점령기간중에 거대한 액수로 증대하고있는 일본의 국가예산은 일본의 경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되고있다。 一九四六—四七회계년도의 일본국가예산은 一천九백二〇억만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一九四七—四八년도에는 二천一백四〇억만원에 달하고있으며 一九四八—一九四九년의 국가예산은, 더욱 큰 액수인 三천九백九십四억만원에 달할것이 예견되고있다。 근로자들에대하여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예산편성에서는 큰 부족을 내고있다。 (一九四六년에는 七백六十六억만원, 一九四七년에는 一천二백九十六억만원) 동시에 일본정부는 유산계급에대한 세금을 높이지않으며 투기적 소득을 제한하지않을 뿐만아니라 도리어 국가예산으로써 대자본가들에게 더욱 계속하여 보조금을 주며 특전을 주고있다。 이 소위 쇼와(昭和) 전공회사사건이 보여준바와같이 수十억원에 달하는 국고금(國庫金)이 불법적으로 일본독점자본의 수중에로 넘어갔던것이다。 재정상의 부족액을 보상하기위하여 정부는 지페를 증발하며 일본에서 인푸레숀을 강화하는 정책을 쓰고있다。 전쟁후 二년동안에 (一九四六년봄부터) 일본은행이 발행한 지페의 총

액수는 十五배로 증가하였다。一九四一년의 지폐류통액이 五十九억원이 였다면 一九四八년 十二월二十四일에는 그것이 三천二백억원에 달하였다。화폐가치의 저락(低落)은 막대한 상품부족과 투기와 대자본가들에대한 지출의 증가등으로써 더욱 심하여지고있다。

독점자본가들과 투기업자들은 부유하게하는 인플레숀은 일본의 광대한 주민들 특히 로동계급에대하여서는 타격으로되는 것이다。인푸레숀에의한 물가의 등귀와 세금의 인상은 로동자들의 실질적임금을 급격하게 저락시키었다。련속적으로 등귀하는 물가와 로동자들의 기아적임금과의 파렬(破裂)은 더욱 심하여간다。공식적 자료에 의하면 一九四五—一九四七년동안에 동경에서의 소매가격은 평균 十二배이상으로 등귀하였다。一九四八년 여름에 이르러 그 가격은 다시 七〇퍼센트나 등귀하였고 철도운임은 四배로 우편료금은 三배로 각각 인상되었다。로동자가족의 최저생활비(最低生活費)는 큰 도시들에서 한달에 一만一천원을 요하리만큼 높아졌다。동시에 로동임금률을 매우 낮게 즉 한달에 三천七백원으로 고착(固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있다。일본로동자들의 대부분은 기아적상태에 빠지고있다。

一九四七년 九월에 八시간로동제, 최저로동임금률, 녀성 및 아동로동의 사용제한 및 기타를 제정한 로동법이 통과되였다。그러나 그 법령은 지상공문(紙上空文)에 지나지않는다。一九四七년말에 일본의 주요한 공업중심지들을 려행한 미국신문「그리스챤·싸이엔스·모니따」지의 동경특파원은「항복후의 일본로동자의 대부분은 거의 二〇〇년이전의 상태에서 생활하며 로동하고있다」는것을 강조하지 않을수없었다。기업주들은 로동법령을 무시하면서 임의로 로동시간을 계속 연장하고있다。「샤까이신문(社會新聞)」(一九四八·四·六)이 보도한바와 같이 하찌오지시(八王子市—동경 근방에 있는) 내 四〇〇개 공장의 로동문제에 대하여 시(市) 조사위원회는 립증하기를 여기의「九〇퍼센트의 공장들에서는 로동법령을 위반하고있으며 十二시간로동을 시키고있다」라고 하였다。특히 가혹한것은 녀성과 아동로동의 형편인바 그들의 안가한 로동은 제정된법을 위반하면서 종전과같이 일본의 산업에서 광범하게 사용되고있다。일본 녀성로동자들의 로동임금은 남성로동자와 동일한 로동에대하여 방직공업에서는 四〇퍼센트 기계제조공업에서는 四一퍼센트로 되고있다。(「오리엔딸·에코노미스트」一九四七년 四월五일)

일본에서는 로동시간이 연장되고있는 동시에 막대한 수의 실업자들이 있다。후생성의 자료에의하

면 一九四五년 十월 일본에서는 극심한 생산축소로 말미암아 六개의 큰·산업지대의 공장과 제조소들로부터 전체 로동자의 三분의二가 거리로 쫓겨나왔던것이다。一九四七년말에 일본에서의 실업자수는 五〇〇만이상에 달하게되었다。일본에대하여 심하게 타격을 주었던 一九二九—一九三三년동안의 세계적인 경제공황시기에있어서 일본의 실업자수는 오늘보다 적었고 약 二〇〇만에 달하고 있었다는것은 교훈적이다。전쟁후의 복구사업은 아주 뜨게 진행되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집을 가지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일본근로자들의 절대적인 빈궁화가 더욱 심하여 간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이 반면에 일본과 미국의 독점자본가들과 또한 수많은 투기업자들은 계속적으로 거대한 리윤을 얻고있다。이리하여 일본에서 미국사람들이 주인노릇하는 몇해동안에 일본의 근로대중을 빈궁과 곤난에 빠지게하며 그들에대한 착취를 가강하게 함으로써 새로이 부유하여진 큰 부르죠아지들이 나타나게되었다。

식민지적착취와 근로자들의 정치적무권리를 확고하게하려는 미국 및 일본의 독점자본가들의 야망을 반대하여 일본의 근로자들은 로동계급을 선두로하여 투쟁하고있다。일본로동운동의 세력과 조직성은 장성되었으며 그들의 대렬은 공고하여졌고 단결되어있으며 일본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의식은 제고되었다。일본의 직업동맹들에는 六백三〇만명이상의 로동자들이 조직되어있으며 로동조합들의 맹원수는 부단하게 증가하고있다。一九四八년 상반기만 하여도 二〇〇이상의 새로운 로동조합 단체들이 형성되었다。일본에서 크고 가장 세력있는 로동조합련합단체인 생산별직업동맹전국평의회 (여기에는 二〇〇만명이상의 맹원을 망라하고있다)의 많은 령도적지위는 공산당원들이 차지하고있다。

생산별 로동조합평의회의 강령에는 일본로동운동의 경제적요구와 정치적요구가 결합되어있다。로동계급은 봉건과 군국주의 및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추진력의 역활을 수행하여야한다고 그 강령에는 기록되어있다。로동임금의 제고, 로동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의 개선, 일본의 경제적개조와 같은 경제적요구들은 일본의 사회 및 정치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과 인민들이 지지하는 정부의 창건이라는 요구들과 같이 동시에 제기되고있다。

일본로동계급은 유일한 로동조합중앙에 단결하며 로동운동내부에서의 분렬을 극복하는데 노력하고있다。一九四八년 六월초순에 전국로동조합 련락협의회가 창설되었는바 이는 각종의 로동조합들의 일치적 활동을 위한 협의기관이며 일본의 모든 직업

동맹들의 통일을 준비하는것이다。생산별로동조합평의회는 일본의 모든 로동조합단체들이 전국련락협의회의 주위에 단결할것을 호소하였으며 그러한 통일이 시작되자마자 자기조직을 해산할 준비가 되어있다는것을 선언하였다。

그의 배산적 지도부가 일본의 로동운동을 분렬하고있으며 일본정부와 점령당국의 반동적정책을 지지하고있는 일본로동련맹은 점점 자기의 위신을 상실하고있다。수다한 로동조합들에서 우익사회주의자들을 지도부에서 해직시키고 그자리에 공산당원들을 선임하였다。 얼마전에 전기공업과 국철(國鐵)직업동맹의 지도부에도 공산당원들이 선거되였다。

반동측으로부터 박해를 받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속에서의 공산당원들의 위신은 공고하여졌다。공산당은 자유와 독립과 민주주의적 일본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진보적세력의 선두에 서있다。일본의 근로자들은 공산당원들만이 자기들의 리해관계를위하여, 일본의 자주를위하여, 일본을 예속시키려는 미국자본을 반대하여 투쟁한다는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다른 정당들과는 판이하게 공산당원들은 일본의 민주주의적개혁과 경제적부흥에대한 광범한 강령을 내걸고 행동하고있다。그강령은 일본의 근로대중속에서 점점더 광범한 지지를 받고있다。

공산당의 지도하에서 일본의 로동자들은 계급투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있으며 그의 성과는 이미 일본의 정치정세위에 나타나고있다。즉 一九四六년말과 一九四七년초에있어서 파업운동의 미증유의 영향하에『자유당』요시다의 반동적내각은 전복되었었고『사회주의자』가다야마 내각으로하여금 정권을 잡게하였던것이다。그러나 곧 일본의 로동계급은『사회주의자』가다야마도 또한 미국 금융자본가들의 지시를 일본의 정치에서 실현하기에 열중하고있다는것과 가다야마는 자본가와 같다는것과 그리고『사회주의적』내각에서는 자기들의 운명을 완화할 아무런 기대도 가질수없다는것을 알기시작하였던것이다。다시금 강력한 파업의 파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그리하여 가다야마정부를 사직시킨후에도 아시다와 요시다정부의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있던 광범한 근로대중의 반정부적 투쟁은 계속되었던것이다。

미국자본은 일본내의 자기의 졸도들에게 일본프로레타리아트의 전투력을 타파하며 그들의 로동조합조직을 탄압하고 로동계급속에서의 공산당의 영향을 약화하도록 완강하게 요구하고있다。일본에서의 조직적 로동운동을 억제할 목적으로 미점령당국은 일본내의 경찰정원수를 전쟁전보다도 더욱 많은 정도로 증가할것을 결정하였다。미국당국은

재벌들과 손을잡고 일본의 로동운동을 분렬하며 그것을 위하여 로동운동내의 제국주의 주구들인 일본의 우익사회주의자들을 리용하기에 전력을 다하고있다。

미점령당국은 로동운동을 분쇄하기위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반동적 통치배들을 각방으로 장려하고있다。미국당국의 승인밑에 일본의 국회는 일찌기 아시다정부가 제출한 각개경찰관들이 그들에게 의심스럽게 보이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체포할수있는 권리를 가지게하는 그러한 특별한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할데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一九四八년 七월에 일본정부는 맥아더의 지시에의하여 국가적기관들과 공영(公營)기업소들내의 로동자들의 파업권과 단체계약 체결권을 박탈하며 또한 현존의 로동계약들을 취소하는 명령을 발포하였다。대일련합리사회 쏘련대표 끼쓰렌꼬와 극동위원회 쏘련대표 빠뉴스낀은 일본의 민주화에대한 포츠담선언과 극동위원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이와같은 명령을 반대하여 단호한 항의를 제출하였다。

일본의 통치배들은 로동자를 반대하는 새로운 법안들을 준비하고있다。요시다수상은 국가적기업소 및 기관들의 로동자들이 파업을 실행하는것과 단체계약을 체결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을 림시의회(臨時議會)에 재출하였고 또한 계속적으로 미국의 반동적 다프드—하르드리법의 정신에서 로동자를 반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있다。그러는중에(一九四八년 十二월말에) 맥아더사령부는 일본로동자들의 파업에대한 권리를 실제적으로 박탈하여버리는 지령을 발포하였다。

미국당국과 일본통치배들의 정책은 파시스트적 테로행동을 부활시키고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일본로동운동의 저명한 지도자들이 회생당하고있다。일본의 전체근로자들의 수령이며 일본공산당서기장인 도꾸다(德田)에대한 테로행위는 여기에대한 실증이었다。공산당원들을 추궁하며 테로와 암살의 방법으로써 로동자들의 지도자들을 협박함으로써 반동은 일본에서의 로동운동을 좌절시키며 수령들을 없이하여 보려고한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일본의 반동이 약하다는것과 그들의 보호자인 미국인들의 지위가 튼튼하지못하다는것을 스스로 폭로하는것이다。미점령당국과 그의 일본인졸도들이 온갖 수단을 적용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동운동은 더욱 강화되고있다。一九四六년 가을 일본의 모든 산업부문과 국영기업소들을 휩쓴 파업의 파모와 一九四七년초 총파업에대한 준비가 있은이후 파업운동은 새로운 세력으로 발전되었다。그리하여 一九四八년 三월에 만하여도 八十五만명이 참가한 五十전의 대중적파업

이 발생하였던것이다。 철도로동자들의 六월파업에는 一〇만명이 참가하였었다。 그달에 서부일본일대의 二〇만로동자들도 동맹파업하였다。 八월四일에 전일본기계공업로동자동맹 동경지부의 약三만명의 로동자들이 二十四시간파업을 선언하였었다。 얼마지나지않아 시고꾸(四國)、혹까이도(北海道)、규슈(九州)의 철도로동자들과 미야기(宮城)、나가노(長野)현 및 오사까(大阪)시 일대의 로동자들이 또한 동맹파업하였었다。 十월一일에 파업과 분쟁에 참가한수는 七十五만명이상이었다。 파업은 일본의 전체산업부문들을 휩쓸고있었으며 몇개의 산업부문이 동시에 파업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일본을 미국의 속국으로 원동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전략적기지로 전환시키려고 야망하는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일본의 광범한 인민들은 누가 원쑤이며 누가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가를 더욱 똑똑히 리해하고있다。

자주적이고 평화를 애호하며 민주주의적인 일본을 창건하기위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투쟁하고있는 공산당원들의 활동과 기타 민주주의적 세력들은 미국자본에 의한 일본의 예속화를 옹호하는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분렬적책동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프로레타리아트중에서 그들은 더욱 높아가는 지지를 받고있다。 이와같은것은 一九四九년 정월 국회선거시에 특히 명백하게 표현되었는바 그때 일본공산당은 三〇〇만의 투표를 받았고 三五명의 공산당출신의 대의사가 피선되었다。 (그전의 의회에는 四명의 공산당출신 대의사가 있었다) 대중들속에서 재벌과 미국독점자본의 충실한 주구이라는것을 스스로 철저하게 폭로하고만 사회당원들은 참패하고 말았다。 그전의 국회에 백十一명의 대의사를 보내고있던 대신에 금번에는 모두 四九명밖에 보내지못하게되었다。

최근에 아주 새로운 친구의 역할을 놀지않으면 안되게된 미국독점자본들과 일본재벌들과의 협작은 불안정한 기초위에 서있다。 그것은 결코 청산되지않으며 오로지 제국주의진영 자체내의 첨예화한 모순에로 끌고갈뿐이다。

일본에서의 미국독점자본의 정책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의 특히 극동인민들의 리해관계를 침해한다。 그들의 기억속에는 히틀러독일과같이 제二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대한 회상이 아직도 생생하다。 인류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참화를 반복하는것을 원하지않는다。

쏘련은 카이로 및 포츠담선언에 기초하여 일본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함을 옹호하고있다。 쏘련은 일본을 민주화하며 비군국화하는정책과 일본침략의 재생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정책을 실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쏘련은 일본으로하여금 자기의 자주권

을 유지하게하며 민주주의적 평화애호국가로 전환하게하는데 유일한 길로되고있는 포츠담선언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일본경제의 민주화에대한 일본에 진보적로동법을 실시할데대한、비군국화에대한、토지개혁에대한、일본의 산업수준등에관한 문제에 있어서 쏘련의、제안들을 실행하는것은 일본인민에게 경제의 평화적발전을 확보하며 대중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능력을 신속하게 소유하게할 가능성을 줄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을 미국측은 완강하게 거부하고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통치배들은 일본에서 일본인민의 리해관계와 반대되며 일본의 자주와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는 량립(兩立)할수없는 침략적목적을 추구하고있기 때문이다、

쏘련의 정책은 평화애호인민들의 근본적 리해관계에 일치하고있으며 그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아래 일본제국주의의 세력이 재생되는데서 위협을 받고있는 중국인민들은 극동에 있어서의 미국정책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나서고있다。

극동에서의 민주진영의 력량들은 위대하고도 끊임없이 장성하고있다。 그 력량들은 일본의 침략을 재생시키며 극동의 인민들을 노예화하려는 제국주의적 계획들을 파탄시키기에 충분하다。

(쏘련잡지「경제 제문제」一九四八년十호)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연구자료 (十五)

민족문제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적학설

유 성 훈

맑쓰―레닌주의에 있어서 민족문제는 독립적인 개별적 문제로 되는것이, 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이라는 전반적문제의 한 구성부분으로 되어있다。 즉 전세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프로레타리아트독재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국제프로레타리아트의 동맹자와 후비력에 대한 문제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민족문제는 사회발전과 계급투쟁 발전에 대한 학설의 한 부분이며 프로레타리아트 혁명과 프로레타리아트독재에 대한 학설의 한 부분으로 된다。

오늘 민주와 반민주 진보와 반동과의 첨예한 투쟁에 있어서 미제국주의를 위수로한 반동제국주의도베들이 민족에 대한 개념을 의곡함으로써 민족주의 사상을 전파하여 자기들 반동의 무기로써 리용하고 있는것은 다 아는바이다。

이 반동의 무기로 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인류력사와 력사적 사실을 고의로 의곡하며 또는 모든 력사를 민족적 관계로 귀착시키며 민족사이를 적대적 관계로 인도하는데 기초하여 조성되었다。 이와같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족에 대한 개념을 날조하는데 기초하여 조성되었다。

착취계급들은 민족이란것은 본질적으로 천연적이며 「생물학적 개념」 또는 영원히 부여된 「민족적 정신의 산물」 이라고 설명하며 인간세계에는 숙명적으로 소위 「렬등민족」을 지배할 사명을가진 「선발된 민족」이 있다는 「인간증오사상」을 선전하고 있다。

이와같이 착취계급과 그의 앞잡이들이 비렬하게 력사를 의곡하고 민족에 대한 개념을 날조함으로써 자기의 략탈적 식민지 정책을 은폐하고 전세계 각국의 근로자들을 분렬시키며 그들을 서로 충돌시키며 사수(使嗾)하며 그들의 판심과 력량을 민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물러서게 하려고 애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민족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민족이란 개념을 맑쓰―레닌주의적으로 구명하고 또한 각력사계단에서마다 민족문제는 어떠한 형태로써 해결되었으며 또한 약소민족의 해방의 길은 어데에 있으며 그의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를 밝혀야 할것이다。

민족에 대한 정의

그러면 민족이란무엇인가? 여기에대하여 쓰딸린 선생은 『맑쓰주의와 민족문제』란 저서에서 『민족―이것은 언어와 령토와 경제생활에 있어서 또는 문화의 공통성에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에 있어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확고한 공통성이다』라고 하시었다。이와같이 민족이란 먼저 인간의 일정한 공통성이다。

그러나 인간의 공통성이란 여러가지가있다。 례를 들면 인종도 인간의 공통성이요 인족(혹은 족성―族性)도 또한 인간의 공통성이다。

그러면 민족과 인종 인족(혹은 족성)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인종이란 인간의 자연적 또는 인족학적 공통성이다。 그러므로 인종은 인간의 사회적 특징인것이 아니라 생물학적、특징이다。

인간들간에 인종적 차별이란 것은 주로 지질학적 기후적 또는 인종지(人種誌)적 특성 즉 자연조건의 영향에 의하여、인간의 장구한 발전행정에서 조성된 피부와 두발의 빛갈에 대한 차별이요 두골과 안면과 안목및 기타에 대한 자연적 차별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인종은 우주의 모든 다른 존재와 같이 생성(生成) 발전 소멸의 력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맑쓰와 엥겔쓰는、「독일이데올로기야」에 인종차별은 변화만 하는것이 아니라 력사적 발전에 따라 반드시 제거될수 있다고 하였다。이와같이 인종이란 개념은 주로 자연적 력사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민족은 그와 달리 사회적범주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민족적 차별은 사회적 정치적 본질의 차별이다。 왜나하면 민족을 형성하는 언어、령토、경제생활 및 문화적 특징은 인간과 사회의 력사적 발전행정에서 조성되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팟쇼 강도배가 시인하던것처럼 인종이란 개념을 민족이란 개념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할것이다。그 두개념은 전연 판이한 개념이다。

인족(혹은 족성)은 민족과 같이 사회적 범주

인바 그들간의 차이는 사회적 특징의 발전과 확고서의 단계에 의하여 구별된다。—

우리가 만약 어느 민족이 어느 력사적 시기에 이르러 형성되였다고 한다면 민족은 반드시 자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질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러므로 민족의 과거란 민족의 발생 발전이요 민족의 미래란 민족적 차별이 소멸된 사회이다。

민족의 력사는 우리에게 있어 많은 흥미와 관심을 주게하는 문제이다。그라므로 세계의 각민족은 언제부터 완전히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하여야 될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같이 민족의 형성과정은 언어상 령토상 경제상및 심리상태의 확고한 공통성의 형성과정이다。현재 전세계의 제민족은 얼마전에야 완전히 형성되었다。즉 영국민족은 十七세기로부터、불란서민족은 十八세기 대혁명 이후부터、독일민족은 一八七〇년 보불전쟁이후부터、로씨야민족은 一八六一년 농노제도 철폐이후부터 완전히형성되기시작하였다。

그외나라 민족들은 대략 一八—一九세기에야 비로소 민족으로 완전히 형성되였으며 또 다른 어면 민족들은 완전히 형성된지가 불과 수십년에 지나지못하고 나중으로 어떤민족들은 방금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것도 있다。

이와같이 민족이 완전히 형성된지는 그다지 오래지 않다。그러나 그의 형성과정은 수천년을 경과하지않으면 안된다。왜냐하면 민족을 형성하는 사회적 四대특징 즉 언어상 령토상 경제상및 심리상태의 확고한 공통성은 단기간에 형성될수없는 까닭이다。모든 력사적 자료와 사실로써 추측컨대 인간이 유목생활로부터 정착생활에로 들어가기 시작한 때로부터 언어상 령토상 공통성이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며 또 언어상 령토상 공통성에 의하여 경제생활의 공통성과 문화에서 표현되는 심리상태의 공통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그러므로 어느때부터 민족이 완전히 형성되었다고 획연(劃然)히 계선을 그을수가 없다。

쓰딸린선생은『봉건제도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발생발전행정은 동시에 인간들이 민족으로 형성되는 행정이었다』라고 말씀하였다。쓰딸린선생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없는 노예소유제도에서나 봉건사회제도에 있어서는 민족이 형성될수없고 다만 자본주의 제도에 이르러서만 민족이 완전히 형성될수 있었다。그러므로 민족은 만약 자본주의가 없었다면 형성될수 없었다。

이렇듯이 장구한 력사를 가진 민족의 형성과정을 도해적(圖解的)으로 표시하면 아래와같은 것으로 된다。로동에 의하여 동물계로 부터 분리된

원시적 인간들의 무리(群)에서 종족과 가족으로써 조성된 씨족(氏族)이 발생하였으며 원시공동체로부터 계급사회로 과도함과 관련하여 시족에서 인족(혹은족성)이 발생되였고 또 자본주의 발생 발전과 관련하여 인족(혹은 족성)에서 민족이 발생되었다。그러면 민족의 四대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의개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민족은 무엇보다도 먼저 언어상 공통성이 없이는 무의미한 것인바 그 공통성은 오랜 력사적 시기를 결쳐서 형성된 것이다。즉 수많은 종족과 씨족의 수다한 방언(方言)속에서 인족어가 발생되었고 인족어에서 민족어가 발생되였다。이와같이 오랜력사적 시기를 결쳐서 형성된 언어상 공통성은 민족형성의 기본특징중의 하나로 되어있다。

그러나 언어상 공통성만이 아직 민족을 형성하지못한다。사실에 있어서 언어상 공통성 즉 공통어를 사용하면서 단일한 민족으로 되지않는 실례가 적지않다。즉 영국인 새란인 미국인 카나다인 및 기타는 영어를 통용하지만 그들은 각이한 민족으로 남아있다。

여기에서 민족적 공통성과 국가적 공통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민족은 공통어가 없이 상상할수 없지만 국가는 공통어가 없이도 존재할수 있다。례를들면 서서(瑞西)는 한 국가이지만 三종류의 언어(공식적 사무실적 언어를 념두에 두고 말하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대화적 민간회화적 언어를 념두에두고 말함)를 통용하는것이 곧 그것이다。

무슨까닭에 미국인과 영국인은 한공통어를 사용하면서도 한민족이 못되는가?

그것은 우선 그들이 각이한 령토에서 거주하기 때문이다。민족은 다만 장구하고 정상적인 련락의 결과에와 대대손손이 한령토에서 거주하는데서만이 형성될수 있는것이다。

미국인과 영국인이 본래 한령토에서 살때에는 한민족으로 되었으나 다른령토에 이주하여 오랫동안 각이한 령토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미국민족이 따로 형성되였다。이와같이 각이한 령토는 각이한 민족을 형성케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령토상 공통성은 민족의 기본특징의 하나로 되어있다。

그러나 또한 령토상 공통성으로만은 민족을 형성하지못한다。민족은 령토상 공통성외에 경제적 공통성 즉 경제적 련결이 있어야한다。여기에서 경제적 련락이라고 하는것은 과거의 원시공동체에서나 노예제도에서나 봉건제도의 조건하에서 지어진 그럴 불완전한 련락을 말하는것이

아니다。그 시대들에 있어서는 동종의 수다한 자연경제(自然經濟)의 단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원료를 구득하는 일로부터 필수품(必需品)을 완성제작하는데 이르기까지 자급자족하게 되었었다。이러한 자연경제 조건하에서 비록 어떠한 형태의 련락이 지어졌더라도(동종의 경제단위의 내부적 로동련락및 교환)그는 사태를 변경시키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련결은 동종의 수다할 자연경제의 단위가 사회적 로동에대한 분배와 시장、철도、전신、신작로(新作路)를 통하여 유일한 경제체계에 들어서는 그러한 광범한 의미에서의 련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련락만이 인간의 경제생활의 공통성 즉 민족의 기본특징중의 하나를 구성한다。

그리하여 쓰딸린선생은「맑쓰주의와 민족문제」란 자기의 저서에서 아래와같이 지적하였다。「…영국과 미국사이에는 이러한 련락이 없는 까닭에 그들은 각이한 민족으로 되었다。그리고 미국인 자체도 북미합중국의 개별적 지역들이 그들간에 분업과 교통발전및 기타 말미암아 경제적인 총체로서 련락되지 않았다면 민족이란 칭(稱)을 받을수 없었을 것이다」(「맑쓰주의와 민족문제」국문판一八페지)

이상에서 민족의 기본특징중 三대요소인 즉 언어상 령토상 및 경제생활의 확고한 공통성을 말하였다。그러나 이三대요소만으로는 민족을 형성하지못한다。그밖에 또 인간의 심리적 방면에 대하여도 세밀히 고찰할 필요가있다。민족은 원래 그들의 생활조건에 의해서만 차별되는것이 아니라 민족문화의 특성에서 표현되는 심리적 방면에 있어서도 차별된다。공통어를 가지고있는 영국、미국、애란국은 三개민족으로되어 있음에 있어서는 각이한 생활조건에서 저어진 각이한 심리상태가 걱지않은 역활을 하고있다。「이 심리적 상태를 우리는 민족성 이라고 명명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민족에게 공통한 문화의 특수성에서 표현되는것 만큼 그는 포착할수 있으며 포한 무시할수 없는 것이다。

「민족성」이란것은 어떤 영원하게、고정된것이 아니요 생활조건과 함께 변경되는것은 더말할것도 없는것이다。그러나 그것이 당면 모멘트에 존재하여 있는것 만큼 그는 민족의 형모에 자체의 인(印)을 찍어주는 것이다。」(「맑스주의와 민족문제」국문판二〇페지)

그런즉 문화의 공통성에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의 공통성은 민족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민족의 四대특징을 대개 설명하였다。

이와같이 민족의 사회적 四대특징은 장구한 력사적 시기를 결쳐서 봉건제도의 몰락기와 자본주의 발흥기에 발생하였다。그러므로 쓰딸린선생은「현대의 제민족은 일정한 시대의 산물 즉 자본주의의 앙양되는 시대의 산물이다。」라고 하였다。

민족문제 해결 형태의 세시기

이상에서 민족이란 어떤것이며 그가 언제부터 형성되었는가를 보았다。즉 민족의 형성기는 봉건제도의 몰락과 자본주의 상승기임을 보았다。그렇기때문에 민족문제를 고찰하는것은 반드시 자본주의 승리 이후의 인류사회생활의 고찰과 결부시켜야 한다。

자본주의의 승리、자본주의로부터 제국주의단계로의 과도、로씨야에서 쏘베트정권의 승리로써 끝난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승리ー이것이 민족문제 해결형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三개의 력사적 시기이다。

즉 첫시기는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시기이고 둘째번시기는 독점적 제국주의 시기 즉 썩어가며 죽어가는 자본주의시기이며 셋재번시기는 쏘베트시기 즉 세계의 六분지一에 자본주의가 타파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시기이다。

산업자본주의 시기、독점적 자본주의인 제국주의 단계、사회주의시기가 서로 상이한것과 마찬가지로 민족문제의 발생및 그의 해결도 각각 그시기에 따라서 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면 그 시기별로 민족문제가 어떻게 제기되었으며 그시기 마다 민족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던 가를 보아야 할것이다。

제一기는 서구라파에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승리한 시기였다。이시기에 영국 불란서 이태리및 부분적으로 독일에서 민족이 완전히 형성되었다。애란을 제외하고 서구라파에 있어서의 민족의 형성과정은 중앙집권화한 민족국가의 발생및 형성과정과 병행되었다。그리하여 그민족들은 민족국가의 형태를 가졌으며 또 그 국가에서는 민족적압박이 있을수 없었다。

그러나 동구라파에 있어서는 사태가 서구라파에서 보다 다르게 진행되었다。동구라파에 있어서 민족의 형성과정과 봉건적 분산성 청산행정은 중앙집권화한 국가형성과정과 시간적으로 합치되지 못하였다。항가리 오지리 로씨야등 동구라파제국에 있어서는 자본주의가 맹아(萠芽)상태에 있을때 토이기 몽고및 기타 동방인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중앙집권화한 국가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동구라파에서는 중앙집권화한 국가형성

과정이 민족의 형성행정보다 먼저 진행된 까닭에 아직은 민족으로 형성되지못한 인족들이 섞인 민족의 지배하에 들게된 조건하에서 다민족국가가 형성되였다。 그러나 그후 동구라파에 있어서도 상업교통이 점차발전 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 되었으며 그와함께 민족들이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새로 형성된 민족들은 출판물과 극장과 국회를 통하여 소위「민족적감정」을 갖게되었으며 그민족적감정은 드디어 민족운동을 일으켰으며 따라서 방금 생장한 민족인테리들드 이방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적 자주적생활을 하려는 피압박민족들은 지배민족의 지배계급의 강경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독립된 민족국가들을 형성할수가 없었다。

여기로부터 동구라파에서는 새로 형성된 민족들이 지배민족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게될 정세가 생기게되었다。

이투쟁은 한민족과 다른민족간의 전체적 투쟁이었던것은 아니다。 지배민족부르죠아지와 피압박민족부르죠아지 간의 투쟁이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피압박민족의 도시소부르죠아지가 지배민족의 대부르죠아지를 반대하여 투쟁하거나 또는 피압박민족의 농촌부르죠아지가 지배민족의 지주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든지 그렇지않으면 피압박민족의 소위 전체민족부르죠아지가 지배민족의 귀족지주를 반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어디서나 신흥부르죠아지에게 있어서 그의 기본되는 문제는 시장문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외래부르죠아지를 구축하고 소위「조국시장」을 자기의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려고하였다。 그러므로 시장은 부르죠아지가 민족주의를 배우는 첫학교이었다。 부르죠아지는 시장을 위한 투쟁에 나서면서도 자기민족의 하층을 이투쟁에 동원하고 궐기시키기 위하여 소위「조국」이란말로 가장하고 출연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제일에 있어서는 민족운동의 주동자는 부르죠아지임을 알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여러국가의 력사에있어서 민족문제발전의 첫 시기에 나타난 봉건군주주의적「민족주의」를 지적해야할것이다。 피압박민족의 귀족들이 자기의 잃어버린 특권을 도로찾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례하면 그루지야가 로씨야에병합된후 그루지야귀족은 그루지야왕 시대에 그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특권과 위력을 상실하게되는것을 불리한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보통적인 신하로서 되는것을 생각하면서「그루지야의 해방」을 원하였다。 그들은 그루지야왕 귀족들을 그루지야해방의 선두에 내세우려고 하였으며 그루지야인민의 운명을 왕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미약한 운동이었으며 민족문제발전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못하고 [illegible]되어 버렸다。

부르죠아 민족운동의 규모는 민족이 광범한 하층 즉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이 그운동에 참가하는 정도에 따라 규정된다。 그러면 프로레타리아트가 부르죠아 민족주의 기치밑에 궐기할수있는가? 그것은 계급적모순의 발전단계와 프로레타리아트의 의식성과 조직성에 달리었다。 의식적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가 체험한 고유한 국제주의적 기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르죠아 민족주의적 기치하에 궐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민족운동에 대한 농민의 참가정도는 탄압적 민족정책의 본질에 달리였다。 만약 그 탄압정책이 농민들의 소위 토지에 대한 리해를 침범할때에는 애란에 있었던 사실과 같이 광범한 농민대중은 이 민족운동의 기치하에 나서게된다。 민족운동의 형태와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이와같이 앙양되는 자본주의 조건하에서의 민족투쟁은 지배민족부르죠아지와 피압박민족 부르죠아지간의 투쟁임에 불구하고 간혹 부르죠아지는 민족운동에 프로레타리아트를 인입하게된다。 그리하여 그 민족운동이 형식적으로는「전인민」적 성질을띠나 본질에있어서 부르죠아계급에게만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가 민족적 압박을 반대하여 투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은 [illegible] 아니하였다。 민족간의 [illegible] 자각이동을 [illegible] 상실시키며 민족어와 민족학교를 [illegible] 탄압정책은 프로레타리아트로 하여금 부르죠아지 보다 [illegible] 타적을 [illegible] 하였다。 그렇기때문에 프로레타리아트는 [illegible] 민족운동에 참가하게된다。 그러나 [illegible] 로보면 이와같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민족적 [illegible] 프로레타리아트로 하여금 계급투쟁 [illegible] 로부터 떠나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의 소위「공동리해」관계로 나가게하며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국제주의적 로선에서 탈선케할 위험을 가져온다。 그러나 의식적 프로레타리아트는 국제주의적 로선에 서만 자기의 활로를 얻을수있음을 깨닫은 까닭에 그들은 부르죠아 민족주의로 부터 리탈하여 온갖 종류의 민족적 압박을 반대하는 국제주의적 로선에 립각하게 된다。

이상에서 본바와같이·제一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민족이 완전히 형성되었는바 서구라파에서는 애란을 제외하고는 민족의 완전형성 행정과 중앙집권화한 국가의 형성행정이 시간적으로 합치되었고 동구라파에 있어서는 그와는 반대로 민족으로까지 완전히 발전하지못한 제민족이 다만 [illegible] 적된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하에 놓게된 다민족국가가 형성되였다。 그리하여 동구라파가 민족

적압박과 민족운동의 발전지로 되였었다。 그러나 이시기에 있어서 민족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였으며 또 그문제가 국제적 범위로 발전되지 못하고 다만 국내적 범위에서 머물어 있었다。

제二기는 제국주의 시기이다。 자본주의가 판매시장과 원료와 연료와 렴가(廉價)의 로동력을 구하면서 상품수출로부터 자본수출로 과도함과 관련하여 단일민족국가였던 서구라파 국가들이 동구라파국가들과 같이 다민족국가로 되어 민족운동의 무대로 화하였으며 동구라파의 국가에서는 피압박민족의 민족운동이(체코、파란、우크라이나가 실레)더 강력하여지며 낡은 부르죠아적 다민족국가는 파탄되고 렬강국의 기반하에는 새예속적인 민족국가들이 형성되었다。(오지리、항가리령토에서 종우의 제국이 발생되었음)。

이와같이 하여 민족문제 해결형태의 제二기에 있어 동구라파나 서구라파에서 민족문제가 더 첨예화하여 국내적 문제로부터 국제적 문제로 변화되였는바 여기에있어서는 그투쟁의 계급적 내용이 변화되었다。 만약 제一기에 있어서 민족운동이 피압박민족의 부르죠아와 지배민족의 부르죠아와의 투쟁이었다면 제二기에 와서는 이 투쟁이 피압박민족의 프로레타리아트를 선두로한 근로자들과 지배민족의 부르죠아와의 사이에서 진행되고있다。 제국주의 계단에 와서는 자본주의의 그자체가 벌써 반동적 요소로 전환하여 생산력발전의 장애물로 된다。 제국주의、시대에 정치적면에 있어서는 부르죠아 민주주의적 형태가 금융자본의 가장 반동적 분자들의 로골적인 독재로 교대된다。 이와같은 사정은 민족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을 가져온다。

제一기(산업자본주의시기)에있어서는 자본주의가 민족을 통합하며 봉건제도로부터 해방하는 진보적 역할을 하였다고할것같으면 제국주의 계단인 제二기에 와서는 자본주의가 증강된 민족적 압박의 요소라는 반동적 역할을 놀게된다。

「제국주의는 민족적압박의 강화에 대하여 협연적으로 관심을 가지는자본주의계단이다。 자본주의는 식민지와 예속국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이 없이는 발전할수없다。」(쓰딸린)

그렇기때문에 제二기는 가혹한 민족해방투쟁의 계단이며 류혈적인 민족압박정책과 동화정책으로 특정되는 시기였다。 제二기인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 부르죠아사회가 민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또 민족간의 평등과 평화를 설정하지못했다는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에대한 개인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 또는 그의 최고계단인 제국주의를 타도함이 없이는 민족의 해방과 자유와 평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문제는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프로레타리아트 혁명문제의 한구성부분으로 되는것이다。

、제二기는 자본주의와 타협하고 민족적압박과 계

급적착취를 영원히 청산한 쏘베트시기이다。 이전 짜리로씨야 때에 압박받던 六十여개의 민족과 백여개의 인종 종족이 비로소 민족적 평등과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 또는 문화적으로 락후되었던까닭에 쏘베트주권에 의하여 달성된 평등은 다만 원칙적인 평등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쏘베트주권은 이런 피압박약소민족들에게 남아있는 현실적 불평등을 퇴치하기 위하여 경제적 문화적 제반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상에서 대략 설명한바와같이 민족문제의 해결형태의 제시기중에서 다만 제三기에 와서야 민족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민족문제 해결형태의 제三기인 쏘베트시기는 아래의 소제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한다。

레닌—쓰딸린적 민족정책의 실현과 쏘련의 제민족간의 친선은 쏘베트 국가의 위력의 원천

레닌 쓰딸린의 령도하에서 볼쉐위끼당은 민족문제 해결형태의 제二기(제국주의시대)에 혁명적프로레타리아트의 력사적 사명실천에 착수하면서 맑쓰 엥겔쓰의 민족문제에 대한 기초적사상을 높이 발전시키고 제二국제당의 기회주의적 민족정책을 반대하여 나섰다。 그러므로 레닌—쓰딸린의 민족정책과 그의 실현을 설명하기전에 우선 민족문제에 대한 맑쓰 엥겔쓰의 기초적 사상은 어떠한것이었으며、제二국제당의 기회주의적 민족정책의 본질은 어떤것이였던가를 설명하여야 할것이다。

일별이 다아는 바와같이 맑쓰와 엥겔쓰는 민족문제 해결형태의 제一기인 산업자본주의시기에 생존하시면서 사회발전법칙 특히 자본주의사회의 발전법칙을 발견하고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력사적사명을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력사적사명 실현을 위한 강령으로 되는「공산당 선언」에서「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는 단결하라」는 구호를 내놓았다。

이와같이 맑쓰 엥겔쓰는 전세계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하여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를 단결시킬 필요성을 지적하시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그어느한시기에 있어서는 애란의 해방운동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것은 애란이 독립하면 영국과 애란 프로레타리아트의 련합이 파탄될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었다。

그러나 그후 맑쓰가 一八五二년 엥겔쓰에게 보낸 서한에 의하면「다른 인민을 압박하는 인민은 해방될수 없으므로 우리는 애란 해방운동에 대하여 다른태도를 취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었다。 그러나 이것은 맑쓰 엥겔쓰가 어떠한 민족운동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지지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맑쓰와 엥겔쓰는 十九세기 四十년경에 파란의 해방운동은 지지하고 남슬라브족의 해방운동은 반대하였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그당시 파란 해방운동은 서구라파 반동의, 성벽인 로씨야를 약화시킬것이요 남슬라브족의 해방운동은 그시대에있어 반동적이던 로씨야 세력을 강대하게 할것인 까닭이었다.

이와같이 맑쓰와 엥겔쓰는 전세계 자본주의를 타도하기위한 실천적 활동에서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를 단결시키기 위하여는 민족해방이 필요하며 또 그 민족해방운동을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리해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기초적인 사상을 내놓았다.

제二국제당의 三十년간의 지배기(支配期)에 맑쓰와 엥겔쓰의 이 기초적 사상이 발전되지 못하고 망각(忘却)되여 버렸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주로 소위 구라파의 문명민족(애란 파란 항가리 쎄루비아)문제만 취급하고 아세아 아프리까의 수백만 식민지 예속인민의 해방문제는 제二국제당의 영웅들의 시야(視野)에는 들지도 않았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민족자결문제를「민족문화자치」즉 지배민족의 수중에 정치적 지배권은 그대로 남겨두고 피압박민족은 다만 자기의 문화기관만을 가져야된다고 떠들이왔다.

이와같이 제二국제당「영웅」들은 민족적압박과 불평등을 근절하고 식민지 피압박 예속민족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대하여서는 몽상도 하지 않았으며 결국 이들은 자본주의를 타도하려고 하지 않았었다.

민족문제 해결형태의 제一기인 제국주의시기에 정치적 활동을 개시한 레닌 쓰딸린은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의 모순이 첨예화된 조건에서 一국의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견지에 립각하면서 제二국제당「영웅」들의 기회주의적 민족정책에 동의할수 없었다. 볼쉐위끼당의 창건자이며 명도자이며 창조적 맑쓰주의자인 레닌—쓰딸린은 로씨야 로동계급이 정권을 쟁취하기전부터 벌써 민족문제에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기초적인 혁명적 사상을 발전풍부케하였다.

그것은 천재적 혁명가이신 레닌 쓰딸린이 벌써부터 민족문제에 대한 정당한 해결이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승리에 거대한 의의가 있음을 간과한 까닭이었다.

그당시 짜리로씨야는 一억四천만의 주민이 있었는바 그중 약소민족이 六천五백만에 달하였다. 이와같은 정세에서 로씨야의 민족문제는 대단히 복잡하였다. 로씨야 전지역에 거주하는 수다한 민족들과 인족 또는 종족들의 경제적 문화적 수준은 일정치 않아 아래로는 원시적 경제문화수준으로부터 위로는 현대적 경제 문화 수준에까지 이르는 다양다기한 성격을 띄우고 있었다.

다민족국가인 로씨야에서 짜리즘은 각민족들을 인공적으로 정치적 및 문화적락후에 얽매어 놓으면서 그들을 서로 충돌시키고 어떤 종족들은 고의적으로 전멸시키는 정책을 써내려왔다.

레닌은 쓰기를「짜리로씨야는 여러민족들의 감옥이었다. 짜리로씨야 경내(境內)의 수많은 비로씨야 민족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었으며 온갖 천대와 모욕을 계속하여 받아왔다. ……짜리정부는 민족문화의 일체 표현을 소멸하려고 노력하였고 비로씨야 민족을 강제적으로「로씨야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짜리제는 비로씨야민족의 사형집행자이며 폭군이었다.」(당사간략독본 七—八페지)

그렇기때문에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는 력사적 사명실현에 있어 지주와 자본가의 주권인 짜리의 민족압박정책을 반대하여 봉기하는 민족운동을 사회주의 운동과 결부시킬수 있었다.

볼쉐위끼당의 창건자이시며 명도자이신 레닌과 쓰딸린은 민족문제에 대한 맑쓰—엥겔쓰의 기초적인 사상을 일반적으로는 제국주의 조건, 특수적으로 로씨야의 조건에 맞도록 발전시켜 독립적 국가를 형성하는데까지 이르는 민족자결권원칙을 내놓고 멘쉐위끼들과 기타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제二국제당 산하 사회민주당, 특히 오지리, 항가리의 민족문화자치 강령을 기회주의적 강령으로 보아 거부하였다.

레닌, 쓰딸린이 제기한 민족자결권은 오직 민족자체가 자기의 운명을 해결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그민족의 내정을 강제적으로 간섭하며 그의 학교와 기타 제도를 파괴하며 그의 풍속관습을 무시하며 그의 민족어를 폐지하며 그의 권한을 감소시킬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맑쓰주의자들이 온갖 민족적 풍속과 관습 및 제도를 다 지지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맑쓰주의자들은 민족자체가 자기의 운명을 해결할것을 주장하면서도 민족의 해로운 풍속과 제도를 반대하는 선동사업을 전개하여 그민족 근로자층에게 그해로운 풍속과 제도로 부터 해방될 가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또 민족자결권은 민족마다 자기의 소원대로 국가를 구성할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민족들은 자결원칙에 의하여 국가를 구성할수도 있고 다른 민족들과 련방적(聯邦的)관계를 맺을 권리또 있으며 또 전연 독립할 권리도 있음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맑쓰주의자들이 민족의 어떠

한 요구든지 다 지지함을 의미하지않는다. 왜냐하면 민족들이 낡은질서(秩序)즉 봉건적 혹은 부르죠아적 질서로 돌아갈수있는까닭이다. 그러므로 맑쓰주의자들은 민족자결권을 위하여 투쟁하되 그 민족자결의 결과에 프로레타리아트를 핵심(核心)으로 한 근로자들이 주권을 장악하고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게 할것을 최후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독립적 국가를 형성하는데까지 이르는 민족자결권에 대한 이 강령은 혁명운동에 있어서 로씨야 인민의 광범한 참가를 보장하였으며 이인민들의 볼쉐위끼당에대한 지지를 보장하고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민족문제에 있어서 볼쉐위끼당의 결정적이며 철저한 립장과 완전한 민족평등권및 모든 형식의 민족압박과 불평등의 철폐를 위한 투쟁으로 말미암아 볼쉐위끼당과 로씨야 로동계급은 피압박 약소민족들의 동정과 지지를 획득하였다.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일반적인 민주주의운동 지주의 토지를 빼앗기위한 농민운동 피압박민족들의 민족해방운동 그리고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운동을 하나의 거대한 혁명적 조류에 능숙하게 통합 집중시킨 결과 볼쉐위끼당은 흉악한 짜리의 전제주권과 부르죠아림시정부를 전복하고 위대한사회주의 十월혁명의 승리를 획득하였다.

위대한 十월사회주의적혁명은 짜리시대로부터 다년간에 걸쳐 계속투쟁 하여오던 볼쉐위끼당의 민족문제에대한 강령을 실현하였다. 一九一七년十二월 十六일 레닌과 쓰딸린의 서명으로써「로씨야인민들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 공포되었다. 이선언은 로씨야민족들의 평등권을 시인하며 독립적 국가를 형성하는데까지 이르는 민족자결권을 선언하였으며 또 온갖 민족적 특권과 제한 폐지를 선언하였다.

그 선언내용은

첫째 로씨야인민의 동등권과 자주권

둘째 분리에까지 이르는 자유로운 민족자결권과 독립국가조직에 대한 로씨야인민의 독립권

셋째 모든 민족의 종교적특권및제한의 완전한 철폐

넷째 소수민족과 로씨야경내에 살고있는 인종학상의 종속들의 자유로운 발전등등이다.

볼쉐위끼당은 이 선언가운데서 언명한 원칙들을 철두철미하게 실천하였다. 이 선언에 의하여 쏘베트정부로부터 파란, 분란, 우크라이나, 백로씨야, 에스토니야, 라트비아, 리트바, 기타나라들이 독립을 받았다. 혁명이후 쏘베트주권의 고려에 의하여 민족적 압박에서 해방되어 평등권과 독립적국가를 가진 로씨야의 제민족은 외국무력간섭자들과 백위군들과의 투쟁(공민전쟁)을 통하여 민족국가방위를 견고히하며 파괴된 인민경제를 부흥발전 시키는 투쟁

현정에서 민족간의 호상 협력, 형제적 친선의 필요를 느끼었다. 제민족은 외국무장간섭과 공민전쟁 시기에는 군사적 동맹을 하였으며 경제건설시기에는 경제적동맹 또는 정치적 동맹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중앙로씨야는 연료와 원료 식량이 풍부한 로씨야 변강의 지지가 없이는 十월의 승리를 보장할수없었으며 로씨야 변강은 중앙로씨야의 지지가 없이는 제국주의의 기반에 예속될수 있었다. 그리하여 볼쉐위끼당과 쏘베트주권은 로씨야의 중앙과 변강인민의 공동적리해로부터 출발하여 독립적국가를 형성하는데까지 이르는 민족자결권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실현하면서 자원적이며 자유적이오 평등적인 원칙에 의한 쏘배트 공화국들의 련맹원칙을 제기하였다.

이원칙에 근거하여 一九二二년 十二월말에 로씨야쏘베트련방사회주의공화국 백로씨야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 우크라이나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자깝까스쏘베트련방사회주의공화국이 동맹하여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을 형성하였다.

쏘련의 형성은 여러민족의 친선을 견고히 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국방을 더욱 견고히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레닌 쓰딸린의 민족정책의 빛나는 승리를 말하는것이었으며 부르죠아 민족주의에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로씨야인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과 그의 구체적 실현은 볼쉐위끼당과 쏘베트주권에대한 전세계 피압박 근로자들의 동정을 그어느때보다도 증대시켰으며 그들로 하여금 쏘베트주권만이 민족적 압박을 파괴할수있다는 신념을 가지게하였다.

그러나 쏘련의 형성과 그 공고화는 볼쉐위끼당의 맑쓰주의적 민족정책을 반대하여나선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 우크라이나 회의파, 구루지아 멘쉐위끼파, 아제르바이잔 무싸와지스트들과 계속 강경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달성되었던것이다.

더우기 볼쉐위끼당내부에 있어서도 민족문제에 대한 볼쉐비끼적 강령의 제원칙을 반대하여나선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대강국의 배타주의적 경향을 표명하면서 민족자결권을 반대하여나선 부하린, 뺘다꼬브에게 레닌 쓰딸린은 대타격을 주었다. 볼쉐위끼당은 또한 지방 민족주의와도 투쟁하였다.

볼쉐위끼공산당 제十二차 당대회에서 쓰딸린선생은 쏘베트국가발전의 현조건에서 민족문제의 계급적본질은 「이전 지배민족 프로레타리아와 이전 피압박민농민족간에 정당한관계를 설정함에있다」라고 하시였다.

쓰딸린선생은 계속말씀 하시기를 「만약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가 로씨야농민과만 동맹할것이아니라

이걸 피압박민중 농민대중과 견고한 동맹을 체결하게되면 다민족적인 쏘베트국가에 제민족간의 형제적인 친선과 밀접한 상호협조가 정립될것이다」라고하시었다。

불쉐위끼당은 쓰딸린의 이 지시에 의하여 우선 대로씨야 민족주의와 투쟁하였다。그들은 쏘련을 평등권가진 민족공화국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동맹으로 인정한것이 아니라 여러공화국들의 말살과 숙청으로 인정하였다。그리하여 대로씨야 민족주의자들은 로씨야민족이 아닌 약소민족들의 문화풍습및 독특한 리해를 무시하면서 민족간의 친선을 파탄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쉐위끼당은 각공화국의 교육, 문화, 기타 일체 행정사무를 그공화국의 민족어로 진행하고 그민족의 고유하고 독특한 풍습과 리해를 타산함으로써 쏘베트정권은 다만 로씨야인민의 정권뿐만 아니라 약소민족 근로대중의 정권임을 깨닫게 하였다。

불쉐위끼당은 이와같이 대로씨야 배타주의적 민족주의와 투쟁하면서 동시에 지방민족주의자들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지방민족주의자들은 쏘련내의 제민족간의 동맹을 피상적인것으로 인정하고 각개공화국의 분리성을 보존하려고 하면서 [illegible]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illegible]으로 마제면서 [illegible]

망률 제민족의 형제적친선을 파탄시키려 하였다。

불쉐위끼당은 여와같은 [illegible]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과 투쟁하면서 제민족의 근로자들을 국제주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교양하였다。

이투쟁에 있어서 불쉐위끼공산당은 로동자들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레닌의 다음과 같은 교훈을 그의 지침으로 삼았다。

「종주국의 로동자들의 국제주의적 교양의 중점은 응당 피압박국가의 분리의 자유를 설득하며 그들이 이것을 고수하도록 하는데 있어야한다。이것이 없이는 국제주의는 없다。그반면에 소수민족의 사회주의자들은 그의 선동사업의 중점을 우리들의 일반적 공식의 제二의 언약인「민족의 자원적통합」에 두지않아서는 안된다」。(레닌전집 一九권 二六一—二六二페지)

불쉐위끼당은 민족평등에 대한 선언을한데 그친것이 아니라 쏘련에 강력한 제민족의 위대한 형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짜리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사실적불평등을 청산하기 위하여 계속투쟁 하였다。

一九二三년 제十二차당대회에서 벌써 쓰딸린동무는 말하시기를「로씨야 쏘베트 사회주의 련방공화국에 있어서의 민족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illegible] 청산하는점에, 국가의 문

화적및 경제적 제관계에있어서 중앙로씨야를 따라갈 가능성을 락후한 제민족에게 부여하는 점에 있다」라고 하시었다。

사실적 평등 이것은 법적 정치적 평등일뿐만 아니라 경제적및 문화적 평등이다。만일에 당과 쏘베트주권이 련맹 제민족의 경제적및 문화적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창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민족적 평등은 불완전한것이 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불쉐위끼당은 사실적 불평등을 근절하기위하여 락후한 민족들에대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원조를 광범하게 조직하였다。

불쉐위끼당과 쏘베트련맹의 이와같은 정책으로 말미암아 락후되었던 민족구역들이 급속하게 발전되었으며 민족공화국들의 면모는 일신되었으며 쏘베트동맹의 경제지리는 변경되었다。

이전에 락후되었던 까자흐, 바스끼르, 그루지야및 기타공화국들은 공장제조소 탄광 발전소 쏩호즈 노기또락또르지정소, 건축을 전개하였으며 그들은 이와같이하여 대규모적 공업구역으로 전변되었다。

민족공화국 인민경제발전의 속도에서 락후하였던 가맹공화국들이 급속한 속도로 발전된것을 볼수있다。

쏘련의 대공업의 총생산량이 一九一三년에 비하여 一九四○년에는 一○•九배로 장성되었다면 까자흐쏘베트공화국은 二六•四배로 끼르끼스공화국은 一六○배로 따지크공화국은 二四二배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불쉐위끼당과 쏘련정부의 고려에 의하여 민족변강의 경제적 장성속도가 국가경제의 전반적 속도를 릉가하고 있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문화적방면에서도 이와같은 사실을 지적할수있다。불쉐위끼당과 쏘련정부는 가맹공화국들의 자기의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가진 문화발전을 백방으로 보장하여주었다。

一九一四년에 전로씨야내에 九一개소의 대학이 있었으며 그에서 十一만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학들은 모두가 거의 로씨야 중앙에 집중되었었다。지금 진상은 다르게 변경되였다。一九四○년에는 쏘베트동맹내에 七백五○개소의 대학을 계산할수 있게되었으며 六十一만 九천九백명의 대학생들이 공부하였었다。

그중에서 우크라이나쏘베트사회주의 공화국네에는 一九四一년에 一六六개소의 대학이 있었고 백로씨야공화국에는 二六개소 그루지야공화국에는 三개소, 아제르바이잔공화국내에는 十五개소, 아르메니야공화국내에는 九개소, 따지크공화국내에는 七개소가 있다。가맹공화국내에는 자기학사원, 쏘련학사원의 지부들이 창설되였다。쏘베트동맹의 모든 민족들은 지금 자기인테리원 무수한 인재들, 교원, 의사, 기술학자들을 가지고 있다。이것은 문화적 불평등을

퇴치하는데 있어 볼쉐위끼당과 쏘련정부가 얼마나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를 말하여 주는것이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시기에 쏘련인민들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 철짜리시대에 품고있던 민족들간의 호상불신임의 감정은 소멸되었고 호상친선의 감정이 더욱 강고 발전되었다.

레닌—쓰딸린적 민족정책은 그후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발전된 각민족공화국들을 가맹공화국의 자격으로 승격시켜 쏘베트동맹에 계속 가맹시켰다. 一九二五년 五월 제三차 전쏘련 쏘베트대회에서 뚤크멘 공화국과 우즈베크 공화국이 동맹공화국의 자격을 가지고 쏘련에 가맹하였으며 一九二九년 十二월 五일에는 따지크 공화국이 동맹공화국의 자격으로 쏘련에 가맹하였고 一九三六년에는 쏘련의 자치공화국으로 있던 까자흐 공화국과 길기즈공화국이, 동맹공화국의 자격을 가지고 쏘련에 가맹하였으며 또 자깝까즈 사회주의 련방공화국들이었던 아르메니야, 아제르바이쟌, 그루지야 공화국이 동맹공화국의 자격으로 쏘련에 가맹하였으며 一九四〇년 七월 一일에는 까렐로패자치공화국이 동맹공화국의 자격으로 쏘련에 가입하였으며 一九四〇년 八월에는 몰다비야공화국이 조직되어 쏘련에 가맹하였고 에스토니야 리트비 타트비야가 동맹공화국의 자격을 가지고 쏘련에 가맹하였다.

다민족국가로서의 쏘련의 견고와 발전에 있어서 제八차 정동맹 쏘베트대회에서 채택된 쓰딸린 헌법이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킨「쓰딸린적 헌법」은 레닌—쓰딸린적 민족정책의 성과들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쏘련에 가맹한 민족들에게 광범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진정한 평등권을 주었다. 쏘련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쏘련공민의 평등권은 민족 및 인종별 여하를 불문하고 경제적 국가적 문화적 및 사회정치적 생활에서 확고 불변의 법이 됨.

인종 및 민족별에 따라 공민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우월권들을 제정하거나 또 그반대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온갖 인종 및 민족우월성의 선전 혹은 질시 및 멸시할때에는 법적으로 처벌함」(쓰딸린헌법 一二三조)

현재 쏘련인민들의 각민족과 그루빠는 가맹 혹은 자치공화국 민족주 민족현에 단결되었다.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동맹의 성원에는 十六개 가맹공화국과 十六개 자치공화국 九개의 자치주 및 十개의 민족현들이 있다.

二十六년간에 걸친 쏘베트의 발전사는 레닌 쓰딸린 민족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여 준다.

쏘딸린 대원수는「우리는 지금 모든 시련들을 견디었고 완전히 형성된 다민족 사회주의 국가를 가졌고 그의 견고성은 세계의 어떤 국가든지 부러워하는 다민족국가를 가졌다」라고 말하시였다. 특히 히틀러 독일을 반대하는 조국전쟁시기에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은 다민족국가의 견고성을 전세계에 시위하였으며 고난한 시련을 영예로써 극복하였다. 레닌—쓰딸린민족정책의 실현은 쏘련의 위력의 원천으로 되었다.

이와같이하여 다민족 쏘베트국가의 붕괴에 대한 파시즘의 타산은 전복되었다.

「우리나라의 다민족의 친선은 전쟁의 모든 난관과 시험을 극복하였으며 또는 파쑈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쏘련 인민들의 공동적 투쟁에서 더욱 더 단련되었다. 쏘련의 힘에 대한 원천이 여기에 있다」(이 · 브 · 쓰딸린「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하여」 국문판 一三八페지)

조국전쟁후에 볼쉐위끼당과 쏘베트정부는 력사가 그의 정당성을 증명한 그의 민족정책의 원칙을 아무런 변경도 없이 계속 실시하면서 쏘련의 모든 민족의발전에 대한 깊은 고려를 표시하고있다.

부르쇼아 민족주의와의 부단한 투쟁과 조쏘인민 친선은 민주조선 완전독립의 담보이다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쏘련내 약소민족들은 볼쉐위끼당과 쏘베트정부의 레닌—쓰딸린적 민족정책과 선진적 로씨야인민의 형제적 원조에 의하여 선진적 중앙로씨야를 단시간에 따라갔으며 독립적민족국가를 창건하였다. 그리고 쏘련에서의 레닌쓰딸린적 민족정책의 실현과 그의 위대한 성과는 민족문제에 대한 각종 기회주의적 리론을 여지없이 분쇄하였다. 민족문제에 대한 기회주의적 리론가들은 피압박 인민들을 해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족들간의 적대심을 고취하는 부르쇼아 민족주의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오지리—항가리의 실례는 민족문화자치가 민족문제를 해결하지못하는것이며 · 피압박예속국가의 인민들을 영원히 노예화하기 위한 기만적 강령임을 말하여주고있다.

그리하여 레닌—쓰딸린적 민족정책의 실현과정은 부르쇼아 민족주의적 방법이나「민족문화자치」로가 아니라 프로레타리아적 국제주의적 원칙에의한 민족자결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만 민족적압박을 청산할수 있으며 민족들간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할수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와 진보를 사랑하는 전세계민주주의적 선진인사들은 반동적 제국주의 부르쇼아지들에게 봉사하는 무기로 되어있는 부르쇼아 민족주의 사상을 반대하여 첨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부르조아 민족주의와의 투쟁이 없이 민족적 압박과 계급적 착취를 청산할수 없으며 약소국가들이 자주독립을 쟁취할수 없음은 명백하다.

반동의 무기로 되는 부르죠아 민족주의와의 투쟁은 국제주의 사상을 일층 강화 시키는데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인바 이길은 국제주의에 가장 충실하며 그의 체현으로 되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쏘련과의 친선을 더욱 튼튼히 함으로써만 가능한것이다.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개별적 활동가나 사회적 집단이나 당들의 쏘련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가 민주와 진보의 진영에 속하였는가 혹은 반동과 팟 강도적 제국주의 진영에 속하였는가 하는것을 판정하는 표준으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쏘베트동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민주와 진보 및 평화를 사랑하느냐 또는 그렇지않느냐 하는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그리하여 유고슬라비아에서 찌또도배들이 그의 행동으로 그들이 쏘베트동맹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는것을 보였을때 그는 전인류의 전위(前衛)들에게는 비난을 받았으며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반동분자와 우익 사회주의자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았다.

그렇기때문에 유고슬라비야 민족주의자들이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방패노릇을 하고 있다는것은 조금도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모든 사실들은 찌또도배들이 二차대전의 불속에서 자기의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유고슬라비야 애국적 인민들과 진정한 공산당원들을 반대하여, 공공연한 반혁명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자기의 조국을 팔아먹는 길로 나가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란공화국 대통령 볼레스라브·베루트는 말하기를 「제국주의 진영과 반제국주의 진영간의 [illegible]의 극단적인 대립이 전세계에서 첨예화하는것으로 보아 그어느때보다도 더욱 쏘련에 대한 태도는 진심으로 국제주의를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되어있으며 사회주의 위업과 또한 우리의 독립 및 우리의 주권을 옹호하는 견고하고도 유일한 지주(支柱)에의 충실을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되어있다」라고하였다.

이것은 파란인민의 사상뿐만이아니라 전세계근로인민의 사상이다.

자기 민족의 근로자들을 민족적 압박과 계급적 착취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모든 나라의 공산당과 로동당들은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강경하게 투쟁하며 동시에 약소민족의 해방과 민주주의적 국가의 자주독립에 절실한 리해를 가지고있는 쏘련과

의 친선을 백방으로 도모하고있다.

그러므로 국토의 완정과 통일적 독립국가를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는 조선인민은 쏘련을 선두로한 전세계 모든 민주주의국가들과함께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투쟁하면서 쏘련인민과의 더욱 긴밀한 친선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오직 이길만이 우리조선민족을 압박과 착취로부터 해방하며 제국주의 렬강의 예속으로부터 해방하며 자주독립의 인민적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담보로 될것이다.

금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동맹사이에 경제적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것은 조쏘친선의 체현인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쏘련방문귀환 환영대회에서 김일성수상은 말씀하시기를

「이모든 협정들은 참으로 우리민족 력사상에 영광스러운 새페지를 차지하는것이며 우리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정치적 지위를 더욱 향상시키며 신생공화국의 번영과 발전에 있어서 무한한 전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거대한 정치적의의를 가지는 협정이 조쏘량국간에 동등한립장에서 체결된것은 타민족국가들의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대소제민족의 독립과 자주권을 존중하며 평화와 자유를 옹호하는 기초위에 선 쓰딸린적 대외정책을 쏘련정부가 시종일관하게 실천하고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증명하는 것입니다」라고하시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조선인민은 조쏘친선의 강화에서 조국의 번영과 발전및 통일적 독립의 확실한 담보를 보고있는것이다.

113

一九四九년五월十일 인쇄
一九四九년五월十五일 발행

「근로자」 제九호
〔정가 三○원〕

책임주필 기 석 복
편집인 김 성 용
인쇄인 오 기 익

평양특별시문수리三○○번지
발행소 로 동 신 문 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근로자」 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七六번
편집실 三八○二 (二○번)

제ㄱ—10794